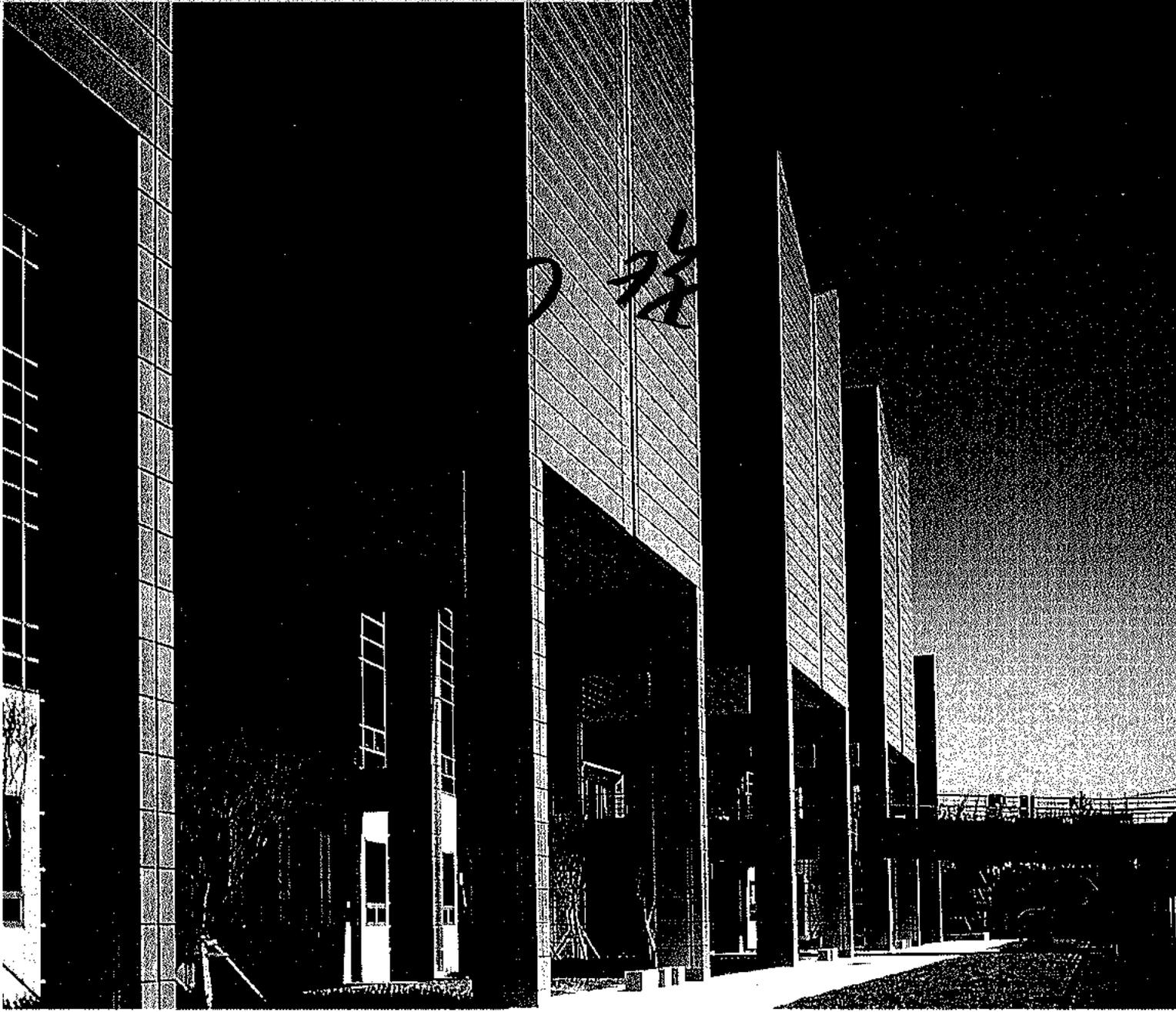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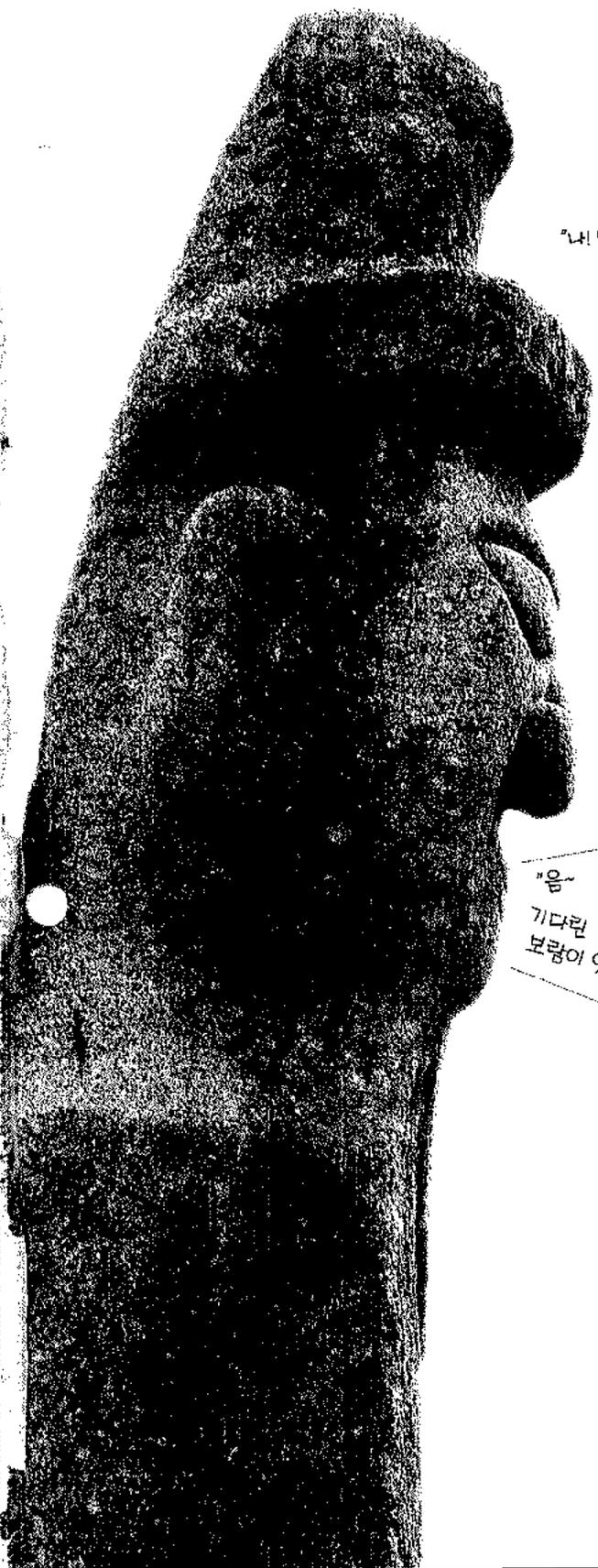


# 건축사 년

1993 7 vol. 363

- 리빙    권희의 건축은 문화인가
- 사무공간    윤이영의 공간
- 음식    권희의 건축은 문화인가
- 이탈    프레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변용





"내 망부석"

"음~  
기다린  
보람이 있네..."

# '진작 좀 나오지...'

## 건축 구조설계의 새로운 중심 MIDAS/SET-Art

쓸 때마다 속 끊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쓸수록 속 시원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설계할 때마다 일일이 구조설계 기준을 짜 맞춰야 하고,  
사용법도 어려워 짜증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주요 기준이 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 구조설계시  
꼭 필요했던 기능들이 빠짐없이 제공되며, 사용하기에도 편한  
'우리 환경'과 '우리 입맛'에 꼭 맞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리의 프로그램 MIDAS/SET-Art는  
30가지의 건축분야 부재설계 프로그램 모음으로,  
MIDAS/SET-Art를 만난 분들은 이런 얘길합니다.

"MIDAS/SET-Art! 진작 좀 나오지..."

### 대모 버전을 드립니다

MIDAS/SET-Art 대모 버전이 필요하신 분은  
TEL : 0342-779-2779로 연락하세요.  
MIDAS Family Program을 개발한  
장장한 구조재들이 친절하게 상담에 드리며  
대모 버전과 사용자 지침서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기초 및 응력설계



- 직립축설계기초
- 직립축(연속)기초
- 직립복합기초
- 말뚝복합기초
- 열방향 지하외벽
- 연립베어링 토압응력
- 지하벽침기중

#### 철근 콘크리트 부재설계



- 일방향슬래브
- 이방향슬래브
- 장방향 및 T형 보
- 전단과 비틀림을 받는 보
- 원형 및 장방형 기둥
- 코오벌 및 브래킷
- 전단벽
- 흙이 락 보

#### 철골 부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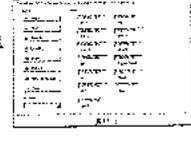
- 철골기둥 및 보
- 플레이트 거더
- 철골조 접합부(보용트)
- 철골조 접합부(중첩)
- 파이프 접합부
- 웨부개공보
- 베이스플레이트
- 타코플레이트 슬래브
- 크레인 주강보
- 종도리 및 락장
- 내풍보

#### 합성부재설계



- 합성기둥
- 합성보
- 합성베이스플레이트

#### 도구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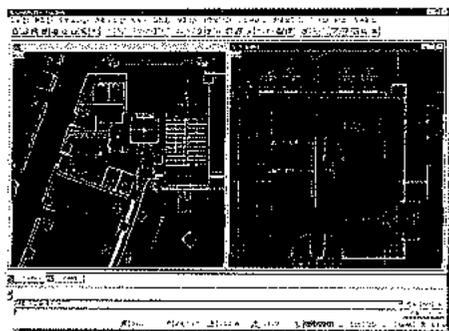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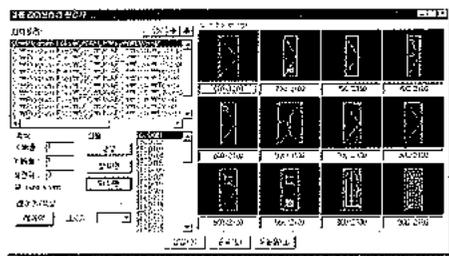


- 단위환산 프로그램
- 도출말

# 건축설계 전문가를 위한



##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uniARCH



UniARCH는 삼성SDS의 UniCAD 커널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축설계 전용 한국형 CAD S/W로 기존의 건축 설계용 3rd Party 프로그램 및 외국산 건축 설계용 CAD S/W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내 실무에 적합하고 기능과 속도를 향상시켜 작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UniARCH는 건축분야의 설계전문가를 위한 최적의 CAD시스템입니다.

- UniARCH는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Windows의 TrueType 글꼴을 모두 사용하며, 다양한 서체를 제공합니다.
- UniARCH는 다양한 File Format을 지원하며, 동적인 미리보기(Dynamic Preview)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UniARCH는 사용자 정의의 심볼 라이브러리 기능과 도면작성시 필요한 다양한 건축요소들을 생성합니다.
- UniARCH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UniARCH가 제공하는 환경에서 개발이 쉽고 빨라집니다.

# 최적의 CAD시스템 - UniARCH



## CAD 자주독립 UniARCH 815 특별판/정식판

- 판매대상 : 건축사협회 등록회원
- 판매기간 : 1999년 8월 14일까지 한정판매
- 판매가격 : 특별판 ..... 220,000원 / Copy (VAT포함)  
정식판 ..... 577,500원 / Copy (VAT포함)
- 특별판 공급조건
  - 사용보증기간 : 2000년 8월 15일, 보증기간내 Upgrade는 무상지원
  - 정식판 전환기간 및 가격 : 특별판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Upgrade 시에는 정식판으로의 전환이 필요
  - 5Copy 이상 구매시 분할납부 가능: 계약시, 1개월후, 2개월후 각각 40%, 30%, 30%
  - 반납가능: 특별판 사용중 불만족시 1999년 10월 15일까지
- 교 육 : 기본교육은 집합교육, 전문교육은 교육비 처리
- 매뉴얼 : 최초 1Copy에 1권, 추가 3Copy당 1권 추가지급



## unicad

- UniCAD는 통합된 명령어로 입력은 적게, 직입속도는 빠르거 하며 하나의 서스텝에서 여러개의 도면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UniCAD는 하나의 도면에서 부록 데이터를 생성, 수정할 수 있으므로 조립도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UniCAD는 선택된 요소에 따라 치수의 종류를 결정해 주므로 치수 기입시간을 줄여 도면작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 UniCAD는 복잡한 도면을 상세하게 파악하며, 어떤 그래픽 드라이버에서도 UniCAD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픽 속도도 아주 빨라졌습니다.
- UniCAD는 설계도면에 다양한 글꼴을 사용할 수 있으며, OLE2의 복사/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하면 Engineering 문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www.unicad.co.kr](http://www.unicad.co.kr)

• 국가검정 CAD자격증 제도 공인 CAD S/W 선정 • 교육부 국정교과서 CAD실습 Tool 선정 • 서울시 건축사 협회 공인 CAD • 경북 실내건축 디자인 협회 공인 CAD

### 공인 대리점

경인 에카비전 (02)598-0567 이너테크 (02)562-1491 캐디언스 (02)861-7805 SOS Eng. (02)2638-0685 신흥COM (0331)221-7755  
 탑이즈마인 (02)3445-7797 선우정보 (0342)751-0058 조형건축사 (0348)944-7188 대전 (주)해성 (042)533-5171 케드트릭 (042)636-1159  
 부산 포원정보 (051)315-7004 하나시스템 (051)328-7227 청원 강진정보 (0551)275-5258 케이앤아이 (0551)260-5341 대구 오야정보 (053)745-6999  
 월드캐드랩 (053)566-0160 광주 아르테크 (062)527-3834 경동시스템 (062)228-5900 무진 (062)265-4300 전주 컴퓨터랜드 (0652)71-5010

• 쉽게 쓰여진 UniCAD를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홀마트 (02)2275-5575



삼성S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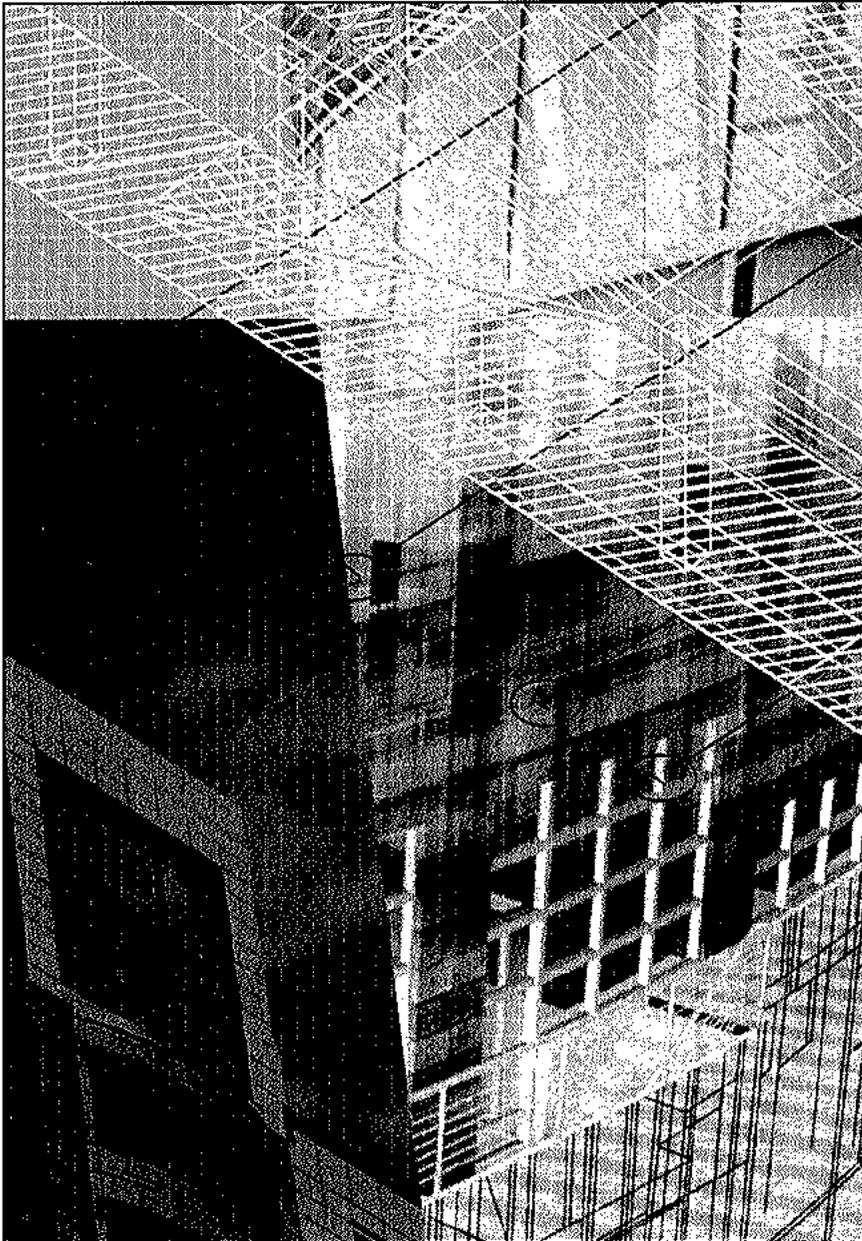


DESIGN YOUR  
WORLD™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7층  
TEL : 527-0790 FAX : 527-0799  
www.autodesk.co.kr

#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기본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제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 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번에 끝납니다.



###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AEC 산업을 위한 ObjectARX™ 기술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에 따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과 모델의 비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 융통성 있는 뷰 시스템
-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열람표 및 보고서 작성

설계 도면편집 S/W-

## Autodesk CAD Overlay

종이도면의 수정에서 CAD 도면과의 병합까지 하나로 해결

비주얼라이제이션 S/W-

## 3D Studio VIZ R2

AutoCAD 도면과의 동적 연결 및 실시간 3D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도구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게드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엠(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ADT**



# IntelliARC

## 건축설계전문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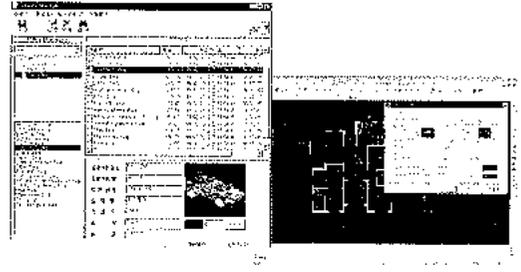
IntelliARC는 IntelliCAD를 국내 건축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CAD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실제 작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축 전용 설계 지원 소프트웨어입니다.

### 주요기능

- IntelliARC Tools (건축설계 지원 도구)
- IntelliARC Utility (건축설계 응용 도구)
- Symbol Library (아파트 및 건축물 도면요소)
- User Library (사용자 예약 심볼 블록 DB)
- Drawing Manager (도면의 View & 도면관리)
- IntelliARC CAD 한글 (자체 CAD 한글 지원)
- IntelliARC Interface (IntelliCAD, AutoCAD 호환 및 설계자원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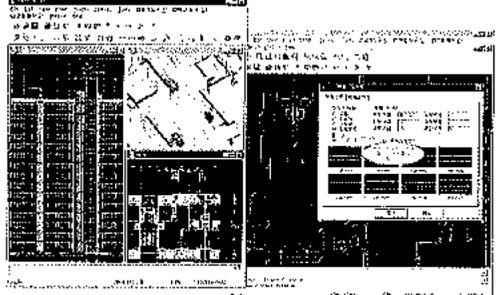
### 적용분야

- 건축물 설계  
아파트, 상업건축물, 주택, 주상복합건물, 철골, 공장, 인테리어



## IntelliCAD

- AutoCAD R11~R14와 완벽에 가까운 호환
- AutoCAD와 동일한 형식의 메뉴 채택
- 대부분의 Autolisp 프로그램은 변형없이 작동가능
- 동시에 수 많은 DWG 파일 Open하여 작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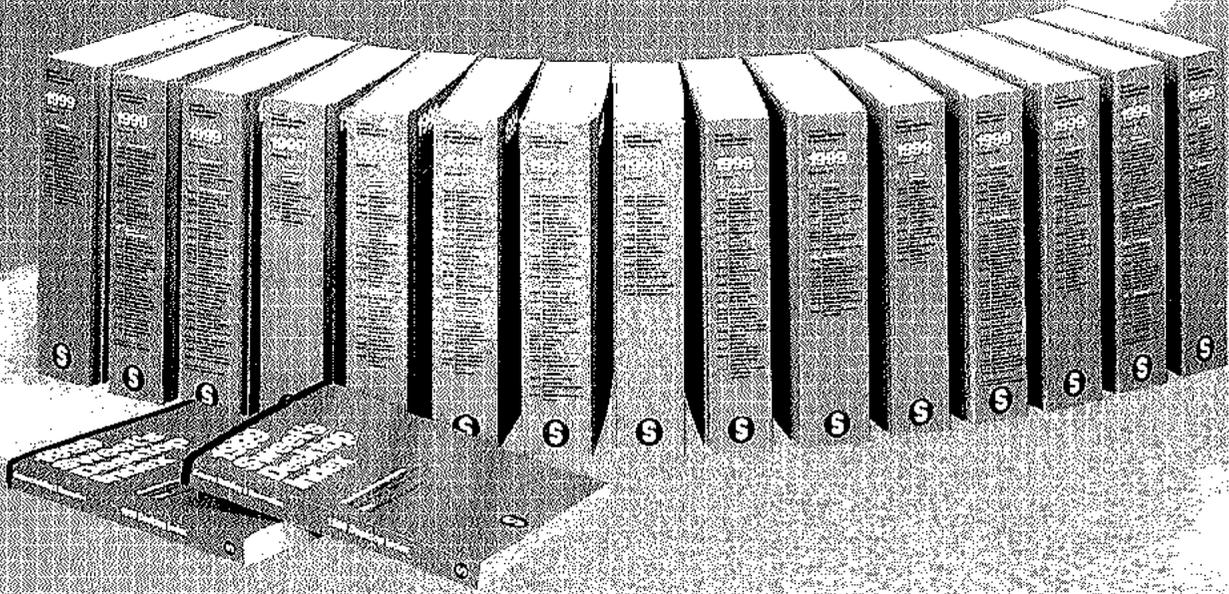
# db 다이내웨어 씨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2동 53-22 3F  
TEL:02-2249-0786 FAX:02-2244-0386  
E-mail:dy2048@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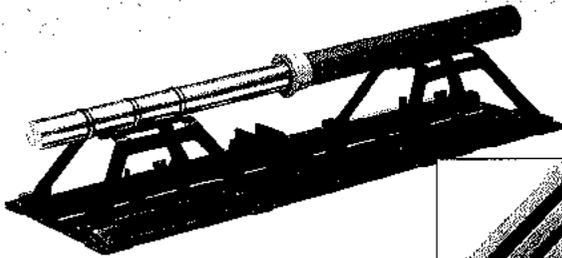
IntelliCAD는 Visio사의 등록상표입니다. AutoCAD는 Autodesk사의 등록상표입니다.

■ 서울:(주)인텔리시스템 (02)323-2472 / 인포월드 (02)406-0440 / 태성엔지니어링 (02)679-1804 / 누리컴시스템 (02)557-3664 / 솔비테크놀로지 (02)585-7695 / 이지웨어 (02)3663-8851 / 해룡엔지니어링 (02)3141-2492 / 인터캐드 (02)3463-2450 / 헤인정보 (02)558-0220 / 명인컴퓨터 (02)877-7361 / 공간시스템 (02)3471-6628 ■ 인천:두리 시스템 (032)621-4380 ■ 부천:자이로소프트 (032)654-6070 ■ 성남:사차윈시스템 (0342)707-0486 ■ 경기:진시스템 (02)354-0786 / 월드 CNS (0344)963-8038 / 캐드 포커스 (0345)494-3855 ■ 부산/경남:태창캐드픽스 (051) 636-3740 / 창시스템 (051)293-5180 ■ 울산:현대 오토시스템 (052)275-8911 / 영창캐드 (052)281-0243 ■ 마산: 대광전자 (0551)295-1617 ■ 경남:대성 EDN (0551)294-3234 / 한빛정보 (0591)759-7222 ■ 진주:세잔 컴퓨터 (0591)759-7222 ■ 대구:VR 코리아 (053)629-4927 / 명성 컴퓨터 (063)422-7780 ■ 구미: 비류 시스템 (0546)473-5566 ■ 포항:해광캐드 (0562)77-4404 ■ 광주: 동서정보 (062)383-1182 ■ 전주: 루트 시스템 (0562)-277-2171 ■ 여수: 하이테크 (0662)81-7000 ■ 충남/충북:CMS (0431)272-1024 ■ 대전:시와 과학 (042)482-1231 ■ 천안:클릭컴퓨터 (0417)566-7797 ■ 전남:미르시스템 (0652)252-4119 / 하이테크 정보 (0662)8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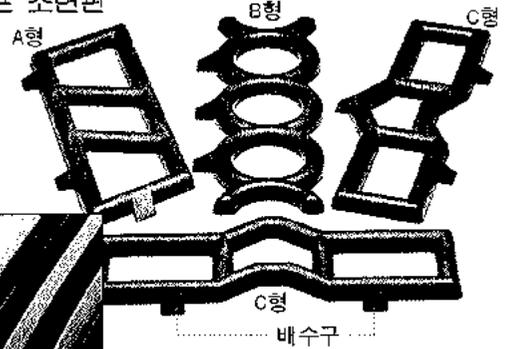
# Sweet's General Building & Renovation Catalog File(G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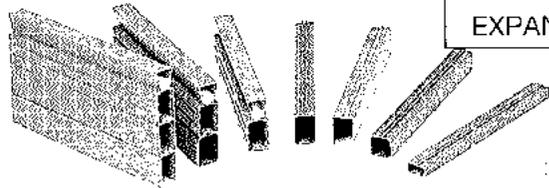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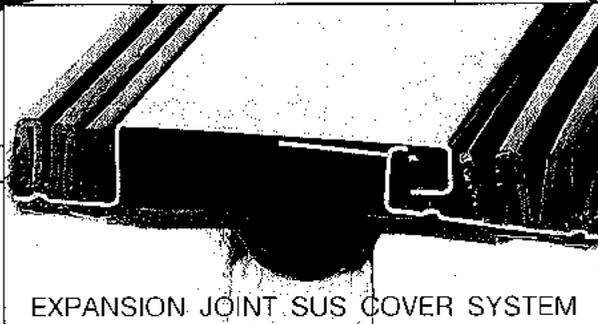
DOWEL BAR ·  
CAP · CHAIR



램프 조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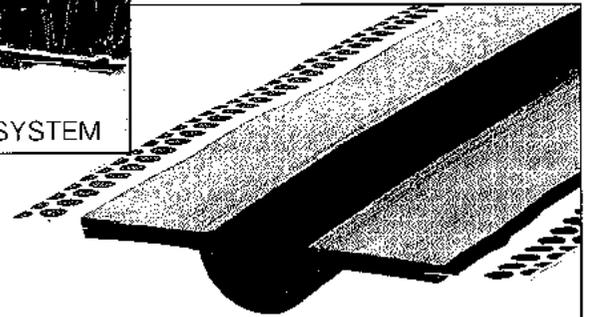


EXPANSION JOINT SUS COVER SYSTEM



신축줄눈

EPDM 지수판



**Sweet's Catalog File 한국대리점**

타우상사 02-3272-2318, 2320

신축줄눈, EPDM지수판, DOWEL BAR · CAP · CHAIR, 램프 조면판, EXPANSION JOINT.

**(주)타우 · 매일산업**

DETAIL 디스켓 무료 제공

TEL:02-3272-2311(代) ~ 3

# 미래형 건축물은 최첨단 중앙정수시스템으로 설계를 하십시오!

**고도  
정수처리**

## 리아롱정수장치

- 설치비 : 국내채래식시설 1/10
- 운전비 : 1/5로 처리비 절감
- 운전방법 : 무인자동시스템
- 재질 : 고강도PE(유지보수불요)
- 살균소독 : 오존발생기 기본
- 처리수질 : 식수격정으로부터 완전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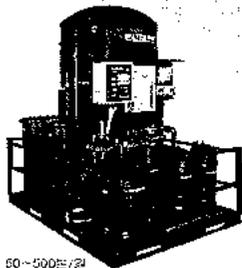
### 주요 사용처

- 1 교육기관, 공공기관, 회사식당 정수처리
- 2 콘도, 독립형아파트 단지, 위탁시설 정수처리
- 3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상수원미공급지역
- 4 호텔, 병원, 신축건물, 스포츠센터, 공공건물
- 5 미용실, 레스토랑, 대형음식점 등

### 장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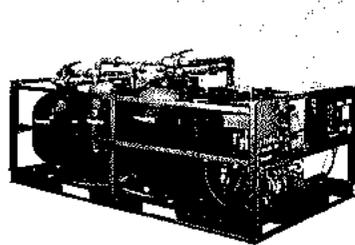
- 1 오존에 의한 미생물, 박테리아 등을 완벽히 살균처리합니다.
- 2 5미크론의 카트리지 휠타에 의한 탁도제거는 물론 기타 미세물질의 여과효과가 탁월합니다.
- 3 고효율 카본의 사용으로 중금속제거는 물론 유기화합성분, 냄새 등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 4 고순도 이온교환수지에 의해서 연수화는 물론 유해물질은 제거하고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을 통과시켜 물맛이 한층 좋아집니다.
- 5 공급되어지는 물은 최상위 품질의 수질이므로 별도의 정수기가 필요없으며 음용수는 물론 음식물 조리수, 샤워수로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정수장치 C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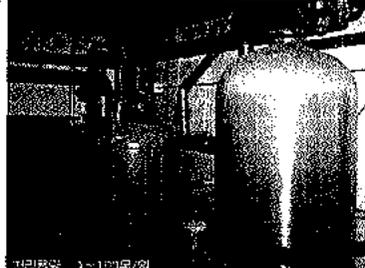
처리용량 50~500톤/일

중앙정수장치 Del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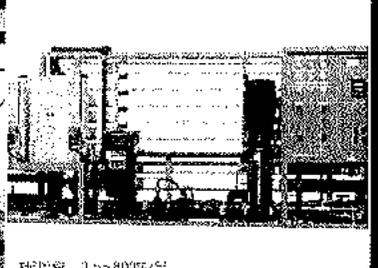
처리용량 50~500톤/일

중앙정수장치 Reiong



처리용량 1~10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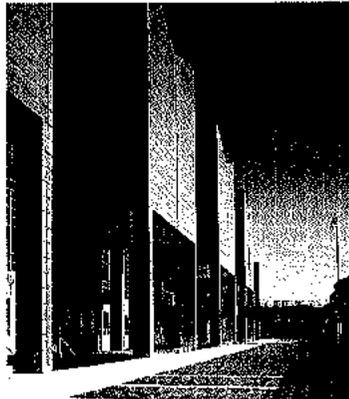
해수담수화장치 W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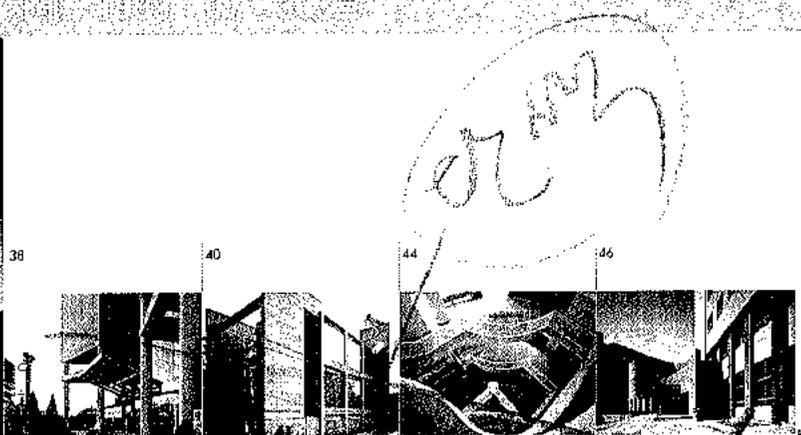
처리용량 0.5~800톤/일

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1 중앙빌딩 1018호  
Tel : 02-786-8959 Fax : 02-780-5170  
Web-site : www.landa.co.kr

**LANDA**  
WATER CLEANING SYSTEMS



부산시립미술관(이용홍 작)



64쪽 64쪽 64쪽 64쪽 64쪽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정양순  
 위원: 김정희, 조연숙, 조현근,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joung@kira.or.kr  
 hkjo@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266-4555  
 광고: (주)이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인사말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ARCASIA FORUM 10을 개최하면서	이의구	12
칼럼	우리의 건축은 문화인가	민현식	14
시론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문제와 대책	이관영	16
작품리뷰 / 부산시립미술관	대담: 단순성과 간결성의 조화 비평: 장소와 시대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용홍 강 혁 우신구	20 29 36
회원작품	영등도서관 종합무역단지정보연구센터 호반캐스투랑 배재대학교 21C관 자생당 병원 KAIST 의과학연구센터 북천제각(北川祭閣) 보람유치원	김상길 안길원 윤 옥 부대진·김무현 故 장세양 손두호 문철수 한경섭	40 42 44 46 48 50 52 54
작품노트	건축이 아닌 곳에서의 건축가의 일	하양호	58
UIA 참가보고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 대회 참가보고	김지덕외	58
기고	건축사의 꿈, 사이버공간의 건축 건축사들의 푸념 20세기를 마감하는 건축의 근원을 찾아서 현명한 CAD S/W의 선택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신유진 이종호 윤여욱 조만행 김화곤	66 70 72 74 76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6)	김미상	80
건축마당	건축만평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해외잡지동향 법령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5월분) 회원현황 99년 건축사자격시험공고 및 예비시험 합격자 명단		86 87 88 95 100 106 116 118 119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Message

KIRA will lead 21st century's New Architecture Age Lee Eui-Koo 12

Column

Our Architecture as a Cultural Act Min Hyun-Sik 14

Focus

The Counterplans for Mutual Approval on the Licensing of Architects Lee Kwan-Young 16

Review /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Interview The Balance Between Simplicity and Compactness Lee Yong-Heum 20

Critique Place, Era and Technology Khang Hyuk 29

Woo Shin-Koo 36

Works

Library in Youngtong District, Suwon Kim Sang-Gil 40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hn Gil-Won 42

Hoban Restaurant Yoon Ok 44

21th Century Hall Paichai University Bou Dae-Jin & Kim Moo-Hyun 46

Jasaengdang Hospital The Late Chang Se-Yang 48

KAIST Medical Science Research Center Sohn Doo-Ho 50

Puck-Cheon Je Gark Moon Chul-Soo 52

Boram Kindergarten Han Kyung-Sub 54

Design Note

Architect's View of Non-Architecture Design Ha Yang-Ho 56

Report

Report on the UIA Beijing 1999 Kim Chi-Tok etc 58

Feature

Architect's Dream, Architecture in Cyber Space Shin Yoo-Jin 66

Some Complaints from the Architects Lee Jong-Ho 70

An Origin of Architecture in the Closing of the 21th Century Yoon Yeo-Wook 72

A Wise Choice on CAD Softwares Cho Min-Hyaeng 74

In Preparation for a New Millennium Kim Hee-Kon 76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6) Kim Mi-Sang 80

Architects' Plaza

Cartoon 86

KIRA News 87

Archi-net 88

Competition 95

Overseas Journal 100

Laws & Ordinances 106

Statistics 116

Members 118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삼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804-718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5)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9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0-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이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3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5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0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8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3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9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8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92-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26-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9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6)336-3140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3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374-2650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9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652-3796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6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86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6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660 · 양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88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9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623)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8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696)893-4612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ARCASIA FORUM 10을 개최하면서

## KIRA will lead 21st century's New Architecture Age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

경제위기로 인한 힘든 여건속에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협회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우리 건축은 지난 한세기 역사의 격랑 속에서 경제 고도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환란은 우리 건축계에 힘겨운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생존차원의 미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적으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해 건축설계분야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눈앞에 산재한 각종 현안들, 특히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개혁정책에 따른 건축 및 건축사법 개정작업 등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 어느덧 반년이 지나, 이제서야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보다 뜻깊은 범국민적 건축홍보활동을 준비하던중 뜻하지 않게 삼중백화점 붕괴사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써랜드" 화재참사로 23명의 어린 싹들을 희생시킨 불행한 사고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시대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인 건축사로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같은 위법부실행위가 두 번다시 이 땅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원인의 근원적 제거노력은 물론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축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원의 정서를 반영하여 건축사제도의 제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원의 35%를 감원하는 등 작고 기능이 강화된 모습으로 획기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국제적으로 UIA 등 국제기구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따라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9. 12~17 기간중 서울에 유치해 아시아지역 18개국은 물론 세계 건축계의 지도자 및 석학들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을 주제로한 이번 포럼은 학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건축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건축사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UIA북경대회에서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이 정식채택됨에 따라 이에따른 대안 및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국내 건축교육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및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이제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도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현 집행부는, 협회가 건축계 구조 개혁의 중심에 서서 21세기 선진한국건축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협회의 재정지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 각종 수익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회의 재정지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오는 7월말경 개관을 목표로 현재 구조조정으로 여유공간이 확보된 회관 1층을 전시관으로 활용해 회원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시공중에 있습니다.

**둘째, 회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한 존재인 만큼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건축인허가업무 전산화에 대비해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회원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협회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화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회원사에 E-Mail 계정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셋째, 설계·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시장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거래에 있어 공급자는 확고한 책임의식하에 수요자만족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건설관련단체를 비롯한 대다수 사업단체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공제사업을 통해 자기 회원을 보호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제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넷째, 자율시장경쟁원리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협회는 건축법령개정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한편 회원여러분의 업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신고범위를 축소토록 하였고, 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반영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조형창작활동에 걸림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의 '회원가입 임의화' 및 '복수단체 설립 허용'을 골자로한 법률개정 추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이 사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도서신고조항과 더불어 일단 그 시행시기를 2000년말까지 유보키로 정부와 합의돼있는 상태입니다만 협회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련 전문자격사단체들과 연대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또 올해초 건축사보수기준이 갑자기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회원은 물론 발주처 등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의 설계비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

우리에게는 불모에서 기적을 일구어 낸 강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되살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 다시한번 기적의 산화를 일구어 냅시다.

회원 여러분의 힘찬 분발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가올 21세기가 한국건축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천년이 되도록, 7천여 전회원이 화합해 이 땅에 건설한 건축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건축사의 위상을 바로 세웁시다 !

모든 하시는 일들을 뜻하신대로 성취하시고 회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

## 우리의 건축은 문화인가

### Our Architecture as a Cultural Act

민현식 / 건축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Min Hyun-Sik

요즘 학교에서 “도시탐험”이란 타이틀로 ‘기초설계 1’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도시 또는 도시의 일정구간을 탐험하듯 배회하면서 각자의 관심거리를 발굴해내는 도시를 읽는 훈련이다. 도시를 탐험한다는 것은 그것의 물리적 형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축조물들에 의해 생겨나는 공간적 긴장과 그들이 담고 있는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도시의 형성된 모양이 아니라 도시의 개별 요소들이 만들어 낸 상대적 관계이며 도시가 수용하고 있는 실제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를 보는 눈을 키워 가는 공부이다.

이번 학기는 수도권의 물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양평(楊平)을 대상지로 하였다. 그러나 부제는 ‘양평읽기’가 된다. 문득 한 학생이 골목길의 한 집을 주목하고 그 집을 발미 삼아 ‘버나쿨라(Vernacular)’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고, 관심의 대상이 골목길 안의 판잣집(?)에서 큰길가의 번듯한 건물들까지 점차 확장되어 갔다.

내가 건네준 참고문헌은 버나드 루도프스키의 ‘건축가 없는 건축-족보 없는 건축에 대한 짧은 소개(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A Short Introduction to Non-Pedigreed Architecture)’와 존 B. 잭슨의 ‘버나쿨라 (Vernacular-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조병수의 팜프렐 ‘현대의 버나쿨라’ 그리고 김소진의 소설들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버나쿨라라는 이 말은 무언가 촌스럽고 가내공업적이며 토속적 옛맛이 있는 그 무엇을 말하며 건축에 관련하여 얘기할 때는 시골이나 소도시의 전통민가나 농부, 장인들, 막노동꾼 등 하층 민중들의 주거를 일컫는다. 즉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의 별 볼일 없는 집들인 것이다. 요즘에 와서야 버나쿨라 건축이라 이름 붙여서 그것은 직업 건축가가 아닌 장인들에 의해서 그 지방의 기술과 재료로 그리고 기후와 전통, 지역경제 등 그 곳의 지역적 환경아래 만들어진 건축이라 그럴 듯하게 표현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뒤집어보면 같은 말이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지금 우리의 도시를 메우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들은 실은 버나쿨라 건축이 아니다. 모든 건물들이 설계도면에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건축사들의 도장이 찍힌 엄연한 건축가가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이고 소위 현대적 건축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면허가 있는 전문 사공업체에서 공사가 맡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도프스키의 말을 빌린다면 소위 ‘족보 없는 건축’이 아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이 학생의 눈에 이들 건물들이 버나쿨라로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건축의 해가 아니고 문화라는 꼬리표가 유난히도 마음을 거슬리는 건축문화의 해가 이제 반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축은 문화였던가?’를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만일 아니라면 이 학생의 논리대로 우리도시를 메운 대다수의 건물들이 버나쿨라일 수밖에 없다.

7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불어온 오일 달러의 중동특수를 등에 업고 숨가쁘게 진행되어온 조국근대화 프로젝트는 경제제일주의와 개발지상주의를 우리사회의 지선(至善)의 가치로 상징하게 하였고 그것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건설현장이었다. 이런 탓으로 건축=개발이라는 등식이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행세해온 건축은 경제의 논리이래 자본의 법칙에 따라 운용되어 왔다. 자연히 그곳에 문화가 끼어 들리 만무하고 건축은 부동산으로만 환산되며 건축행위는 시장바닥의 흥정과 다름없었다.

80년대 한국 성장의 중심에는 90년대에 와서야 서서히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모순이 있었다.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서구 따라잡기라는 과제에 매달리기 시작한 60년대 이래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희생이 다음세대의 삶을 더 좋고 편안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자본이 축적되었고 기술도 세련되어 간다.

그리고 건축은 그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틈새에 유착, 뇌물관행, 부정공사 등은 오랫동안 건설업계를 특징지어온 요소이기도 했다.

부의 축적수단으로서의 건축이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이고 주지하다시피 건설현장의 주변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다. '한국사회의 부패 및 청렴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의 부패관행에 대한 설문결과, 부끄럽게도 건축 등에서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제공해 혜택 이 가능 83.5% 불가능 13.3%로 기업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줘서 세금 등 혜택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6월 7일자 동아일보/한국사회 부패지수)

조사 결과대로 세무주변과 함께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건축행위 주변의 부정부패는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 고질병처럼 통념화 되어있다. 더욱 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러한 부정부패의 도덕 불감증의 만연으로 누구도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괴변을 방패삼아 후안무치의 작태들이 날 뛰어도 모두들 눈감고 입을 닫고 있다.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버틸 때까지 버티 보자는 막가파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우리의 건축은 경제의 논리 그리고 힘과 퇴폐적 의리가 가치로 인정되는 강태의 논리에 의하여 계속 지배받을 것이다. 오히려 문화예술의 탈을 벗는 것이 안으로 깊어지는 화농을 발견하기 쉬워지도 모른다.

우리의 건축이 별 불일 없는 버니콜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고질병은 우리건축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점이고 그걸 위한 창조적 노력이 바보짓같이 취급되는 풍토이다. 잡지를 베끼고 가서 보고 베꼈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렵지만 한 기술의 성실한 계발이나 건축이론의 여과는 단편으로 밀어놓고 꺾데기의 일부만 적당히 베끼는 점이다.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으레 이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관행이 되었고 건축주들은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선진 해외사례를 베끼라고 공공연히 요구하는 것이 관례를 넘어 의무이기까지 했다.

#### 이영미의 우리문화의 이식성(移植性) 논리를 들어보자

“우리대중문화의 이식성은 단지 외국의 예술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문제가 아니다. 외래 예술문화가 그 시대 그 분야의 가장 중심적 경향을 주도하고 예술언어나 양식 등 핵심적 요소에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과서의 구실을 한다는 점, 그 외래문화의 수용이 정상적인 상호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이라는 점, 그 수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술발전의 단계마다 자생적인 창의력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이나 변화의 실마리를 외국 예술문화로부터 받아들이는 반면 이전까지의 예술문화들은 낙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중략) 이식의 대상은 단지 외국의 예술이 아니라 '선진국' 즉 '강자'의 예술이며, 그 이식을 앞서서 담당 한 주체들은 우리 나라 안에서 최고의 선진성의 평가를 얻게 된다. 즉 강자가 된다. 따라서 이식은 단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문화가 옮겨오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며, 국내의 문화적 바탕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현상이며, 사회적으로 보아 후진국 지식인파 서민 모두가 지니고 있는 강한 열등의식이나 계층상승적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때 건축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어느 외국대학의 학생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들롱이 나는 웃지만은 못할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 탈없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누구나 베끼기 때문에 그 또한 서로 봐 주는 좋은 게 좋다는 예외와 의리를 지킨다. 건강한 대화가 없고 창조적 비평의 풍토가 성숙할 리 없고 창조적 건축을 생성시킬 자생력이 없다.

본래 윤리란 것은 중산층에만 있는 것이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20 대 80의 사회로 재편되어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 도덕불감증마저도 사라져서 애써 지키기로 제정한 건축사헌장은 그저 박물관에 보관된 지난날의 유품이 될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에 건축사 헌장을 다시 읽는다.

1.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한다.
1.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 건축사자격상호인정문제와 대책

### The Counterplans for Mutual Approval on the Licensing of Architects

이관영 /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이사

by Lee Kwan-Young

#### 배경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됨과 동시에 전문 직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교섭이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회계사자격의 국제적 상호통용(상호인정)에 관한 원칙이 합의에 이르게 되고,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을 비롯한 다른 전문분야에의 교섭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건축가협회(UIA)는, 스스로 「건축실무에 대한 Professionalism의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표준」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로 하였다.

지난 6월 북경에서 열린 제 21차 UIA대회에서 채택된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사의 기본요건」으로는, 1985년 8월 유럽공동체(EC: 지금의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그대로 UIA에서도 채택하였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무훈련」 「시험과 등록」 「계속교육」 등 건축사에게 필요한 기본요건에 대하여 상세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생소한 「교육인증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훈련」과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기존건축사에 대한 상호인정방안과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 건축사제도를 비롯한 관련법규정의 개정 등 실로 방대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사자격상호인정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대책, 협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교육프로그램

우선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현장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교육문화와 관습에 맞는 교육제도가 연구·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공·사립에 따라 교육기관자체의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와 건축사 이외의 건축기술자를 위한 건축공학과의 분리문제, 타 전공분야와의 관계, 필요한 법제도의 개정 등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나, 빠른 시간안에 협회의 의견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다. 왜냐하면 건축교육은 바로 건축사가 되기위한 자격요건이므로 등록건축사단체인 협회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5년제의 건축대학안과 4+2안, 4+3안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건축사협회로서는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간섭보다는 건축사가 되는데 필요한 성과지향수행기준(Achievement-Oriented Performance Criteria)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공학(Building Engineering)과 건축학(Architecture)의 교육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가질 수 있는 성과지향수행기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건축공학분야에서 배출되는 기술자

(Building Engineer)에 대한 국제간 상호인정문제도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 WA)이나, APEC의 기술자상호 인정프로젝트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학교육에 비추어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y)」을 가질 수 있도록 고유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교육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흔히 현재의 교육적 환경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여서는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관련 3단체, 특히 건축학회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 교육인증프로그램과 인증기구의 설립

### 교육인증프로그램

교육인증이라 함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해당교육기관의 건축교육프로그램이 건축사가 되는데 필요한 「성과지향수행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증을 위한 기준, 즉 「성과지향수행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교육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로서는 이미 인증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인증제도의 목적이 국제적으로 건축교육의 동등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성과지향기준은 대략 「기본적 지식」, 「설계」, 「정보교환능력」, 「건축실무」의 4가지로 대별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인식(Awareness)」, 「이해(Understanding)」, 「능력(Ability)」의 3등급으로 나누어 상세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를 위한 준비기구로서 협회외에도 건설교통부의 건축사자격상호인정대책반(건축관련3단체 즉,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와 교육부가 참여)이 활동중에 있는 바, 최초의 시안은 공학교육인증원(가칭)의 감사학회인 「건축학회」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이 「시안」 역시 미국의 건축교육인증기구인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의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인증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4+2안 또는 4+3안에서의 4년과정(Undergraduate)에 다소 이견이 있었고, 건축인증기능을 공학교육인증원 안에 두고자 하는 문제는 「합리성」과 「정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 할 것이나, 경위야 어찌되었던 이러한 인증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건축3단체협의회」라는 공식기구가 있고, 「건설교통부대책반」이라는 연구모임에도 3단체가 나란히 참여하고 있음에도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중복투자라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인증프로그램은 위의 성과지향수행기준이외에도 「인적자원(교육을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는가)에 대한 기준」, 「물리적 자원(교육을 위한 시설)」, 「정보자원(충분한 도서, 자료와 이용을 위한 장치)」, 「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도」,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기준」 등을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현실로 보아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이와같은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갖는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감안하여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잃게되므로 옳지않은 일이다. 최근에 교육인증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경우 건축학분야에서 78개 교육과정 중에 60여개 과정이, 건축공학분야에서 230개 과정중 212개 과정이 인증에서 탈락될 만큼 강도높은 인증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 건축교육인증기구의 설치

위와같은 기능을 하는 인증 기구는 교육기관이나 교육관련단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그 판정에 대하여 「권위」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건축사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주체가 되어 「기준」을 정하고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건축사등록기구인 NCARB(미국)나 RIBA(영국), NABAR(중국)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건축사등록기구에 해당하는 기능이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로 분산되어 있으나, 이러한 등록기구를 비정부기관(NGO)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건교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와 병행하여 건축사협회는 우리나라 유일한 등록건축사단체로서 건축인증프로그램의 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교육인증제도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인 까닭에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듯 하다. 즉 건축계의 일각, 특히 건축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건축계에서, 공학교육인증을 목표로 설립추진중인 공학교육인증원(ABEEK)에 건축학에 대한 인증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다. 우선 공학인증원은 그 출발에서부터 미국의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조차 건축교육은 ABET와 전혀 다른기관인 NAAB(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Inc.)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학인증원이 건축공학(구조, 설비, 전기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공학분야의 간사기구로 건축학회를 선정하였고, 건축학회에서 편의상 건축공학 뿐 아니라 건축학에 대한 인증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으나,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성과지향수행기준(Achievement-Oriented Performance Criteria)은 어디까지나 건축사 등록 기구에 의하여 요구되어야 함은 물론, 인증기구도 공학인증기구와는 별도의 건축교육인증기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우리 협회로서는 3단체 협의회와 공청회에서 이와같은 의견을 거듭 밝힌 바 있고, 5월 28일의 공청회에서도 이와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건축학인증프로그램은 공학인증원에서 제외키로 결론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학회에서는 건축학교육인증을 공학인증원에 포함시키려는 뜻을 관철시키고자 다른 관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회단독으로 이를 공학인증원에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한 뜻을 건축학회와 공학인증원에 전달한 바 있다. 첫째, 학회가 임의로 건축교육인증을 공학인증원에 의뢰한다고 해서 공학인증원이 건축학교육인증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인증프로그램은 해당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실무자 집단에 의하여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건축학회는 건축관련단체의 하나일 뿐, 건축 실무자 집단을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입장차이를 조정하고, 건축계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하여 3단체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셋째, 학회에서 주최한 공청회의 결과,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은 공학인증원과 별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건축공학인증프로그램도 그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실무기술자(Professional Engineers)기구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바, 일부 인사들의 독단에 의하여 공청회의 결과가 무시되어 버린다면, 학회의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 공청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개진한 바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축계의 불협화음이 자칫 건축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이다. 이러한 오해와 잡음을 일소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

여는 건축관련 3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기관과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건축계를 망라한 교육인증기구설립준비기구를 발족시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인증기구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실무훈련(Internship)프로그램

원칙적으로 건축교육은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평가·통합하는 능력은 스튜디오중심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 외국의 경우 대학교육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졸업후에도 일정기간 설계스튜디오에서의 실무 훈련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훈련은 건축사에 의하여 평가되고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졸업후 무려 5년여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실무경력일 뿐, 구체적인 실무훈련프로그램이나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으로, UIA가 권장하고 있는 2년간의 실무훈련에 비하여 훈련강도나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도높은 실무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무훈련」을 실시할 경우, 오히려 현 제도보다 짧은 시간안에 효과적인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실무훈련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건축사에게는 그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계속교육」으로 대처하여 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실무훈련이 제도화 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공청회 등의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개선·보완할 계획으로 있다.

### 시험/등록

국제적인 동등성을 갖는 자격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과 실무 훈련에 대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건축사가 되기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바뀌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험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지향기준」이 요구하는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0시간이 넘는 시험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의 시험제도와 평가방법으로는 이러한 성취지향기준의 만족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성취기준에 적합한 시험제도와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등록에 관해서 UIA기준은 현재의 우리자격등록제도와 다소 차이를 갖고 있다.

등록의 취지는 일반인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무자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부족하다해서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직업에 한하여 시행되어 왔다. 자격의 심사에 있어 대다수의 국가들은 규제가 없으면 공공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해악이 뚜렷한가, 국가에 의한 규제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기존의 법규와 기준만으로 공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직업을 규제하는 것이 공공에 대하여 어느정도 부담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제도가 임의의 강제이든간에 국제간의 건축사자격상호인정은 등록건축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 계속교육

계속교육(지속적인 경력개발)은 보다 높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에 대한 유지·발전을 통하여 사회의 요구에 맞는 학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평생학습과정이다. 이러한 계속교육프로그램 역시 국가간에 호환성과 상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수강시간을 충족

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도 평가받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교육의 이수학점은 이러한 학점의 제시를 요구하는 기관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기존건축사에 대한 조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사 면허를 획득하였거나, 건축사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예비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시험대기자에 대하여는 실무훈련기간의 추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격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경력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상호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 특별한 교육기구를 통한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의 상호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사정에 따라 상호인정을 받지 못한 기존건축사에 대하여는 국내설계시장에서만이라도 업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일본과 함께 한·중·일 협의회를 통하여 방법을 논의중이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문제는 WTO 체제에서의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강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가깝게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존건축사의 자격상호인정문제에서부터 멀게는 국제적으로 동등성을 갖춘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사는 우리 건축사의 책임이 무겁다. 모쪼록 줄고 상호인정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협회의 대책 마련에 회원여러분의 깊은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부산시립미술관

작품리뷰 review

Pusan Metropolitan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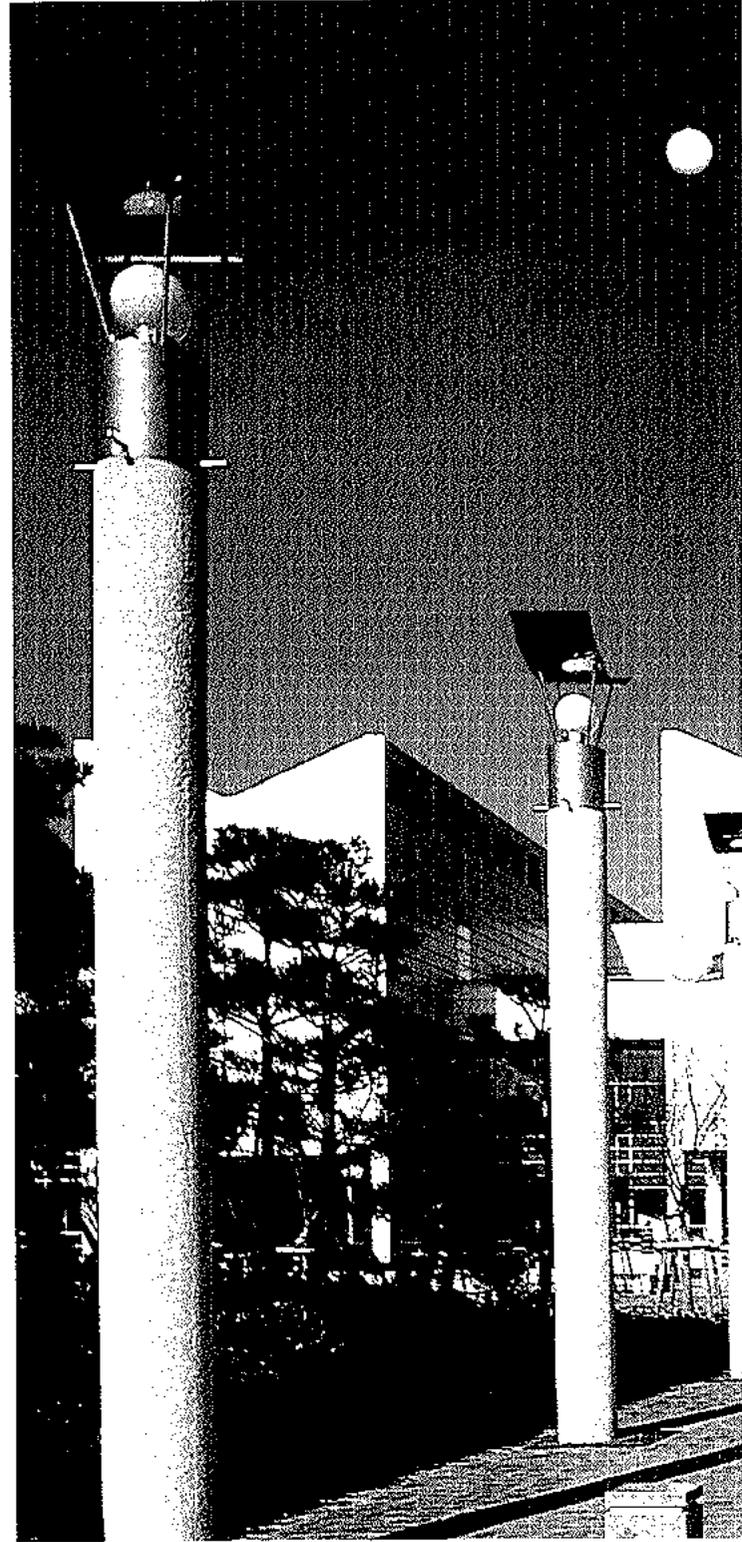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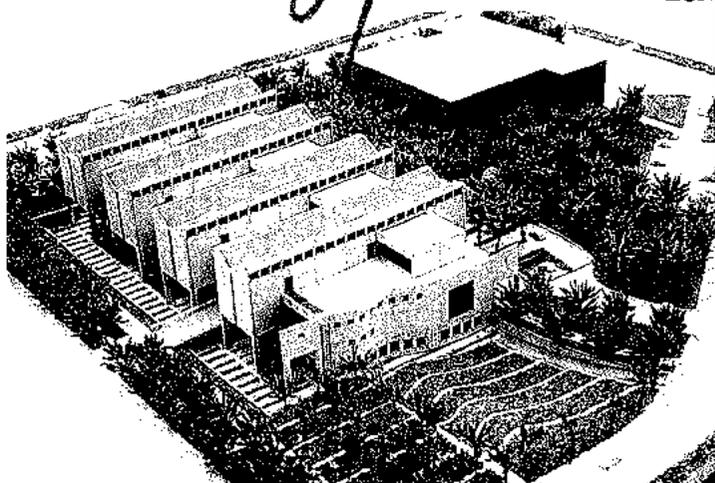
이용흠 /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eum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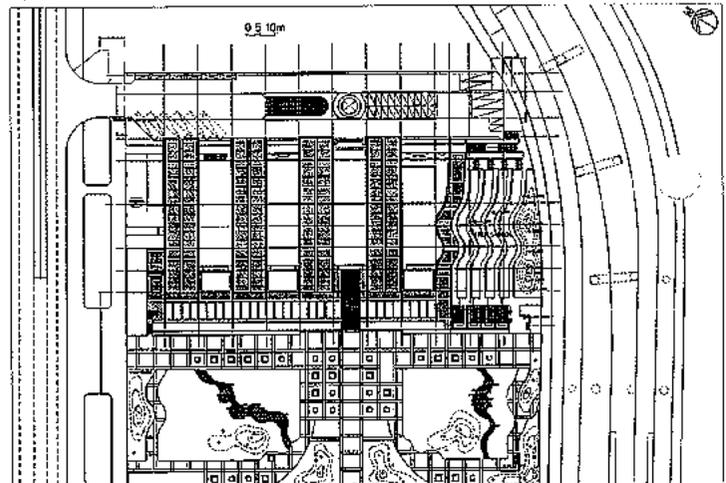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올림픽공원내)
대지면적	21,560㎡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용도	전시시설(미술관)
구조	철골조,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 근콘크리트조(지하주차장)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건축면적	4,777.14㎡
연면적	21,425.70㎡
건폐율	4.12%
용적률	9.83%
조경면적	8,652.2㎡
외부마감	외벽/2.2mm알루미늄패널, 불소수지코팅 지하1층 외벽: 화강석버너마감 (포천석) 창호/24mm자외선차단 복층유리, 18mm 킬러복층유리(그린색) 지붕/0.91샌드위치패널, 0.5mm등마감 (Standing Roof)
주차대수	승용차/153대, 버스/5대
설계담당	이길주, 이봉두, 이승엽
감리	일신설계감리단
시공사	(주)대우, 자유건설(주)
구조설계	(주)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설비	협진(주)
전기	필엔지니어링
설계기간	1993. 6. 10~1994. 7. 30
공사기간	1994. 12. 12~1998. 2. 25

640년

모형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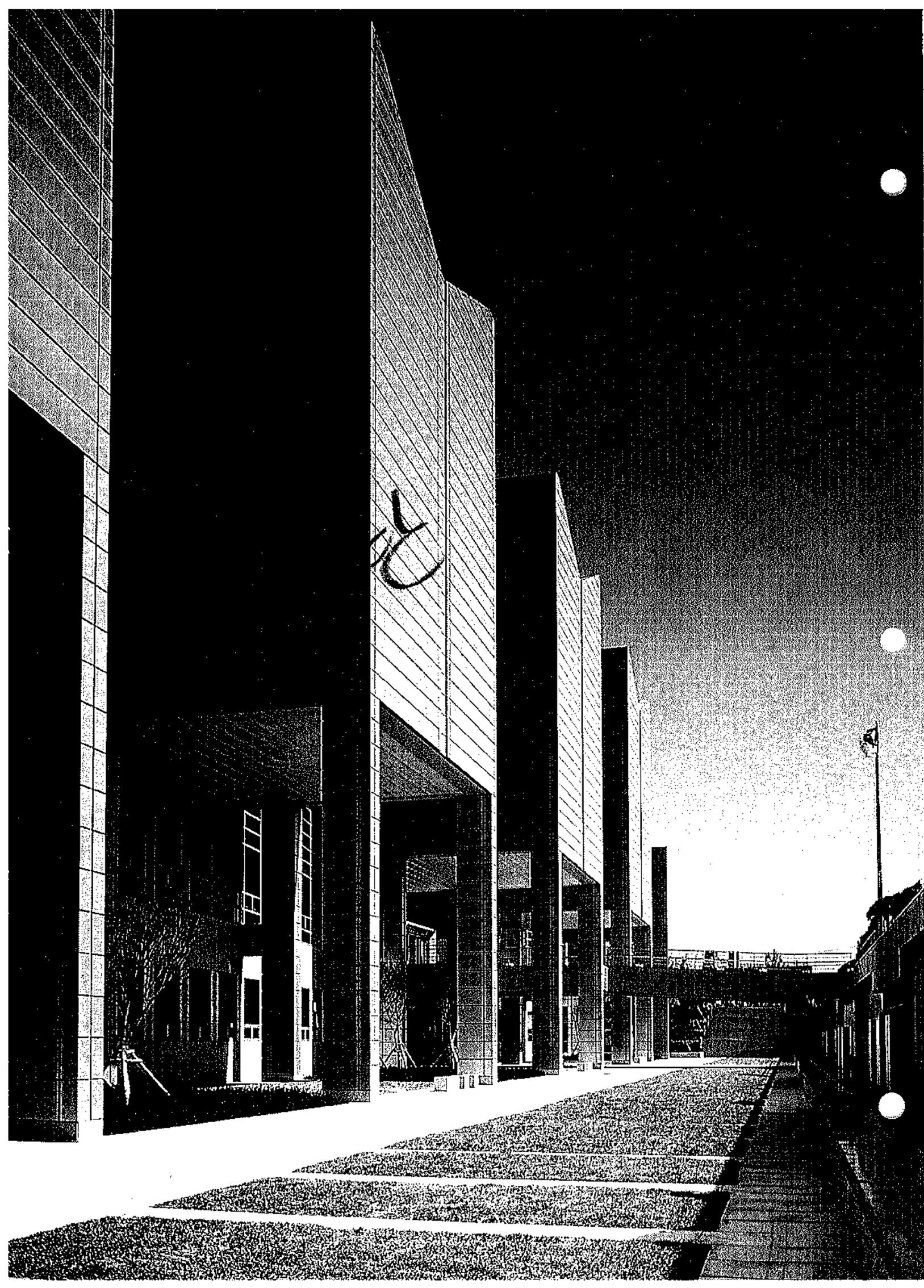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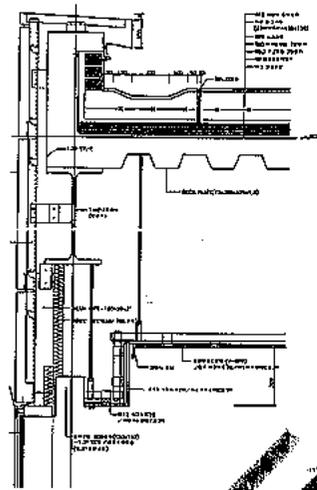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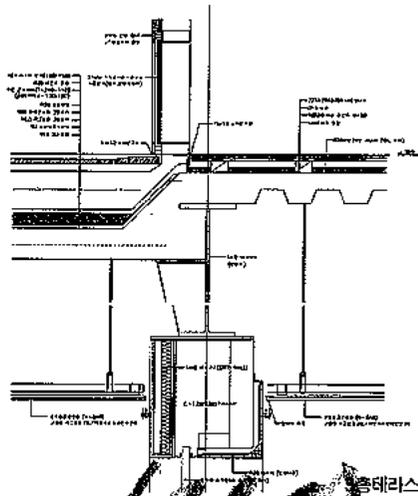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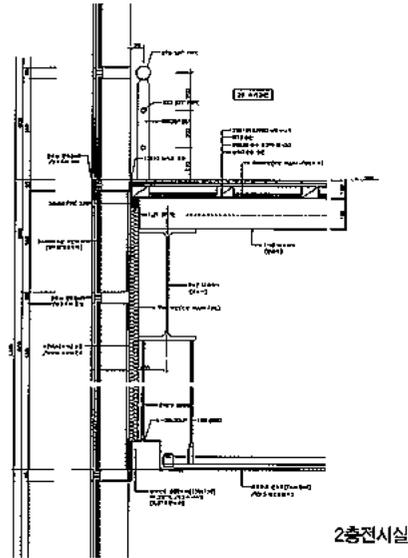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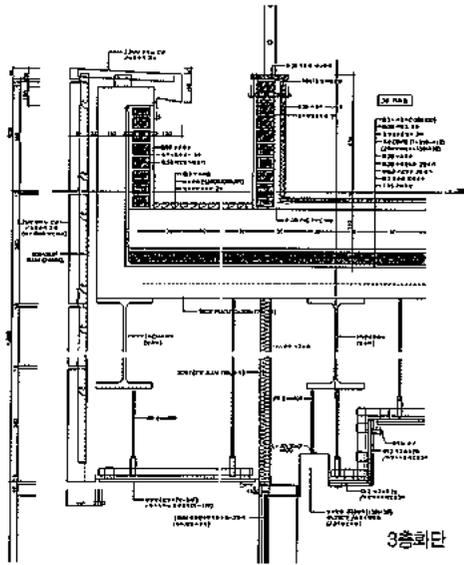
올림픽 공원에서 진입하는 주출입구 전경

1023

**Location** 1413Woo-dong, Haewoondae-gu, Pusan (within the Olympic Park)  
**Site Area** 21,580㎡  
**Area Classification** Natural Forest District, Park Area  
**Program** Exhibition Facility (Museum)  
**Structure** Steel Structure, Partial Reinforced Concrete Steel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Basement Parking Spaces)  
**Stories** 3 Stories, 2 Basement Floors  
**Building Area** 4,777.14㎡  
**Total Floor Area** 21,425.70㎡  
**Building Coverage Ratio** 4.12%  
**Gross Floor Ratio** 9.83%  
**Total Landscape Area** 8,652.2㎡  
**Exterior Finishings** Wall - 2.2mm Aluminum Panel, Plastic Co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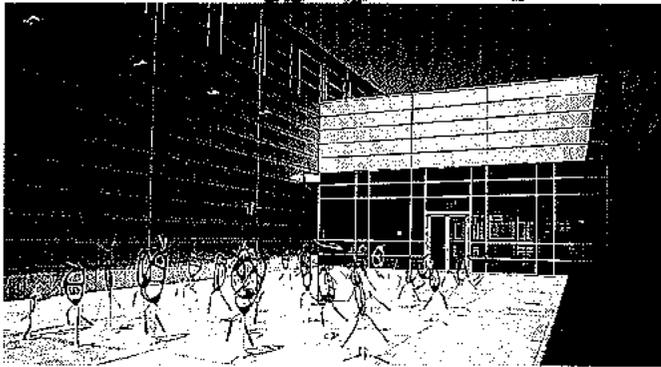
**Wall** GBS Granite  
**Windows** - 24mm Ultraviolet-Blocking Pair Glass, 18mm Colored Pair Glass  
**Roof** - t91 Sandwich Panel, 0.5mm Bronze Finishing (Standing Roof)  
**Total Number of Parking Spaces** 153 (Plus 5 for Buses)  
**Design** Lee Gil-Joo, Lee Bong-Doo, Lee Sung-Yup  
**Construction Management** Ilshin Construction Managements  
**Construction** Daewoo Engineerings, Ja-yoo Constructions  
**Structural Design** Ilshin Architects  
**Mechanical Installations** Hyupjin Mechanics  
**Electrical Installations** Phil Engineerings  
**Design Period** June 10, 1993 - July 30, 1994  
**Construction Period** December 12, 1994 - February 25,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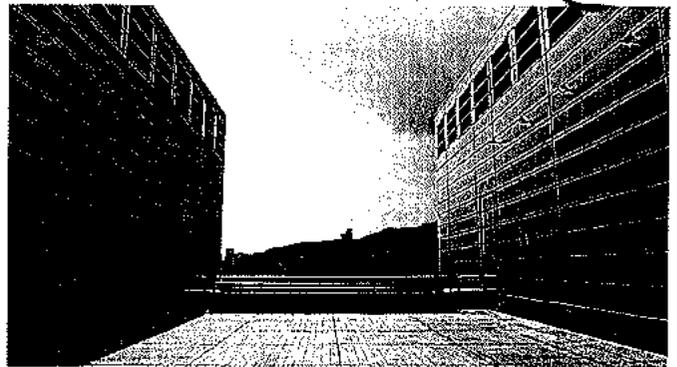


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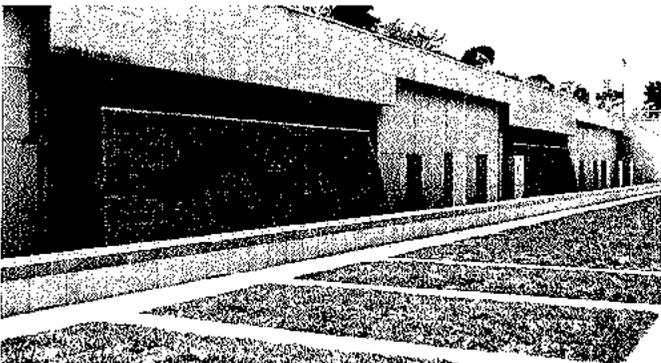
64년  
분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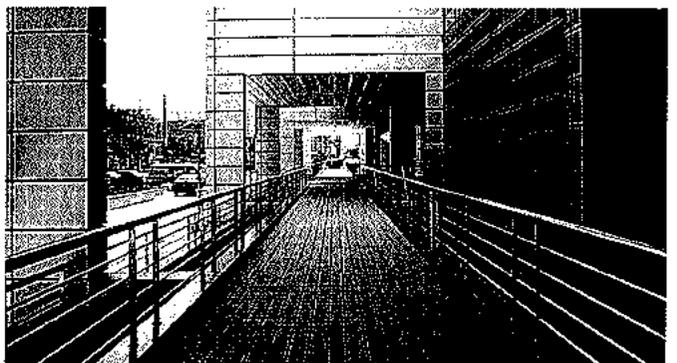
육의전시장



조각전시가 되는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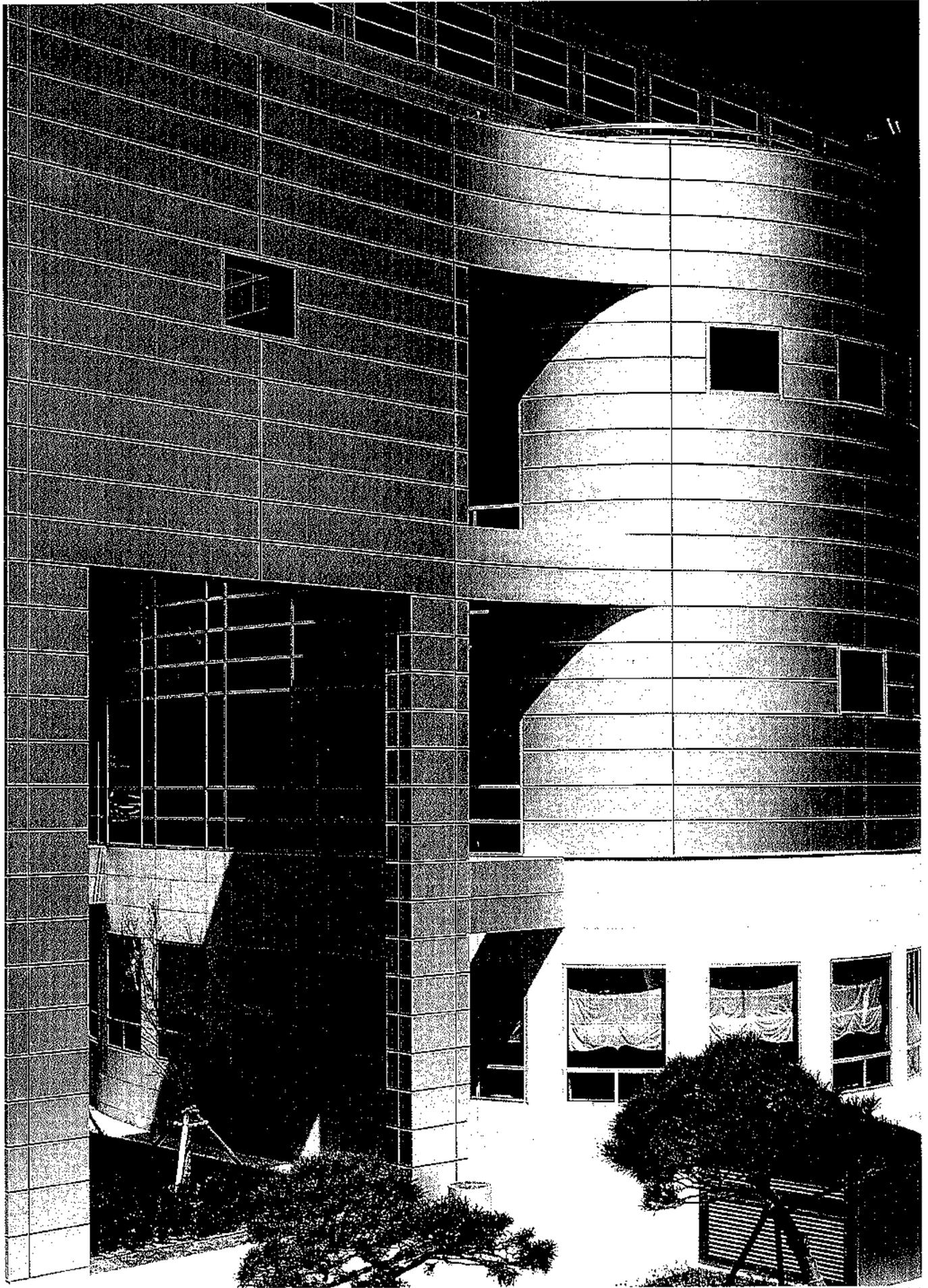
또천



시큰가든 위 브리지보드

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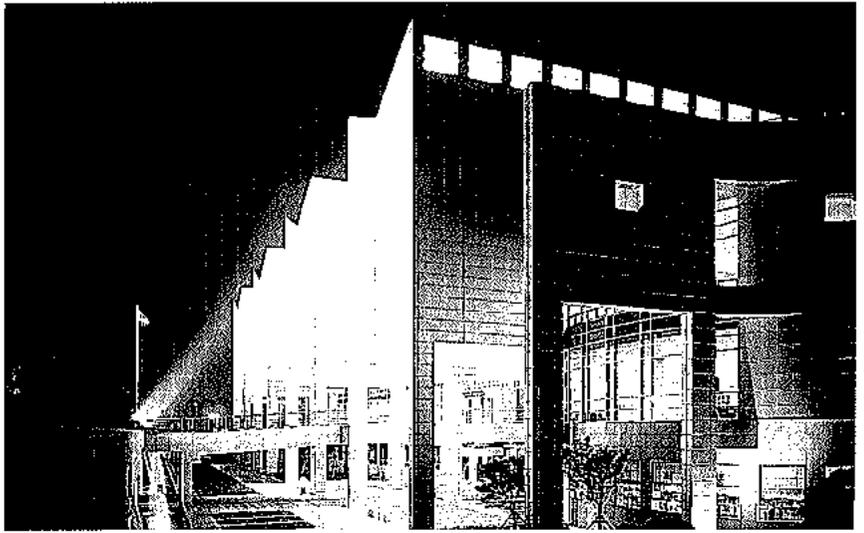
64년



스텝기단쪽의 곡면으로 처리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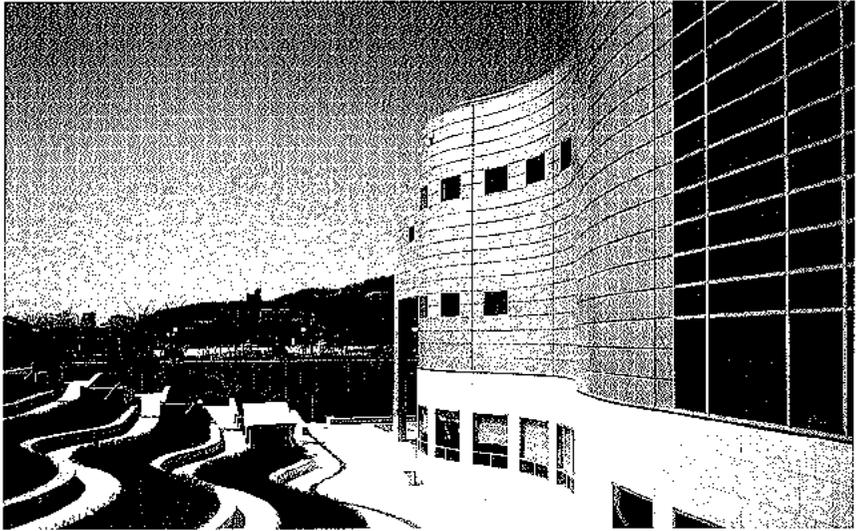
10억

64쪽



남측아경

64쪽



스텝가든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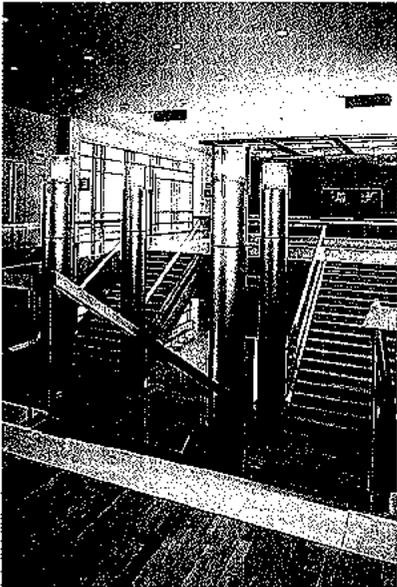
올림픽공원쪽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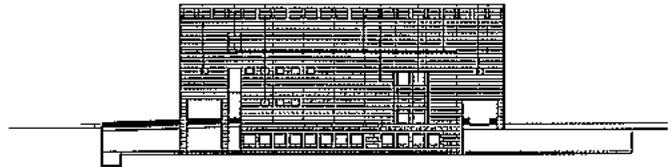
로비

1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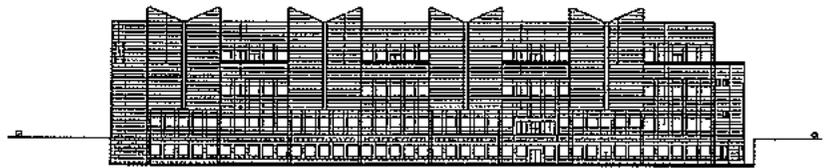
64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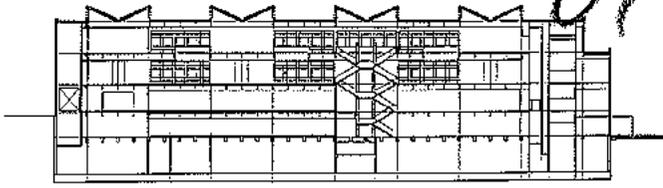
중앙계단



우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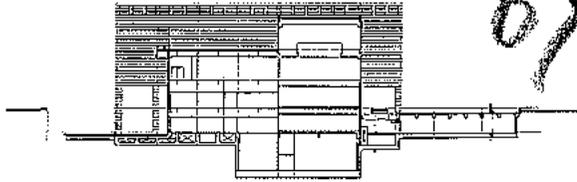


주단면도 1

640m



까페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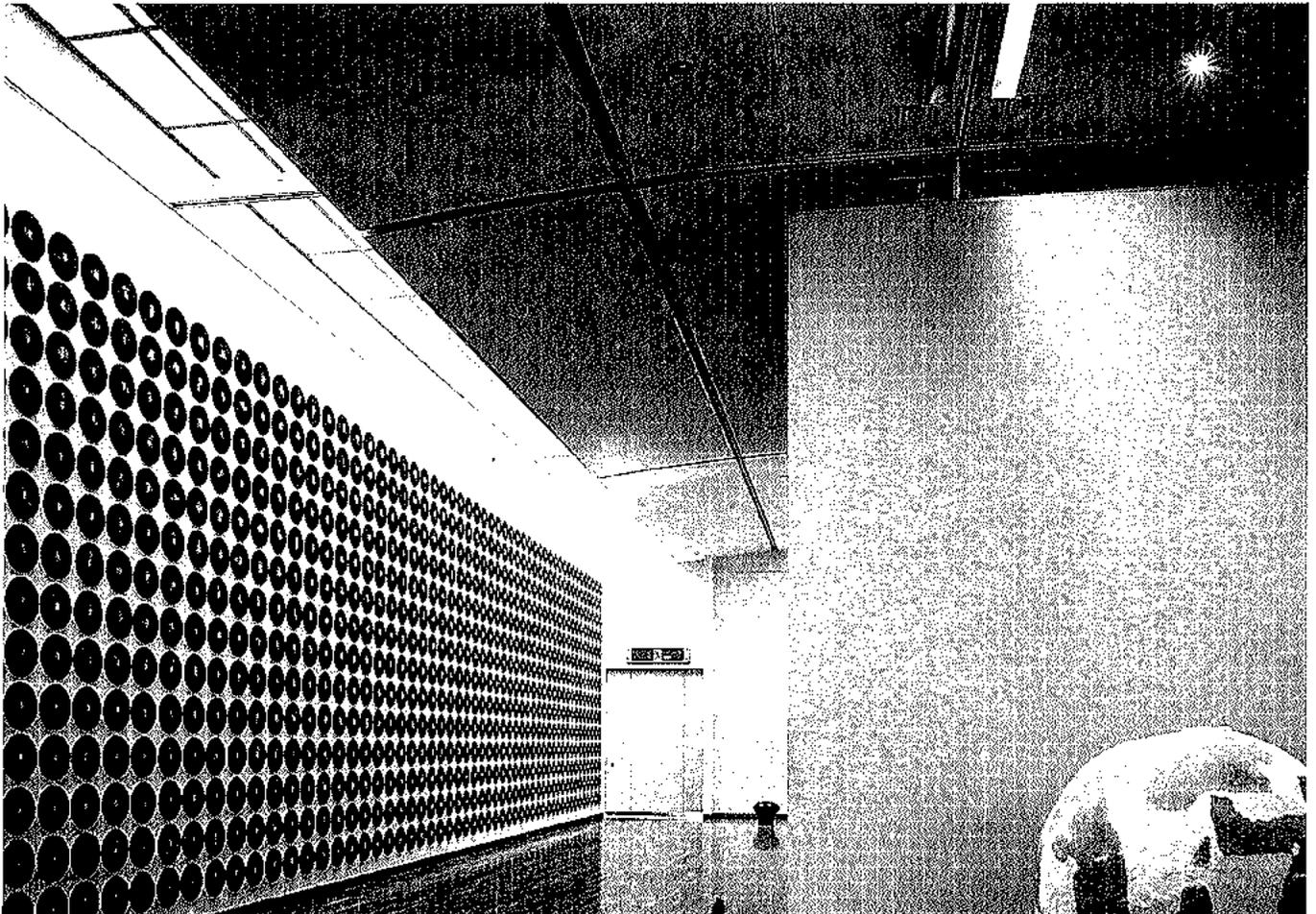


주단면도 2

6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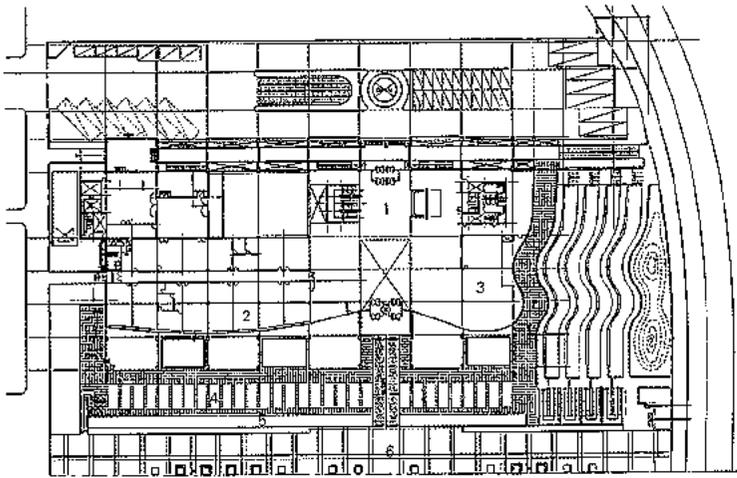


조각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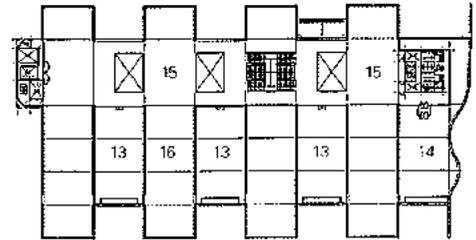


전시실

라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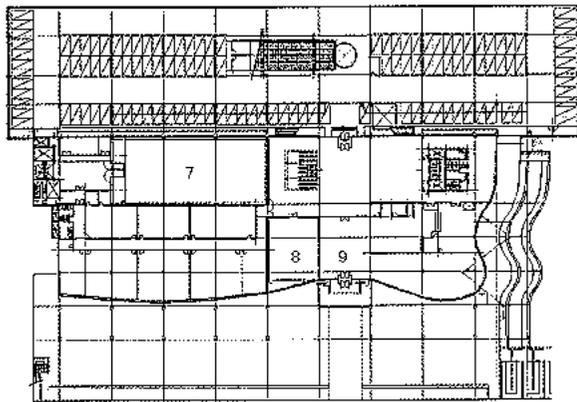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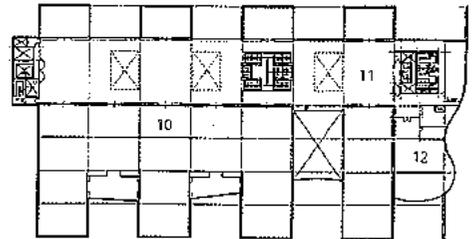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0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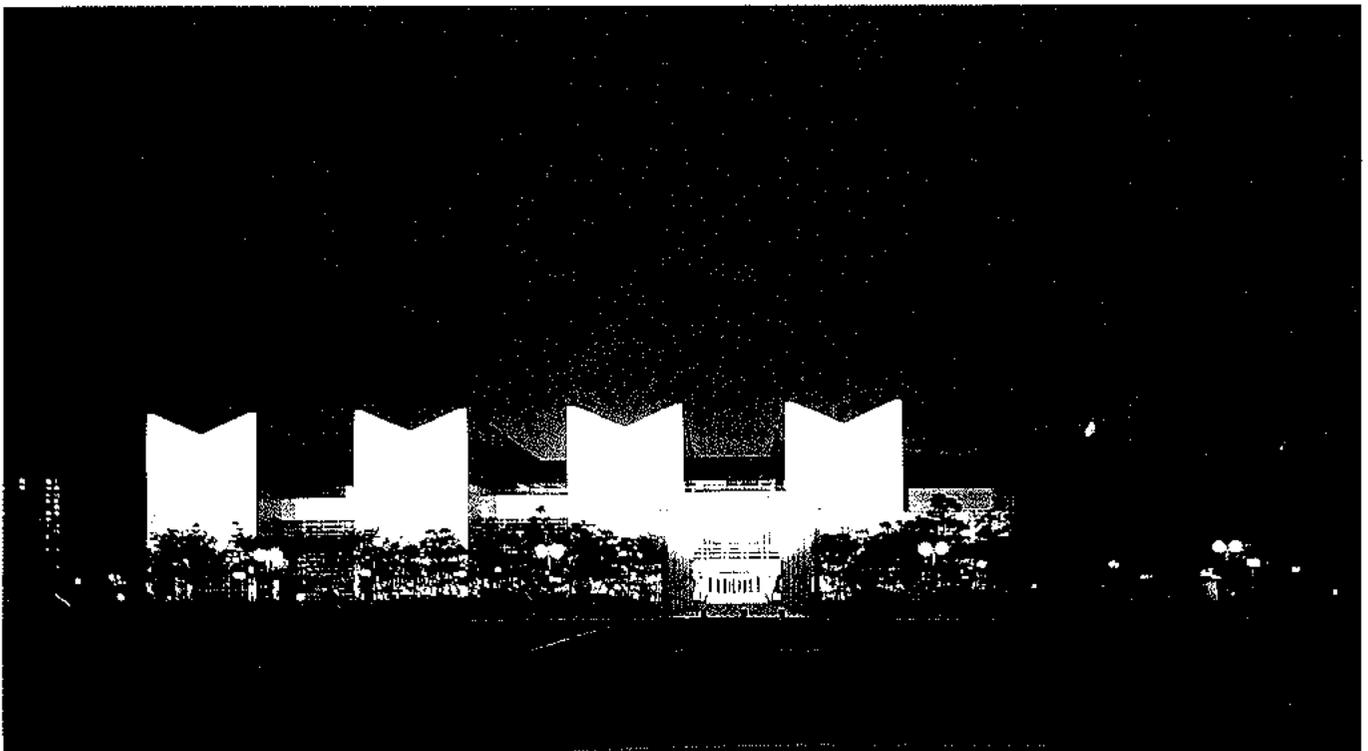
- |             |               |
|-------------|---------------|
| 1. 로비       | 9. 레스토랑       |
| 2. 사무실      | 10. 기약전시실     |
| 3. 다목적실     | 11. 조각전시실     |
| 4. 선관기동     | 12. 도서실       |
| 5. 벽전(인공폭포) | 13. 테라스 조각전시장 |
| 6. 주차입구     | 14. 옥상정원      |
| 7. 수장고      | 15. 화장        |
| 8. 강당       | 16. 상설전시장     |



지하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외경(야경)

32만

단순성과 간결성의 조화

The Balance Between Simplicity and Compactness

건축사/이용흠(일신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대담자/강 혁(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 Yong-Heum & Khang Hyuk  
일시/99. 6. 10. (목) 14:00~  
장소/일신설계



대담장경(왼쪽: 강혁, 오른쪽: 이용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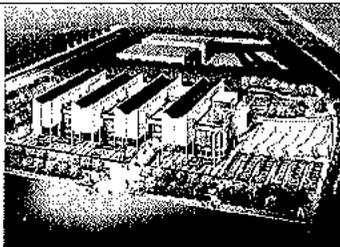
강 혁 부산시립미술관이 98년 봄에 개관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요 기획전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부산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산 미술계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된 셈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93년 전국 설계경기에서 일신설계가 당선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용흠 부산시립미술관은 93년도 당시 전국현상설계를 통하여 당선작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미술관이란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고, 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과 성격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표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찾고 직접 현지로 가서 미술관 사례를 피부로 느끼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많은 미술관에 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개념정리도 완성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항구도시라는 딱딱하고 거친 감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문화시설이 건립되므로 해서 문화의 불모지란 오명을 벗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열의는 높았

고 봅니다. 결국 설계자의 정열과 부산시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술관이 현재 위치에 건립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강 혁 이 프로젝트에 남다른 애착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개념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셨는지, 미술관 건축에 대해 평소에 무슨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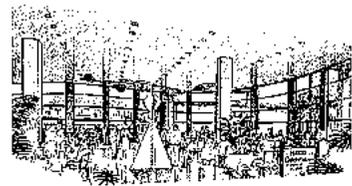
이용흠 저는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설계한 김벨미술관(Kimbell Museum)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재료자체를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작품을 감상하는데 관람객의 시선 집중성을 갖도록 하였다라는 점과 작품에 맞는 공간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 설계구상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팀원들과 문화시설 측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일본을 견학하면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 부지의 입지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상징성 부여와 다이내믹한 디자인 및 지역민에게 친숙한 건물로 오래도록 인식되게 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조감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전시실부분투시도)



부산시립미술관 현상설계안 (카페테리아부분투시도)

64인

64인

64인

강 혁\_\_\_\_\_이 미술관 설계에 발주측의 주된 프로그램이나 요구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대개의 설계경기가 부실한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용흠 \_\_\_\_\_ 조금전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미술관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백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과 연계성, 미술관의 성격 규정, 필요시설 규모에 대해서 사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큐레이터(학예관)를 선정하여 전문가 입장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현상설계 당시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당시부터 이런 부족한 것까지 포용해서 해야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 혁\_\_\_\_\_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미국건축가와 협동설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나가셨는지요?

이용흠\_\_\_\_\_ 미술관과 박물관같은 문화시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복잡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었고, 이 미술관을 진행하는데 개념정리를 현대적 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하는 관계로 서구 현대건축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건축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URBAN Design 을 전공한 미국의 건축가와 주로 초기 개념 스터디 단계에서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FAX로 주고받으면서 유선으로 작가의 의도하는 바를 협의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 혁\_\_\_\_\_현재의 건물은 초기 당선안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까? 또 초기 설계의 주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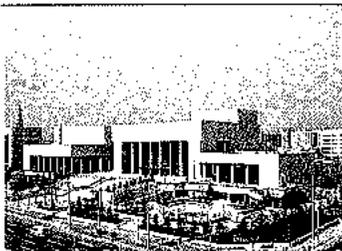
이용흠\_\_\_\_\_ 현상설계 당시 때부터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크게 이미지를 흔들은 점은 없었고,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 당시 기술심의 때 위원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약간의 조정과 주변의 도시계획의 변경(광안대로)으로 전면부 옥외 조경 부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초기안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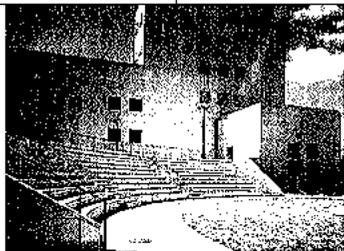
강 혁\_\_\_\_\_ 미술관은 공공 문화시설로서 그 입지조건과 부지의 맥락이 절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손쉬운 접근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여기에 좌우되니까요. 해운대구 수영비행장 옆 올림픽 공원의 한편에 자리잡은 부산시립미술관은 이 점에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함께 지닌 사이트입니다. 또 그 사이 부지 주변의 여건과 도시 환경 상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지 조건을 해석하셨는지, 또 무엇에 주목하셨는지요?

이용흠 \_\_\_\_\_ 계획부지의 주변은 크게 관광 위락중심지인 해운대구역과 수비삼거리 및 정보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이고, 남측에는 서울올림픽 요트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휴식 및 위락공간인 올림픽공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 및 타 지역 관람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타 미술관과 입지 선정상에서 유리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외곽지역으로 벗어나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미술관을 신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립미술관 부지와 같이 쉽게 접근하고 광장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지가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갖게하여 올림픽공원 전체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하고, 부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변화성과 관람객의 동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근기단을 형성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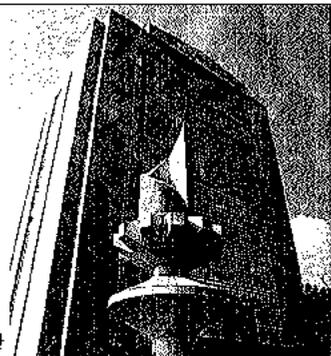
강 혁\_\_\_\_\_ 현재 시설은 올림픽 공원을 전면에 두고 수영보에 수직한 방향으로 강한 선형(Linear)의 일자 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지 및 주변과 관련하여 주요 배치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문화회관



울산문화회관: 야외공연장과 소극장배면



부산상공회의소 회관

64년

64년

64년

이용흠 \_\_\_\_\_ 올림픽공원의 축과 미술관의 배치축을 일치시켜 올림픽공원내 소형의 조각공원을 향해 정면성을 부여하였고, 올림픽공원과의 최대한 연계성을 살리도록 배치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주변 휴식공간인 선긋기든과 스텝기든 등 완충공간을 두어 리듬감을 갖도록 하였고, 주 진입부 및 중앙부, 후면부로의 연계성을 블록화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 동선을 주전시공간으로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여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선상으로 보면 보행자동선과 주차동선을 확실히 분리하였고, 보행자 동선이 2, 3층 전시실로 연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_\_\_\_\_ 바로 곁에 해운대 신시가지와 광안대교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놓이는 등 맥락상의 변화가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배치에 미친 영향은 없었지요? 또 교통체계와 접근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이용흠 \_\_\_\_\_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당시 고가도로가 정보단지부지와 계획부지사이 40m 도로측으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소음차단 및 미관상 주차장 출입구를 우동천 북계 부분으로 계획되었는데, 현장에서 굴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보단지 조성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져 올림픽공원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려면 고가도로가 시선차단과 연계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차원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주차출입구를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었고, 스텝기든도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체계는 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40m 도로에서 한 차선을 확보하여 미술관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가 설치되어 있어 미술관으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혁 \_\_\_\_\_ 과천 국립미술관처럼 공원내의 미술관이란 개념은 동일하지만 그 도시적 입지나 경사도,

접근성 등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공원과 미술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흠 \_\_\_\_\_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정적인 공간이 강한 공원의 위치에 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어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적지의 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이 미술관부지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과는 입지조건이 다르지만 올림픽공원이란 도심속의 소공원을 갖고 있어 지역민들이 관람하기 위해 부지로 진입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첫째로 미술품을 관람하는데 접근성이 좋고, 둘째로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동선의 변화성이 강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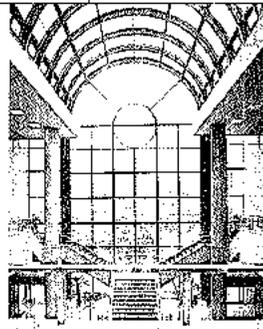
강 혁 \_\_\_\_\_ 이 건물은 부지 전면, 즉 공원내에서 정면을 보기보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며 측면을 볼 때 더욱 인상적인 경관을 연출합니다. 외관은 역삼각형이 반복되는 지붕 라인으로 해서 정체성을 지닌 것 같으나, 속지는 미술관으로서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_\_\_\_\_ 현상설계당시 지역적인 이미지 부각과 지역민이 동참하고 친숙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 부여에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하였고, 현대의 문화시설에 무함될 수 있도록ダイナミック한 형태와 재료의 하이테크(High-Tech)한 특성을 갖도록 한 점이 있고, 외부의 단순성 및 내부공간의 간결성의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방금과 같은 단순하다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은 건축물 그 자체가 작품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이미지 및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보는 이에게 오래도록 인식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시립미술관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김벨미술관에서 그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였고, 간결하고 단순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정구형사

금정구형사: 아트리움



국제신문 사옥



64빌

64빌

64빌

강 혁 \_\_\_\_\_ 미술관 건축을 스스로 예술적 조형물이 되고자 하는 경향과 내부에 예술품을 기능적으로 담는 용기이고자 하는 경향으로 굳이 나눈다면 이 미술관은 후자에 더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전시공간이 충실하게 외적인 건물의 외관, 그것도 추상적인 형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모던한 건축으로 느껴집니다. 소장품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용흠 \_\_\_\_\_ 미술관을 와 보셨겠지만 역삼 각형 네 개의(바다위의 범선상징) 지붕을 형성하여 반복되어 가도록 건축을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내부적으로 반복되는 네 개의 범선자체가 전시실 및 로비로 공간을 형성시켜 관람객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공간의 형성 및 실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부여하기 위해 스테디를 많이 하였고 동선처리도 주 동선기능과 무 동선을 조화있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형태에 대한 비평에 좀 더 실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강 혁 \_\_\_\_\_ 이 건물의 외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후면에 반복되는 벽체의 면과 그 실루엣, 그리고 그것이 지어내는 입체감과 음영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변에 사느라 매일 이 건물을 보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상당히 표정이 바뀝니다. 특히 야경은 조명이 훌륭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색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마감을 하여 불통을 둘러싸는 면들을 이루고 조인트가 조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_\_\_\_\_ 시립미술관을 현대적인 감각을 도입하고, 이미지 부각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한 외장재를 복합알루미늄 패널로 선정했는데 하이테크(High Tech)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부지위치가 바닷가 부근에 위치한 시립미술관의 외장재료가 선택의 폭이 좁았던 면도 있었지만 현대적 미술관을 표현하는데 현재의 재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조인트(T=30mm)를

선택한 것은 외벽에 계획의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조형의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 방식을 처음 하다보니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 혁 \_\_\_\_\_ 평면을 볼 것 같으면 매우 체계적(Systematic)이며 합리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과 동선공간,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관계가 단순 명쾌합니다. 물론 이런 형식은 미술관 건축에서 선호되는 유형의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용흠 \_\_\_\_\_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관람할 때 많은 관람객 사이에 끼어서 떠 밀리다시피 관람을 하고 나오면서 미술관의 전시공간 인지도가 회미해진 적이 있었고, 장시간동안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관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설계시 반영되도록 계획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축을 가지는 형태로서 네 개의 전시실이 동서축을 형성하고, 다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에 의해 통합된 형태로서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전시공간의 융통성을 극대화 하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남북 축을 전시공간의 휴과 휴식공간으로 설치하여 신체적인 피로감을 해소시키므로서 작품관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와 내부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화성을 높였는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강 혁 \_\_\_\_\_ 외관에 비해 내부공간은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섭섭합니다. 설치 미술이라든가 안테리아의 미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비 등 공공공간이 다소 단조롭고 빈 느낌입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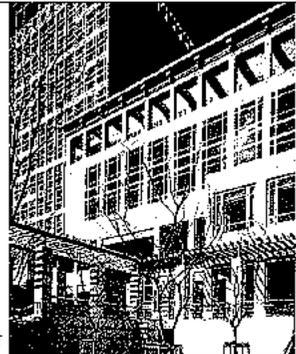
이용흠 \_\_\_\_\_ 미술관처럼 문화시설의 건축



울산 제2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부산광역시 신청사: 시의회 옥외 휴게공간

64억

64억

64억

물은 설계당시 공간의 분할과 성격에 맞는 공간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어떤 작품을 전시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처럼 공간 작품의 조화가 있어야 비로소 건축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보아지며, 조화가 없는 건축물은 가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완공 건축물을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더욱 더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아지며, 내부공간이 단조롭고 빈 느낌을 받는 것이 이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 혁 \_\_\_\_\_ 선큰가든 위로 난 브리지를 거쳐 현관 홀에 이르고 로비를 통해 각 층의 홀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명쾌하고 또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극적인 공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타 미술관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공간의 연출을 추구하기에 상대적으로 받게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의 특징 중 하나가 매스의 볼륨감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또한 선큰가든을 설치하여 지하층에 자연채광을 최대한 유입하고 관람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광장지점에서 1층 로비로 바로 진입하도록 연결브릿지를 놓아 연계시켰는데 여기에서 선큰가든을 바라보면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강 혁 \_\_\_\_\_ 각 층 홀을 연결하는 계단은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계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채로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시선도 다양하게 연결되고요. 그러나 경사가 조금 급하고, 핸드레일아리튼가 설치물 등에서 부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의견을 말해주시지요.

이용흠 \_\_\_\_\_ 미술관 중앙지점에 각 층을 연결하는 주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시설계시 충분한 스터디와 협의에 의해 반영되어 설치되었는데 관람자가 걸어서 올라가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의 부조화에 대해서는 이 미술관의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가미시켰는데 관람자의 시각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강 혁 \_\_\_\_\_ 천장이라든가 곳곳에 문화시설에 걸맞는 고급스런 재료를 썼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내부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경제적 제약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의 내부에는 대부분이 건식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장은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전시실 벽면은 석고보드위 마직천, 그리고 홀은 대리석계통인 트레버틴으로 마감하였으며, 바닥은 전시실과 3층 홀에서는 목재 플로링으로 마감하였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대리석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건과 충분한 재료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의 분위기에 맞는 재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전문가의 발주없이 건축설계인에서 처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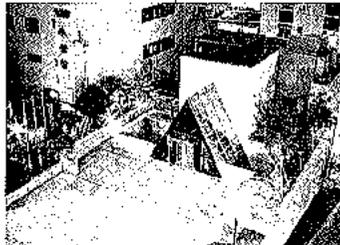
강 혁 \_\_\_\_\_ 여느 미술관과 달리 홀이 매우 밝고 조각을 전시하는 테라스로 통하는 큰 창을 통해 주변 경관이 많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는지요?

이용흠 \_\_\_\_\_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외부의 공간감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도입을 시도하여 관람자의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려 관람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층 조각테라스 홀을 12m 간격으로 두어 직접 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부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당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강 혁 \_\_\_\_\_ 1층 로비와 공공 공간의 바닥



동래초등학교



백산기념관



문신미술관

64만

64만

64만

을 트래버틴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3층 홀 바닥은 마루인데 비해 2층홀은 1층과 같은 트래버틴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마루 바닥인데 더 낫지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어떠신지요?

이용흠 \_\_\_\_\_ 전시실 바닥 및 3층 로비를 관람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목재로 선정하였습니다. 2층로비와 3층로비가 재료 선택에서 다른 점은 2층을 주로 기획전시위주로 전시가 되고 로비는 조각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당시 개념정리를 하여 1층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2층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층(상설전시)은 2층(기획전시)과 달리 작품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람자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 선정부터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3층전실에 하나의 전시실을 설치미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재료 자체를 달리하여 작품성격에 맞도록 고려했습니다.

강 혁 \_\_\_\_\_ 전시공간은 미술관의 핵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 형식이 있습니다만, 이 미술관에서는 동일한 모듈의 전시공간의 반복과 조합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흠 \_\_\_\_\_ 이 미술관은 전시성격별 특성 있는 공간구성 및 최대한의 전시벽면 확보에 공간구성을 계획하였고, 공간구성별로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층에는 대공간 및 소공간의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전시방법 확보, 전시공간의 분할, 통합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3층 전시실은 12m 폭으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상설전시공간 확보와 옥외 테라스를 이용한 조각전시공간 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면부 야외조각공원과 옥외 테라스조각 홀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과 수장 계획은 화물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하역계획 차원에서 대형화물은 1층 수장고에 위치하고, 중소형화물은 지하1층 수장고에 들 수 있도록 하여 반입과 수장에 편리하도록 하층부에 위치하였습니다.

강 혁 \_\_\_\_\_ 제가 보기에 단위 전시공간의 크기가 미술품을 담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설치미술도 별 어려움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정방형 모듈의 반복이다 보니 다소 공간의 분할에서 융통성이 떨어진다 지적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은 대형 전시공간이 하나쯤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할지도 자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용흠 \_\_\_\_\_ 계획당시 전시실 모듈은 폭 12m 간격으로 반복시켜 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편 타당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계획하다보니 변화성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또한 충고를 그 당시 수영비행장 고도제한이 있는 관계로 2층에는 6.0m, 3층에는 6.6m로 계획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대형 전시 작품을 전시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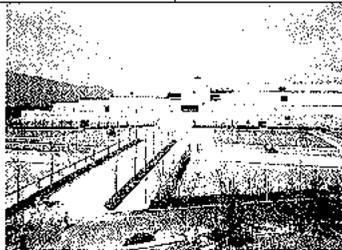
강 혁 \_\_\_\_\_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3층 전시공간이 자봉의 요철형태를 내부에서 반복하면서 자연광이 스며드는 천장이기를 기대했는데, 다소 미묘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천장 면에 여러 설비들이 노출되어 전시공간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용흠 \_\_\_\_\_ 3층 상설전시실 상부에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전시벽면에 빛이 확산하여 맑도록 처리한 과정에서 입체감이 조금 상쇄되어 미묘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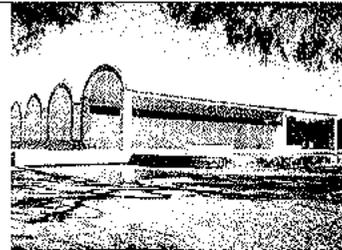
강 혁 \_\_\_\_\_ 이 미술관에서 특이한 것은 비교적 큰 선크가든이 도입되고 지하 1층에 많은 시설과 기능이 들어간 점, 그리고 그것이 이면의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욕심같아서선 선크가든 앞에 훨씬 넓은 외부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은 밝고 진입이 편리하여 호감이 갑니다만, 공공 교통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



동명정보대학교 본관



광전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김인석)



경주박물관(루이스칸)

64년

64년

64년

재, 마치 주진입부처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평지에 큰 선큰  
가든이 도입된 이유와 외부 공간 조성의 요점, 주차장 등에 대  
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흠 \_\_\_\_\_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  
지자체가 평지이기 때문에 변화성을 적극도입하여 하부층의  
자연채광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선큰가든을 현재레벨에서  
5.4m 아래에 있게 하고 수정 공간을 도입하여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차원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조경공간 면적보  
다 약 2,000평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야외조각공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와의 연계가 좋  
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지하1층 선큰가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어 주차장의 질적인 면에서 미술관의  
품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강 혁 \_\_\_\_\_부산시립미술관이 다 지어지  
고 나서 사용되는 현재,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쉽  
거나 미진한 부분이나 측면을 열거하신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이용흠 \_\_\_\_\_별도 전문가의 인테리어 설계,  
가구설계, 기타 개관까지 필요한 설계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  
과, 사전에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전문성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  
다는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 혁 \_\_\_\_\_미술관을 담는 공원의 활용과  
주변에 들어설 시설들, 예를 들자면 길 건너의 컨벤션센터와  
수영만의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하철 2호선의 완공 등을 고려  
해 볼 때,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시적 맥락에서 장래  
부산미술관의 미래상을 한 번 가능해 보시죠.

이용흠 \_\_\_\_\_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컨벤션  
센터를 비롯하여 정보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에 올

림픽공원과 미술관을 연계하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릴예정이고, 지하  
철 2호선이 완공될 시점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될 경우 미술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에 대한 의욕과 건강이 계속된다면 현 시대의 건축가들의  
과제인 현대건축과 한국 전통의 접목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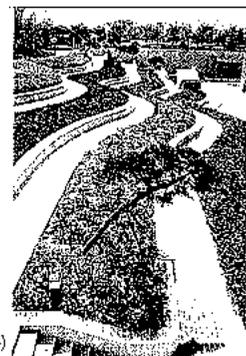
강 혁 \_\_\_\_\_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서측야경)



부산시립미술관(식당에서 본 스텝가든)



부산시립미술관(스텝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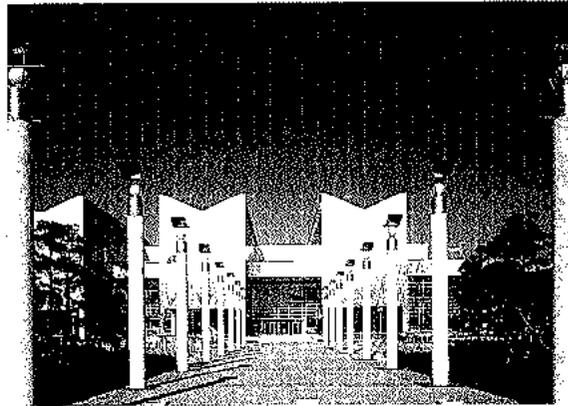
64a 64b 64c

## 장소와 시대 그리고 테크놀로지

## Place, Era and Technology

우신구/ 인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Woo Shin-Koo



부산시립미술관의 외적 형태는 인상적이다. 은회색의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현대적 감수성에 호소한다. 이 건물의 외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고축창을 만들기 위해 톱날형태가 된 지붕일 것이다. 물론 이 지붕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받아들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현상설계용 설명에도 부합하지만 그런 실용적인 기능보다도 삼각형의 반복을 이루는 형태의 근거로서 더욱 중요하다.

두 개의 삼각형은 하나하나의 전시실 단위와 결합되어 역박공의 단면을 가진 단위 매스를 형성한다. 역박공형 단위 매스의 반복은 미술관 본체와 직교하면서 미술관 외관

What primarily strikes the mind is its impressive form of the exterior: The silver aluminum panels of its surface correspond to the ultra-modern taste, while the roof displays a dynamic shape of a sawtooth. It enables the invitation of sunlight into the galleries, thus promote the energy-efficiency of the building, but the emphasis of its purpose is not on this functional aspect but on its justification of the finalized form - a repetition of triangles.

Two of these shapes, combined with a unit of the gallery, create a section with overturned triangular roof, whose multiplicative layout runs perpendicular to the main body of the museum and determines the frame of the overall exterior. Walls, naturally devoid of windows since they form the envelope of the galleries, surround these units. Openings, on the other hand, are only made in the sides of the sawtoothed roof.

This shape of the upper cover, the repetition of unit volumes, walls without windows, and finishings with metallic material synthesized - in other words, view of the exterior as a whole, arguably suggests an image of a factory, or a gigantic machine. They allude to the functional precision of a factory building, the efficient placing of its components, and the objectivity of metallic substances. Thus, we can conclude that the formal features of this building were derived from

의 큰 틀을 이루는 것이다. 전시실이기에 당연히 창이 배제된 벽면이 그 단위를 에워싸고 있다. 창은 상부의 톱날지붕 측면에만 설치되었다.

톱날형태의 지붕, 단위 매스의 반복, 무창의 벽면, 금속성의 마감, 이런 외관상의 형태적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공장 혹은 기계를 떠올리게 한다. 공장건물의 가능성과 부품조립의 효율성, 금속재료의 즉물성 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물의 강렬한 형태와 마감은 기계미학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비롯된 기계미학의 연상을

machine aesthetics.

This comprehension is further supported by the condition of the site. It is where the naval port of Haewoonpo was located, which was replaced, after the early modernization period, with an airport facility, whose trace is still visible in the large unoccupied space across from the Museum. Just as the battleships of the port were in that era, the shiny silver airplanes were then products of state-of-the-art technology. They were the very symbol of advanced science in the mechanical age.

It is also the site of Pusan Information Industry District, one of the city's most ambitious projects for the future. To summarize it diachronically, the region first started out as a naval port for constructing and repairing battleships, and then transformed into an airport, an embodiment of mechanical civilization, and now, looking forward to go through yet another major reconstruction as a site for the research and industrialization of telecommunicational technologies.

Why it is capable of providing a space for such diverse functions is that, compared to the other regions of Pusan which is sloped along what is in-between large mountains, this place, loc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Suyoung River, is largely a plain ground, whose total area has been increased with the reclamation works.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미술관 부지가 가진 장소성이다. 이곳은 과거에 '해운포'라고 불리웠던 넓은 포구로서, 수영이란 말은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즉 좌수영에서 비롯되었다. 근대화 이후에는 이곳에 비행장이 들어섰다. 미술관 측면 맞은 편의 넓은 부지에는 아직도 비행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근대화 이전의 좌수영이 통솔하였던 전함들이 그려졌듯이, 은백색의 비행기들은 동시대의 최첨단 기술이었다. 그것은 기계시대의 가장 정교하고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또한 부산시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가 들어설 부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일대는 과거에는 전함을 건조하고 유지했던 군항에서, 기계문명의 총아였던 비행장으로 바뀌었다가 앞으로는 정보통신문명의 첨단지역으로 변화될 지역인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이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까닭은 산과 산 사이의 좁은 틈과 경사지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산지역과 달리, 수영강 하구를 따라 모래밭으로 이루어진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매립공사를 통해 그 평지는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들이 과거부터 선박, 비행기, 정보와 같은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잇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장소는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공공시설에 적합한 장소로서 과거부터 인식되었던 것이다(이 주변에는 시립미술관 외에도 요트경기장, 올림픽공원이 있고 컨벤션 센터, 월드컵경기장 등이 계획 또는 건설되고 있다).

이 미술관의 2층 홀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한 점 전시되어 있다. 기계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 룬마차이다. 말을 조정해서 마차를 끄는 것은 여러 대의 모니터로 조합된 비디오 마부이다. 마부 뒤의 마차 좌석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타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소통·운송(Communication Transporta)'이다. 미술관 큐레이터의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요하게도 이 제목은 바로 미술관이 건립된 부지의 장소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영비행장을 이착륙했던 국제여객기들을 타고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 장소는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였을 것이다. 대형 비행기의 반짝이던 금속재 표면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미술관의 금속성 외부 마감재료는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계자인 이용흥씨 역시 이 건물의 형태를 범선과 연결지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미술관은 마치 거대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연상시키면서 부지의 장소성에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술관 내부의 공간구성은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다. 관람동선의 핵심은 넓은 중앙홀과 중앙계단이다. 중앙

The reason so much technological fields of ships, planes, and telecommunications we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can also be found in its mediating position between the stream and the sea. It has long been acknowledged as an ideal site for a technology-oriented public facility. It continues to act this role with its upcoming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center, as well as yachting stadium, Olympic Park, and grand stadium for the World Cup games.

In the second floor of the Museum is placed a video artwork of Nam-june Paik - a wagon propelled by a horse made of mechanical parts. What controls the horses is a groom composed of multiple monitors, and a lady dressed in traditional clothes sits inside the wagon.

The work is titled Communication Transporta.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urator of the Museum had the fact in mind, but this title curiously corresponds to the character of the facility's site.

Those who are accustomed to the sight of international airliners arriving and departing from the Suyoung Airport will be familiar with the metallic surface of the Museum, for it is very suggestive of the mechanical bodies of the airplanes. Architect Lee Yong-heum also mentions the shape of an ocean liner as the Museum's prime source of form. It seems that the Museum's

intentional analogy to grand ships is an answer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site which was anything but characterless.

The composition of the Museum's indoor spaces is simple but rational. The focal point of the visitor's circulation is the spacious center hall and the main stairway. The former is extended along the length of the exhibition floor where the galler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opposite ends. With this crisp planning, one need not worry about getting lost and losing one's sense of direction amongst the interlocking spaces. What connects the halls of each stories is the main stairway that sits in their middle, that, while the galleries are united by the main hall, vertically integrates the various halls.

Between the galleries are large windows open to the outside view which provide the visitors with an alternative sight from the artworks.

The main finishing materials of the interior, minus those accessories from the stairs connecting the first-floor lobby and the galleries, are paint or hemp cloth over gypsum board, travertine marble, and wood. With warm color and texture, they succeed in providing a sense of uniformity in the indoor spaces.

But with all these merits, one thing that cannot be fully accepted is the strange absence of technology, which had such a

홀이 전시층의 가운데에 길게 이어지며 각 전시실은 이 홀의 양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성가신 부대낌이나 위치감의 상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각 층의 홀을 연결하는 것은 홀 가운데 자리잡은 중앙계단이다. 전시실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 홀이며, 각 층의 홀들을 통합하는 것은 중앙계단이며서 움직임이 명료하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의 넓은 유리창을 통해 외부의 경관이 홀 내부로 이어져 작품의 연속적 감상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든다.

1층로비와 전시층들을 연결하는 계단의 일부 약세사리들을 제외한 내부 마감 즉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혹은 마직천, 트레이턴 대리석, 목재 플로링 등은 따뜻한 질감과 색감으로 거대한 내부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외부의 형태와 마감의 구성에서 그토록 중요한 주제를 형성했던 테크놀로지는 내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흔적은 계단을 지지하는 기둥의 마감과 상단에 붙여놓은 금속제의 장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오히려 내부 마감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자. 미술관 건물과 그 속에 전시된 미술작품 사이에서 평행적인 관계를

상정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두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고 또한 거기에 사용된 형태나 모티프 혹은 주제가 유사하다면 분명히 그 두 작품에는 공통적인 시대의 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백남준은 전자부속품으로 만든 말이 끄는 이론마차에 모니터들을 조합해서 만든 마부가 한복을 입은 여자를 태우고 가는 비디오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이 마차를 끄는 것은 기계말과 비디오마부이며 그에 끌려가는 것은 전통적인 이론마차와 한복을 입은 규수이다.

너무 단순한 해석일런지는 모르지만 백남준의 작품은 지금 현재의 문명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가 마차와 전통의복을 입은 사람과 결합된 그 묘한 이중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는 말과 마부, 그리고 마차를 탄 사람이라는 과거의 풍경이다. 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는 전자 테크놀로지이다. 형태는 과거의 것이되 그 내용을 비디오 테크놀로지로 치환함으로써 현대의 영상 및 미디어 문화, 그것이 초래한 미술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과 수용방식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테크놀로지는 주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술관과 백남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백남준의 설치미술이 과거의 외부와 테크놀로지라는 내부를 가졌다면, 부산시립미술관은 테크놀로지라는 외

meaningful role in the decision of the exterior form, in its application in the inside. Merely glimpses can be found in the metallic ornaments of the columns that support the stairways. It has become the disparate minor element within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Another look at the work of Paik. It may be a futile attempt to form a corresponding relation between the Museum building and the works it exhibits. But since these two "works" were produced in a similar period with a shared form and motif, we can derive a common zeitgeist or issue from them.

Paik's work, as mentioned above, displays a horse made from various mechanical elements that is connected to a wagon run by a horseboy, or a set of monitors, and occupied by a traditionally-dressed woman. In other words, those who lead are the mechanical horse and the electronic groom, and what are led are a wagon and a young lady, both in traditional styles.

Risking the criticism for a over-simplified interpretation,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theme of the work is in the uneasy schism between the two different, or contradicting, values of technology and tradition. What is presented as a whole is an age old view of a horse and groom, a wagon and a passenger. But what comprise its inner core is the electronic science - which ends up as a

work whose form is that of history but with a transplanted content of modern technology. It delivers a message on the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and its reception of art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media culture.

With its shared theme of technology, the Museum and Paik's work actually stand in opposition to each other in their attitude towards it. While the video artwork has an aged body with high-tech content, the building is covered with the technological surface and has a traditional interior.

The recent exhibitions of the City Museum are largely occupied with installation works, which, as well known, started out as an alternative form of art that seeks to transcend the limits of traditional paintings and sculptures. They were successful in their attempt to break the flatness of the old mediums, and the incorporation of interior space into their works. They are concerned with the abolishment of traditional categorizations, passionate to invade even into the realm of architecture.

The ultimate effect of this trend is on the old concept of appreciating artwork, which was based on the established distance between the viewer and the work. It is not a mere accident that the natural lights invited into the galleries through toplights often get

부와 전통적인 내부를 가지고 있다.

시립미술관이 기획전시하는 최근의 작품들 중에는 설치미술들이 많다. 알다시피 그 설치미술은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타난 것들이다.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이 가졌던 평면성과 내부공간의 부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성을 담으려고 하는 작품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설치미술은 회화, 조각의 전통적인 범주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건축의 고유영역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같은 일정한 거리를 둔 관람자와 대상이라는 전통적 미술감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고측창을 통해 어렵사리 유입된 자연광이 설치미술의 전시시 종종 가려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미술의 국면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온 배경에는 항상 과학기술의 자극이 있었다. 원근법, 사진, 기계, 현대 물리학, 전자공학, 컴퓨터 등은 미술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건축 역시 과학기술과의 교차지점에서 많은 변화의 계기를 발견해온 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의 작동 원리를 혹은 그 형태의 새로움을, 또 때로는 그 빠른 움직임과 이동을 건축은 동경해 왔다. 종종 건축은 스스로 기계가 되고

자 했다.

하지만 건축에서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내부 설비의 기계화·자동화로 해석한다면 건축의 예술적 함의를 부정하는 일일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건축에서의 테크놀로지를 모던한 외관에 한정하는 것은 시대적 주제를 일차방정식으로 풀은 결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컴퓨터와 비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한 현대의 일부 미술작품들은, 아직 그 영향은 미미하지만, 미술관-갤러리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한다. 현대미술은 전통적인 미술관이라는 시설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운송-소통을 포함한 테크놀로지라는 장소적·시대적 주제를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표현의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현대와 미래의 미술작품들과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현대의 미술관은 어떠한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선행되어야 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가능성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시립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건축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시대적 주제에 대한 사유와 그 건축적 전개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수영만이라는 장소에서 건축가가 먼저 하이테크라는 주제를 던진 부산시립미술관이 현대건축으로서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blocked in these exhibitions.

What has motivated the change of aspects and styles in the world of art has always been f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vention of perspective representation methods, photography, machines, and the developments in modern physics, electronic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have affected not only the form but the content of art.

Architecture also has developed through its crossings with the modern technolog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chitects longed for the mechanisms or forms of the machines, sometimes fascinated with and seeking to embody their rapid movements. Architecture, in various ways, sought to be the machine.

But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of mechanical culture to architecture in terms of literally introducing machinery and automatization into installations of the buildings is to ignore the medium's artistic connotations. In the same respect, it would also be a rather naive solution to incorporate technology merely on its outer skin.

Some contemporary artworks using computers and video technology are gradually defying th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ystem of art museums and galleries. Though their

influences are yet to trigger major reconsideration on the traditional organiz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are raising ground-breaking questions on the essence of them.

Though technology including those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taken as a temporal, spatial theme for the City Museum, the real concern should have been made in the establishment of Museum itself, its presentation of works and its stance towards the viewers, when, in the information-based era, more and more works of art are accepting high-tech as both their theme and form.

The functional efficiency of the Museum is not an issue here. While some shortcomings can be explained by its limitations as a public project executed by the City, this status itself should have catalyzed more considerations on certain interpretations of the age and its responding architectural strategies. In this project placed on a heavily coded site, the architect suggested "contemporary" technology as its primal theme, but the finished work seems to be lacking in what makes an architecture "contemporary" after all.

# 영통도서관

Library in Youngtong District, su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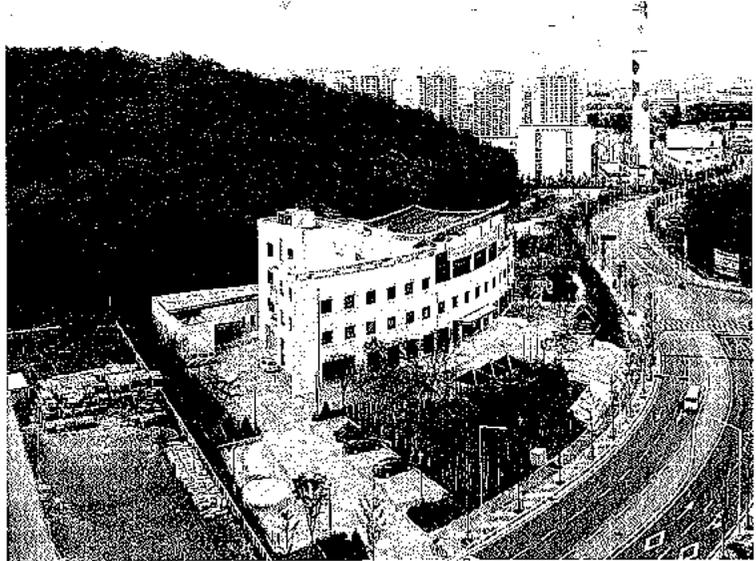
김상길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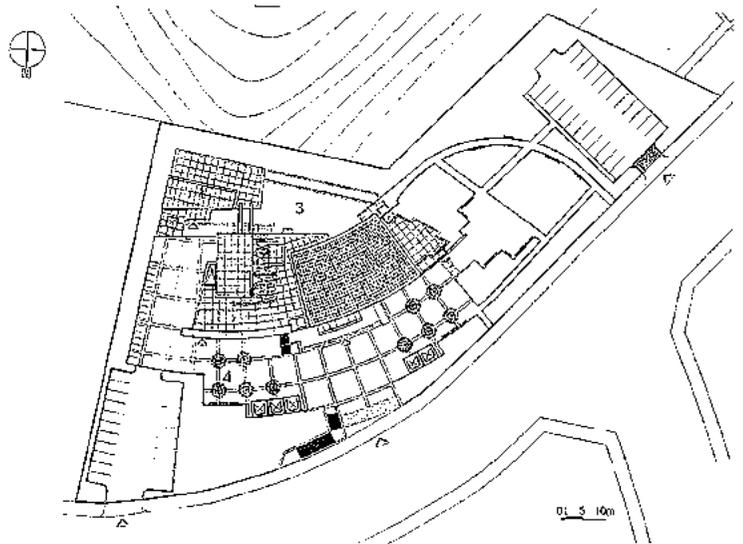
64단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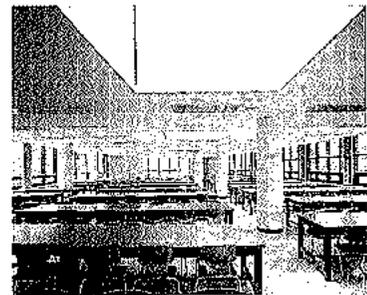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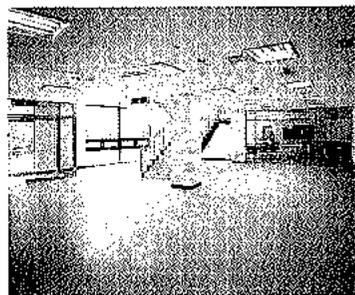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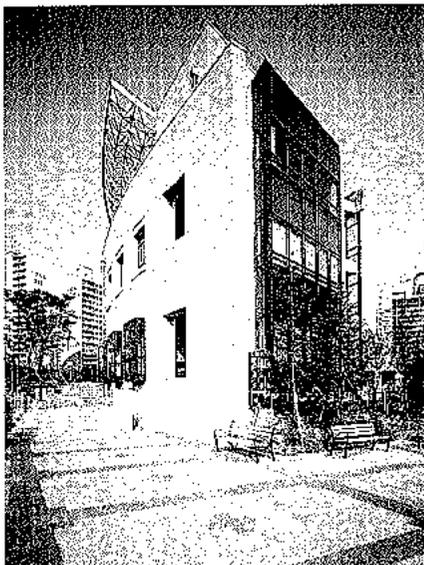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 근린공원 4호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인접도로	전면도로 25m
대지면적	7,318.00㎡
건축면적	1,236.71㎡
연면적	4,136.51㎡
지상총연면적	3,066.53㎡
건폐율	16.90%
용적률	41.90%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810석
주차대수	지상 50대
설계담당	차동학, 안기현, 김형국, 이광기, 지용운



- |         |            |
|---------|------------|
| 1. 부속동  | 8. 서고      |
| 2. 본관동  | 9. 열람실     |
| 3. 선관가운 | 10. 참고자료실  |
| 4. 휴식광장 | 11. 어학실    |
| 5. 세미나실 | 12. 컴퓨터자료실 |
| 6. 시청각실 | 13. 연속간행물실 |
| 7. 스텝   | 14. 복극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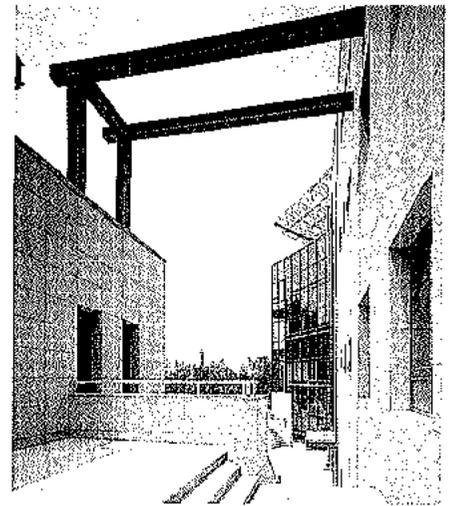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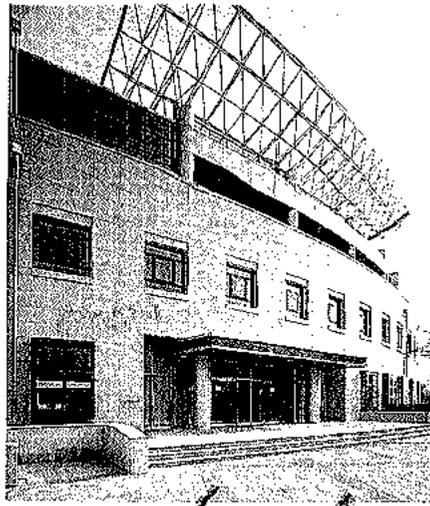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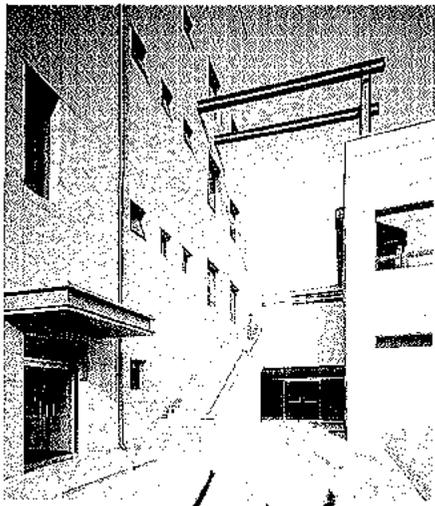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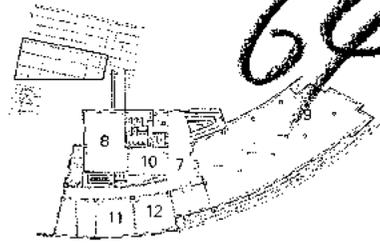
64단

64단

64단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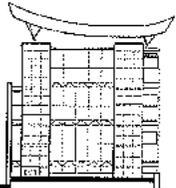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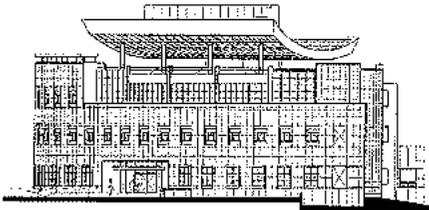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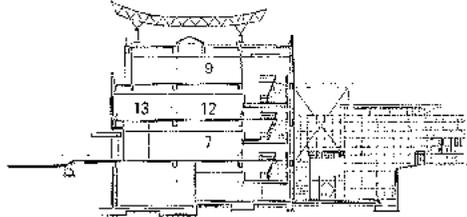
0 1 5 10m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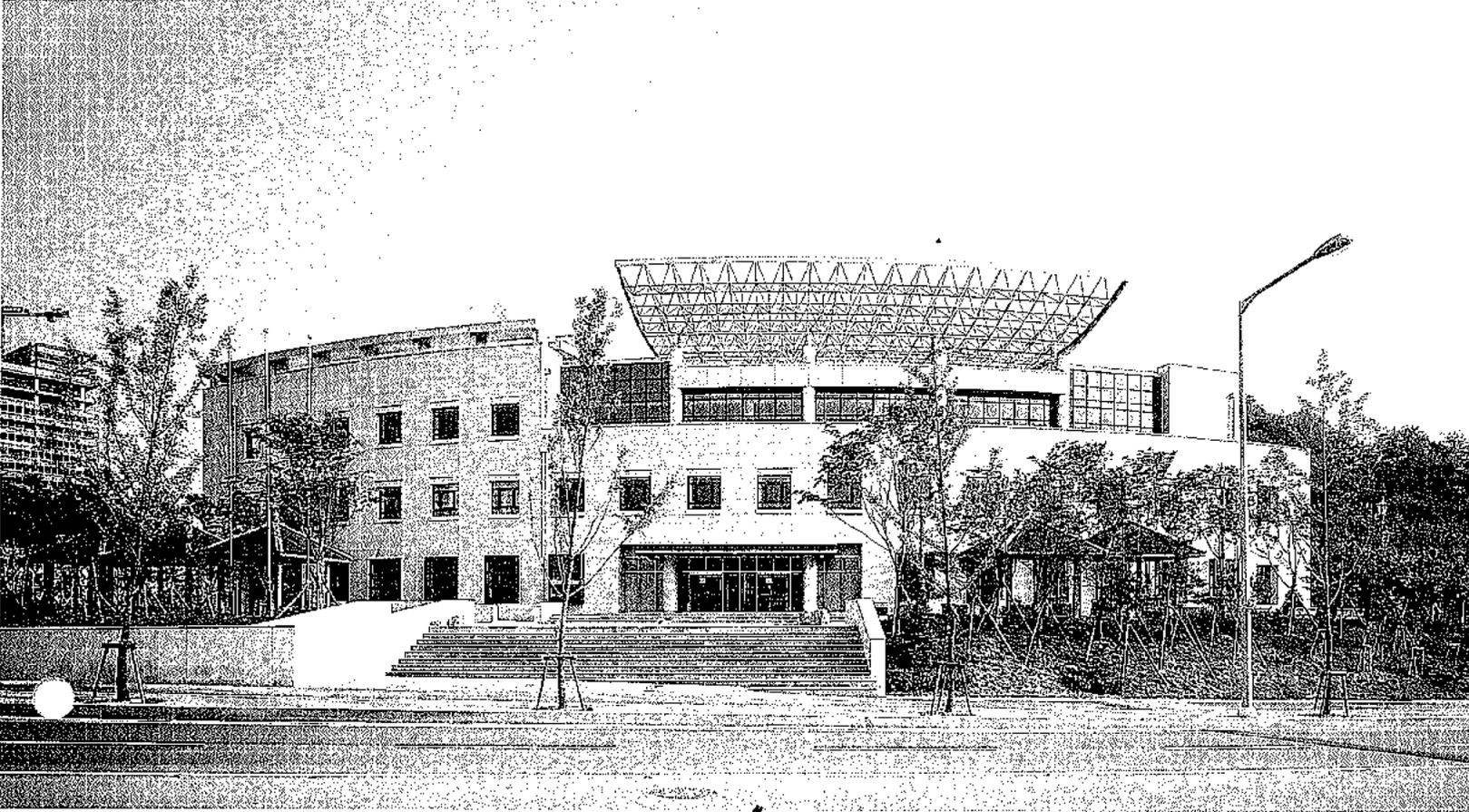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우측면도



주단면도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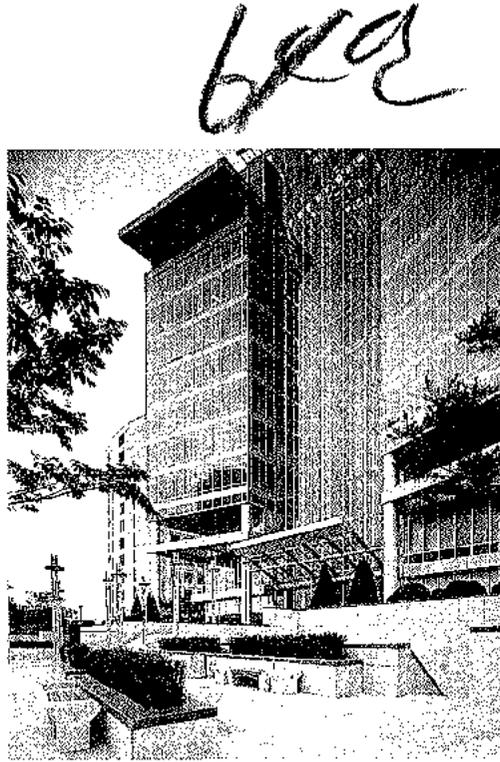
# 종합무역투자정보연구센터

##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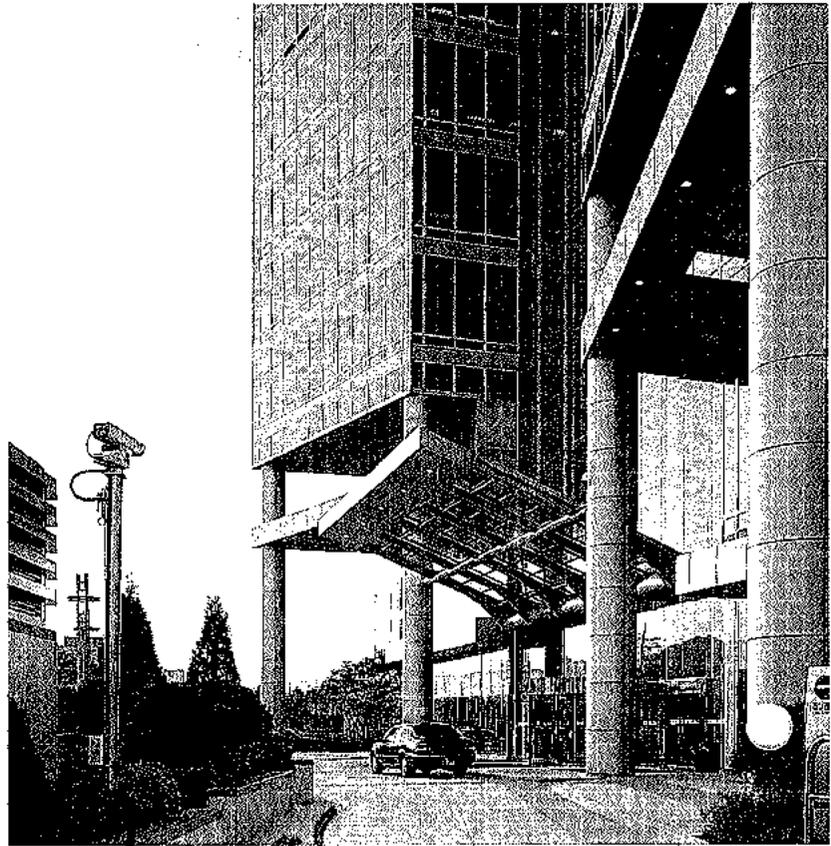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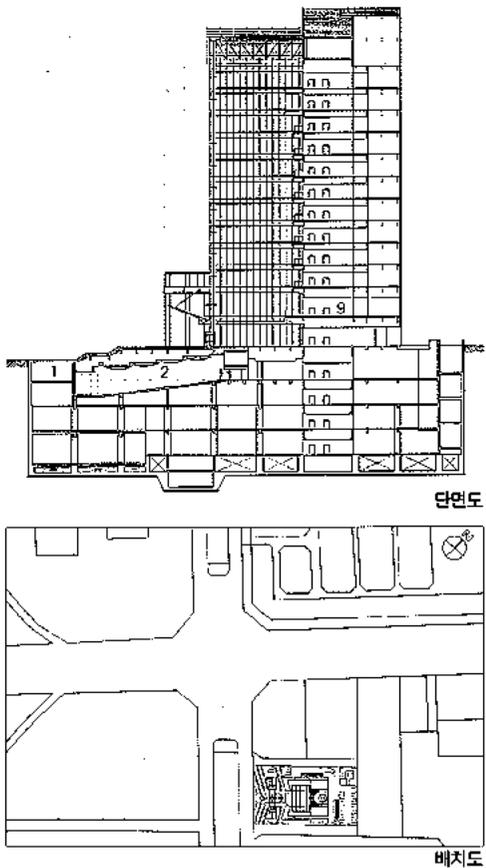
안길원 / (주)우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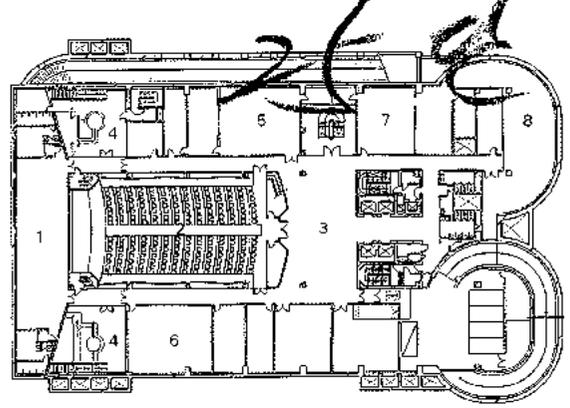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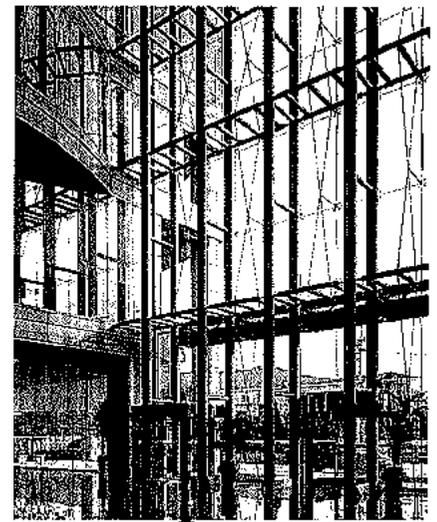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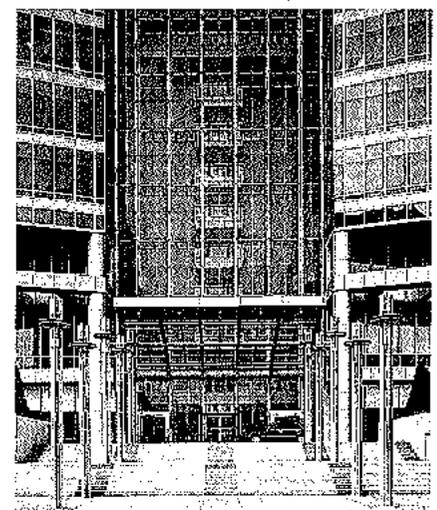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번지, 302-4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4종미관리지구  
주요용도 연구소  
대지면적 5,721.20㎡  
건축면적 1,716.60㎡  
연면적 26,492.90㎡  
조경면적 1,028.90㎡  
건폐율 30%                      용적률 255.40%  
규모 지하4층, 지상1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화강석, 케펫타일, 벽-화강석 투명, 강화유리, 천장-알루미늄공판, 암면텍스  
바닥-화강석, 벽-알루미늄, 커튼월, SPG, 천장-알루미늄 천정재  
설계담당 최창섭  
사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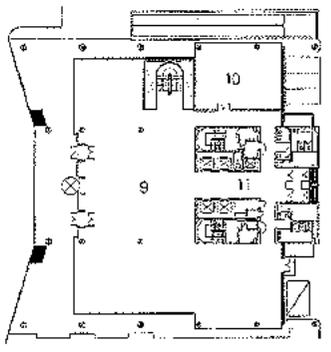
1. 열스크림
2. 국제회의장
3. 현
4. 선관기
5. 세미나실
6. 중앙영체실
7. 스튜디오
8. 공조실
9. 코비
10. 음향
11. 엘리베이터 중
12.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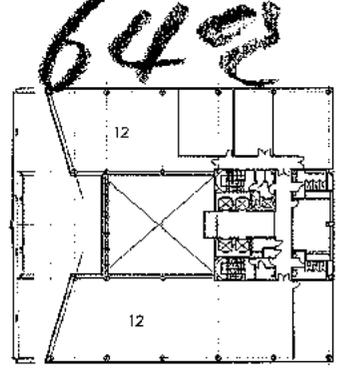
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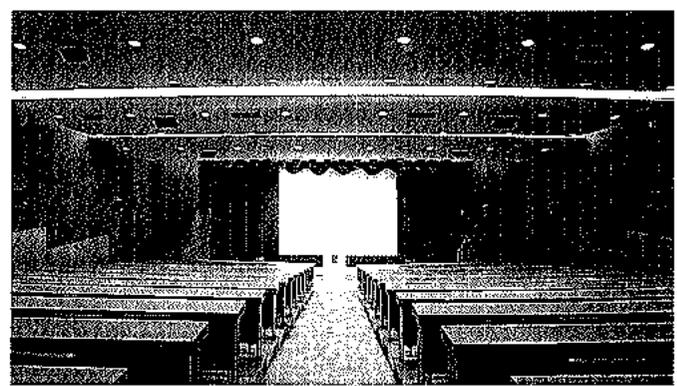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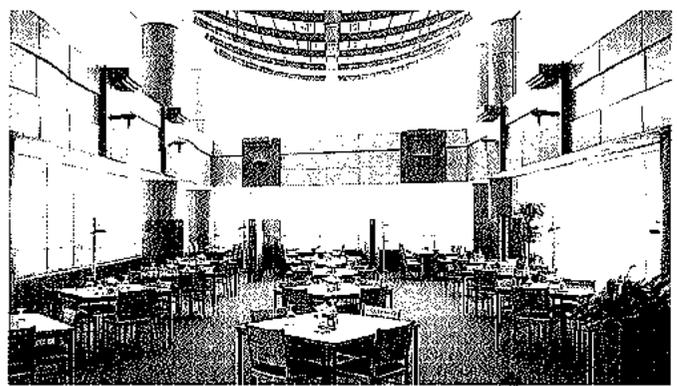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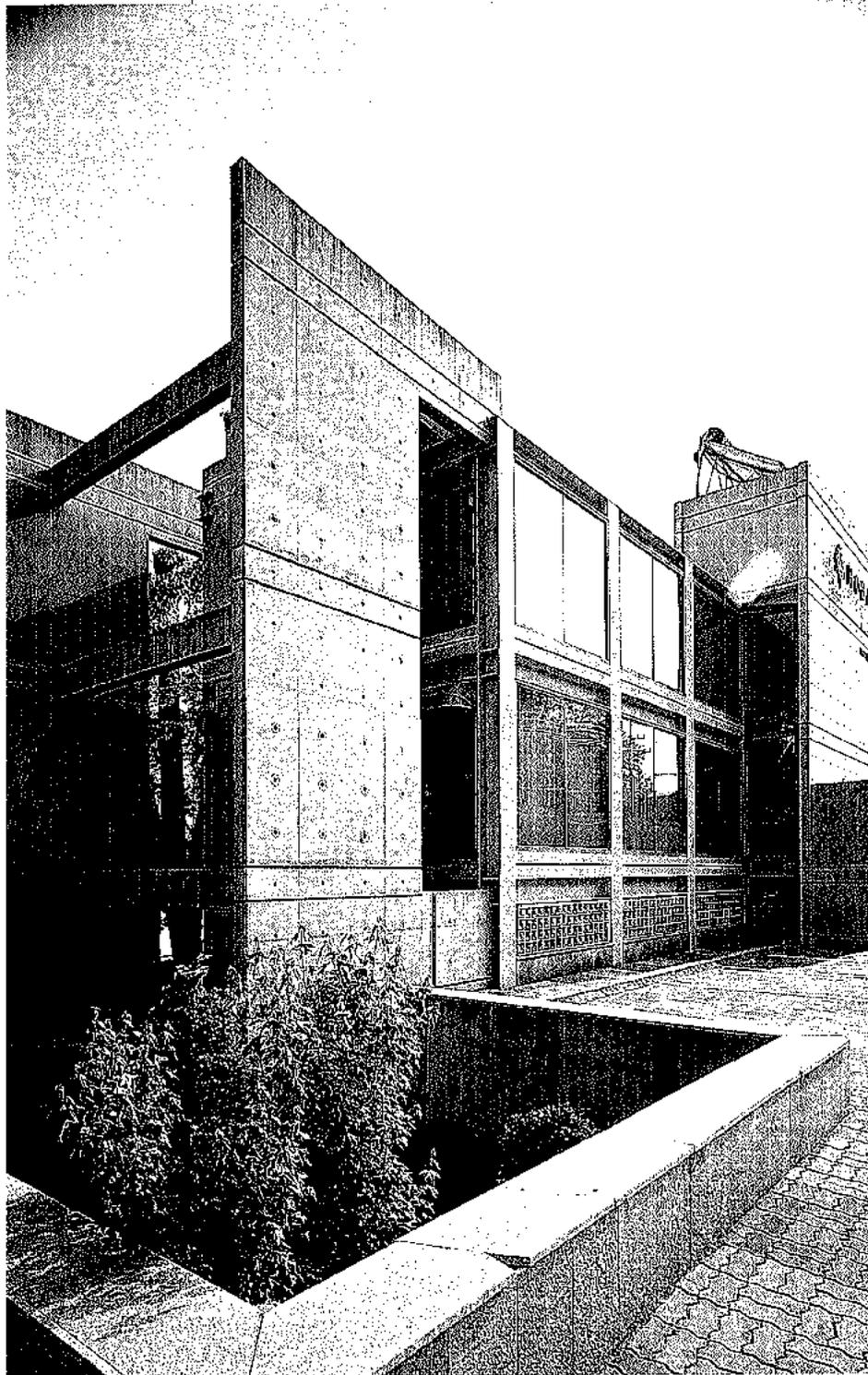


64년

64년

## 호반레스토랑 Hoban Restaurant

윤 옥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Designed by Yun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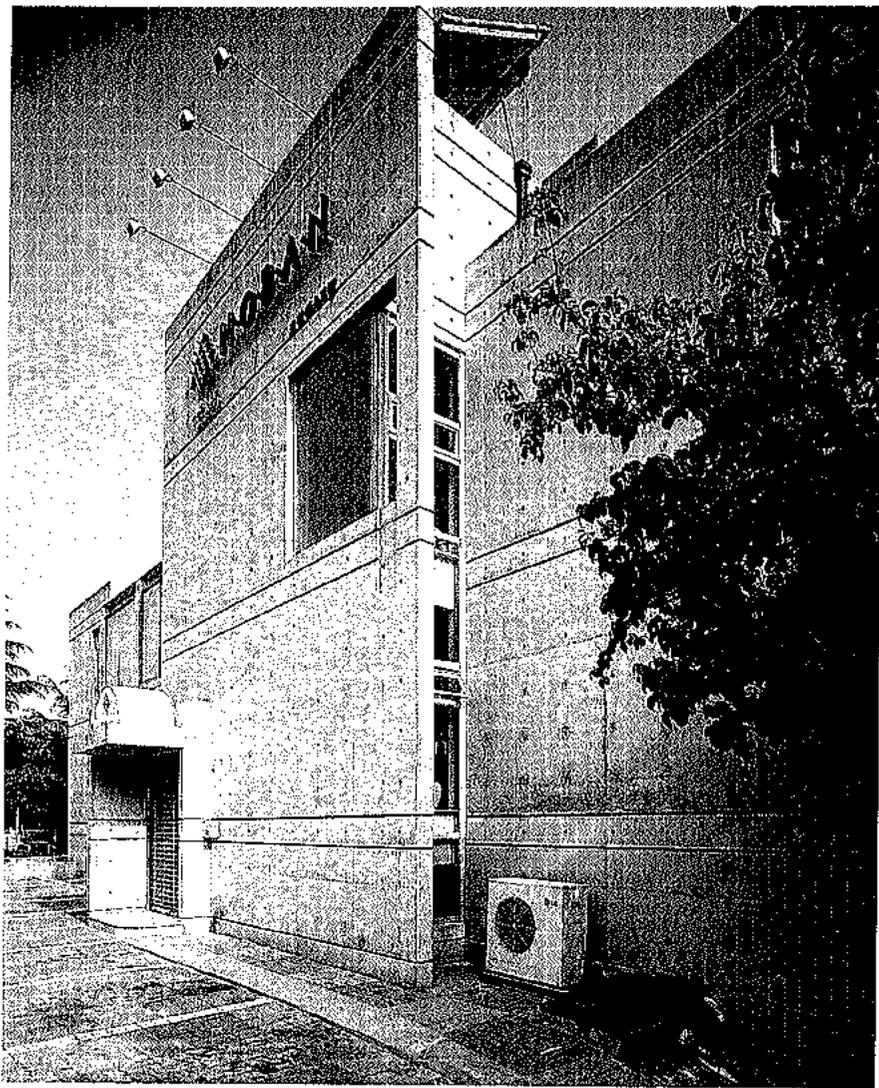


1968년 이곳에 처음으로 「호반」이란 휴게소를 운영해 오면서 「ㄱ」자형의 붉은 벽돌 단층 건물로 단장했다가 지금의 현대적 감각을 지닌 건물로 새롭게 개축하였다. 「호반」은 전면의 범나산 자락끝과 뒷면의 수성못이 맞닿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또 시민들의 개방공간인 공원이 호수를 중심으로 띠모양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배치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산, 호수, 숲 등 주변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주요 점을 두었다. 이러한 고려에서 건물 형태는 전면도로와 띠모양의 공원과 동일한 방향으로 (정방향)하였다. 지붕은 아트막한 산봉우리의 윤유로서 박공모양을 채택했다. 건물 외장은 자연스런 풍을 느낄 수 있는 노출콘크리트와 현실적으로 협소한 대지의 건축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햇보기와 햇벽을 설치하여 그리 넓지 않은 건축 공간을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도로쪽에서 접근할 때 건축물의 외관이 다소 폐쇄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현관을 통하여 주공간에 들어서면 양쪽벽면에 유리로 구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주어 작은 공간을 더욱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자연의 일부를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도록 하여 휴식 공간과 자연을 뗄 수 없는 관계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옥외 기단은 중앙에 2백여년이 넘었을 법한 떡버드나무가 버티고 서 있고 그 주변으로 귀목노타나무 등 기존 수목과 자연석 조각들이 호수와 한데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이 건물에 사용된 노출콘크리트와 햇벽과 보의 조속적 처리, 전통목조건물에서의 노출구조와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친숙한 느낌의 박공지붕을 복합하여 미니즘 기법에 의해 추상성을 높였다. 산과 호수를 비롯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수성못 「호반」에서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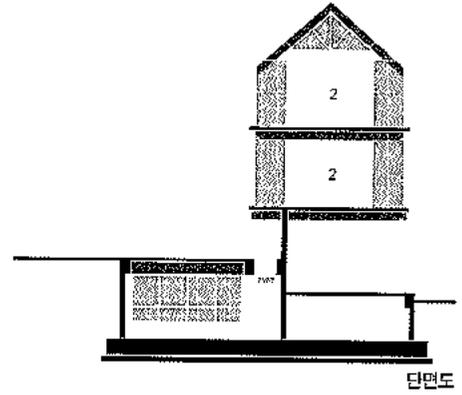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26-3번지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602㎡	연면적	462,405㎡
건축면적	119.31㎡	용적률	56.94%
건폐율	19.8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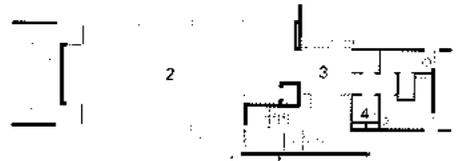
각 일



3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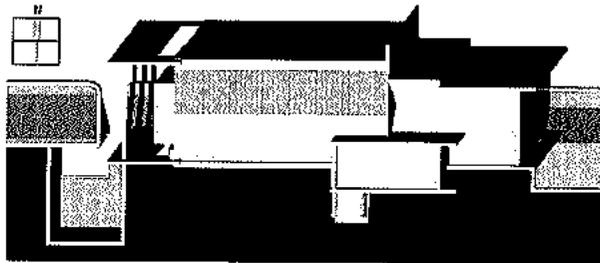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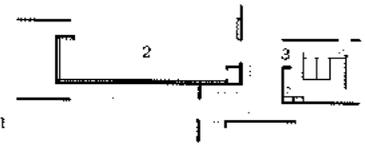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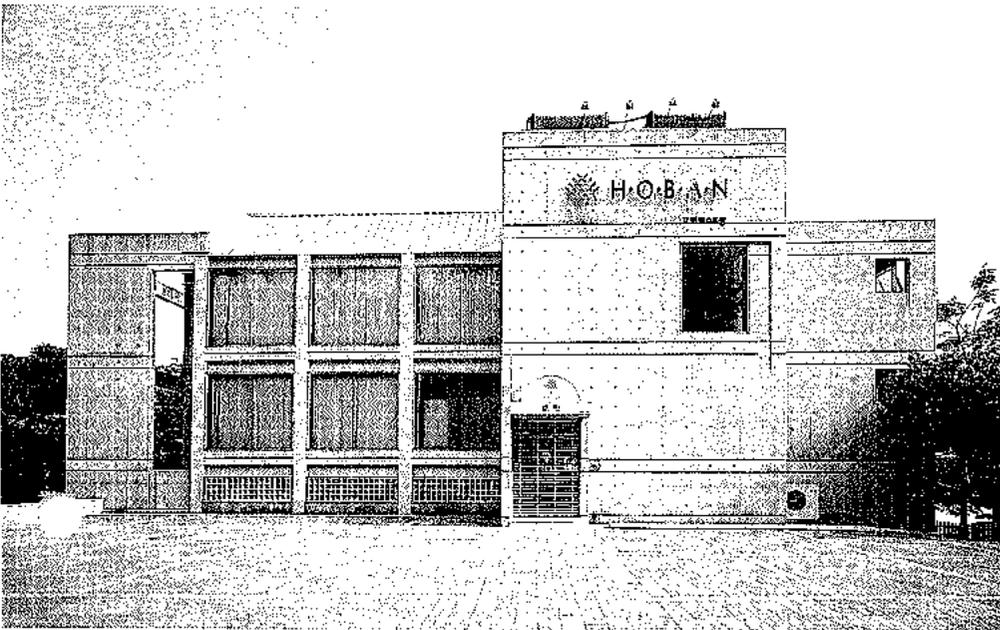
- 1. 선문가든
- 2. 대중음식점
- 3. 홀
- 4. 창고



배치도



1층 평면도



48면



64면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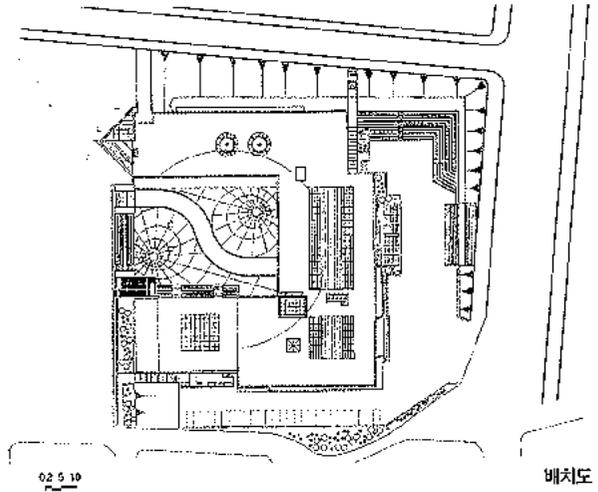
# 배재대학교 21C관

## 21 Century Hall Paichai University

부대진+김무현/ 진아건축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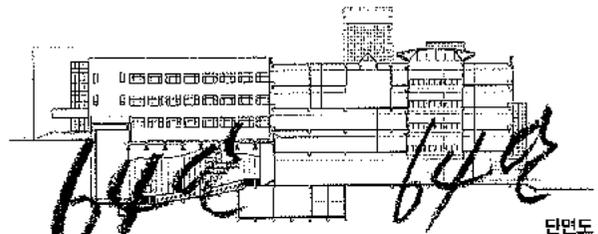
### 건축개요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39-6 배재대학교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구, 최고고도지구
- 대지면적 206,105.20㎡
- 건축면적 6,674.55㎡
- 연면적 21,638.03㎡
- 건폐율 10.46%
- 용적률 36.58%
- 설계담당 홍승훈, 윤보근, 장기태, 부상훈, 박준구, 각혜종
-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20m
- 주요설비방식 F.C.U 냉·난방+정공기 방식(VAV)
- 주요용도 대학본부, 교수 연구실, 강의실 및 집회시설
- 외부마감 ㉠30 화강석 버너구이, ㉡18 투명 복층유리
- 내부마감 아크릴계 수성 페인트
- 건축주 배재대학교
- 시공주 (주)대양건설
- 설계기간 '96. 7. ~ '97. 4.
- 공사기간 '97. 4. ~ '9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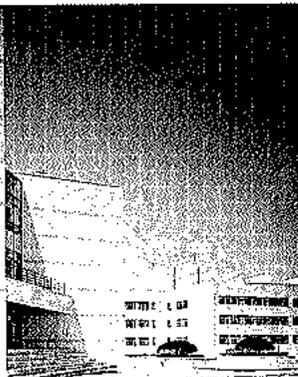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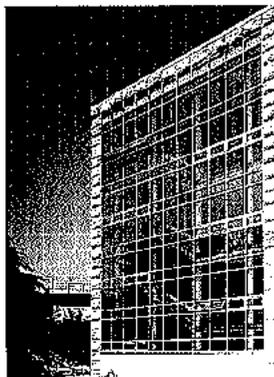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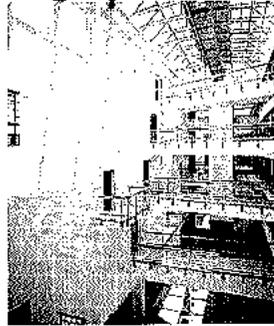


02.5.10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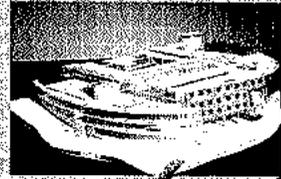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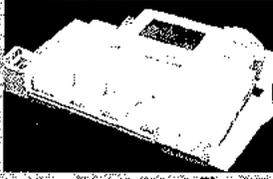


단면도



64면 64면 64면 64면 64면 64면

64단 64단 64단 64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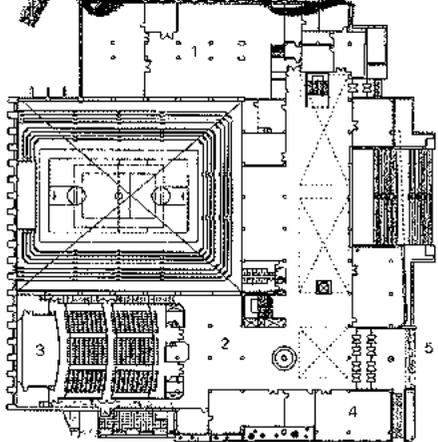


64단 64단 64단 64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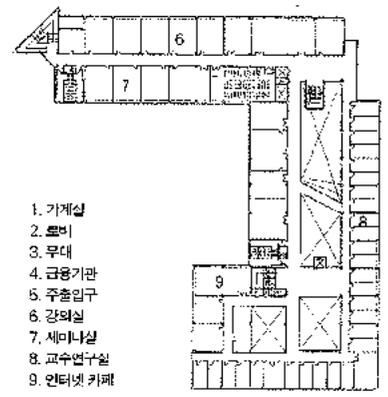
3D 모델



16 단



1층 평면도



02 5 10

5층 평면도

- 1. 기계실
- 2. 복도
- 3. 무대
- 4. 급용기관
- 5. 주출입구
- 6. 강의실
- 7. 세미나실
- 8. 교수연구실
- 9. 인터넷 카페

# 자생당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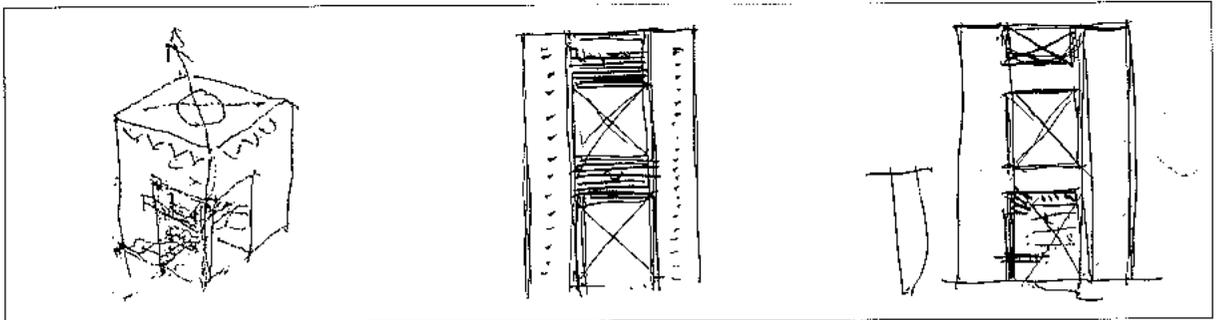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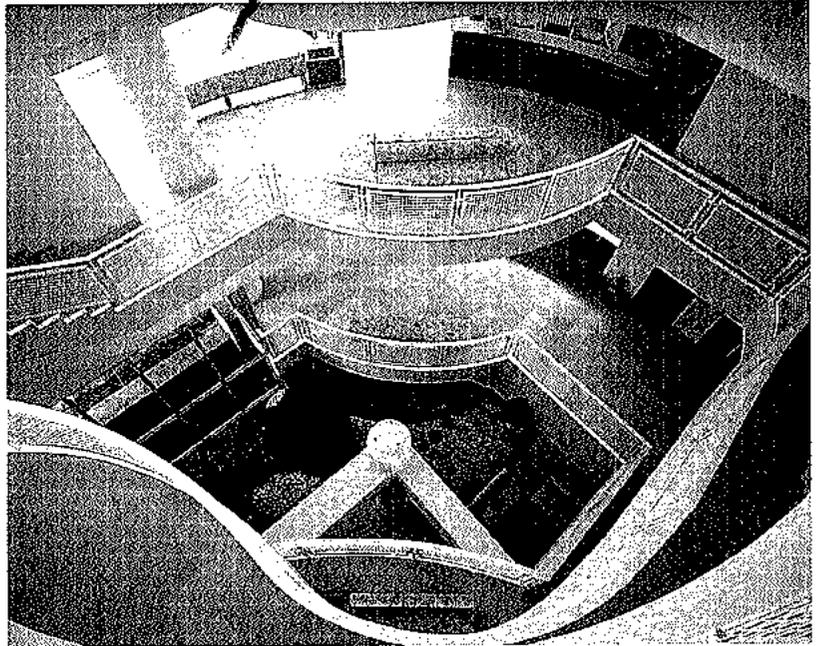
## Jasaengdang Hospital

故 장세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The Late Chang Se-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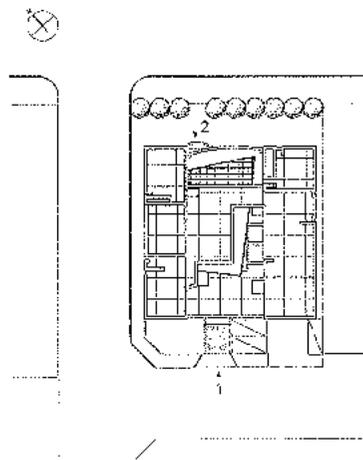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334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도로현황	40m, 10m도로
대지면적	1,006.8㎡
건축면적	560.96㎡
연면적	5,834.8㎡
건폐율	55.7%
용적률	679.5%
규모	지하2층, 지상9층, 옥탑층
층고	3.45m, 4.2m, 5.1m
건물고	43.1m
주차대수	35대(옥내: 29대, 옥외: 6대), 법정: 32대
승강기	승용 및 병원용(11인승 2대)
조경면적	163.20㎡
시공	삼협종합건설
설계팀	오삼훈, 강희성, 금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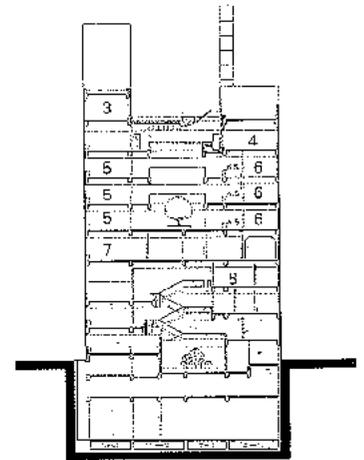
480m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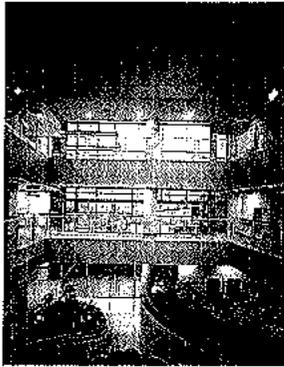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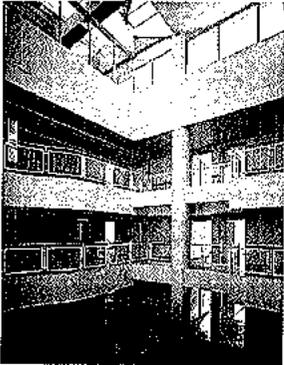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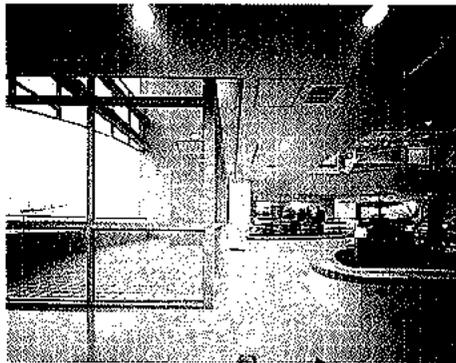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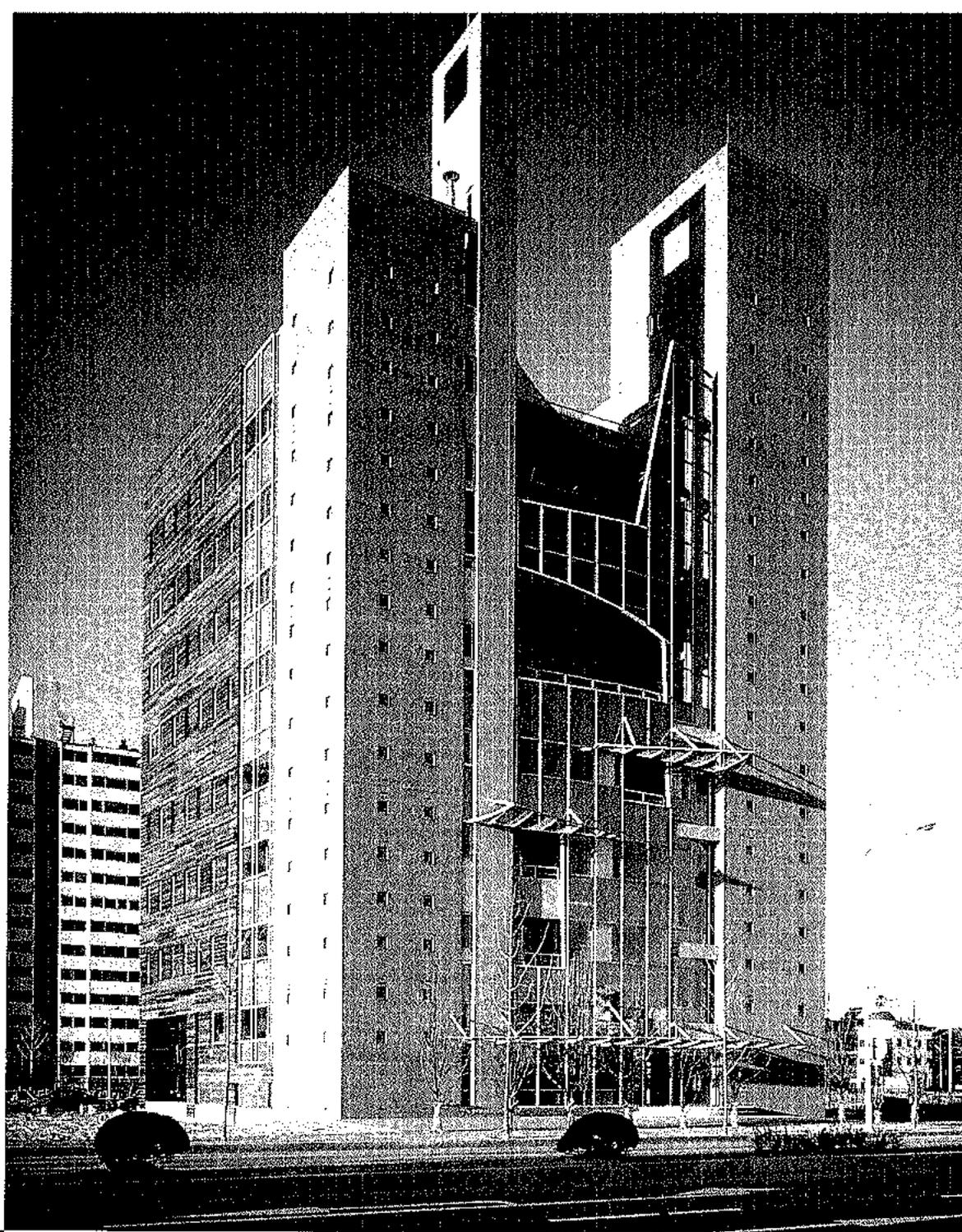
단면도

64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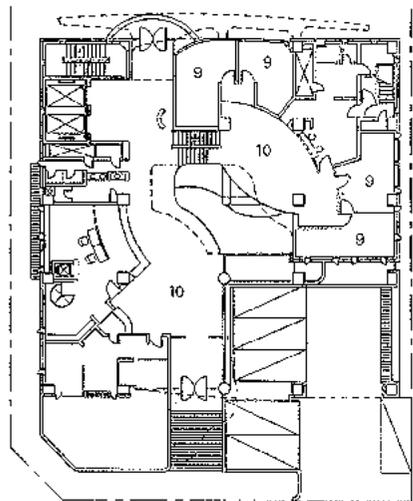
640e



64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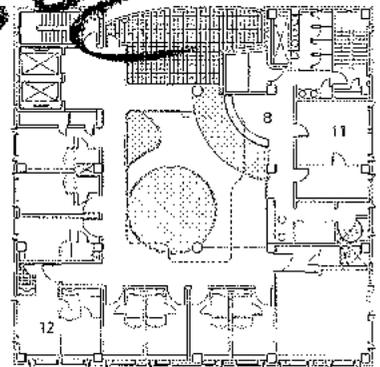


640e



1층 평면도

160e



5층 평면도

- 1. 주출입구
- 2. 부출입구
- 3. 세탁실
- 4. 강당
- 5. 방식
- 6. 차차실
- 7. 산생이 중환자실
- 8. 휴게실
- 9. 산부인과
- 10. 대강실
- 11. 화장방
- 12. 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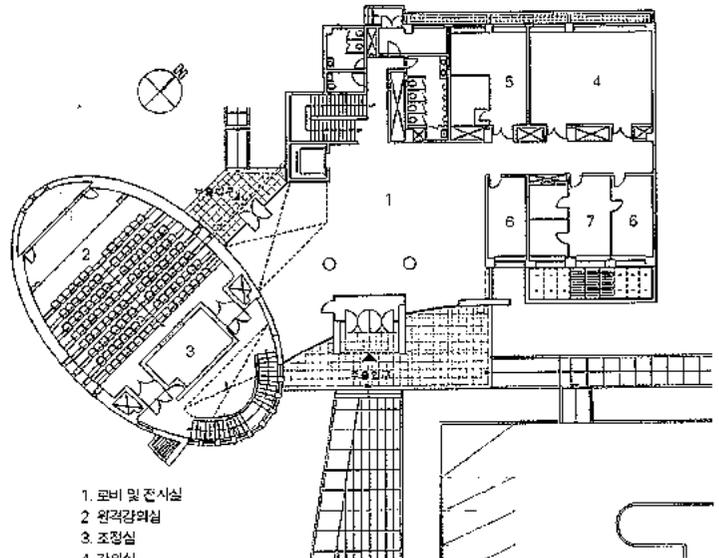
# KAIST 의과학 연구센터

## KAIST Medical Science Research Center

손두호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  
 Designed by Sohn Doo-Ho

### 건축개요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어은동 일대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 대지면적 829,950.84㎡
- 건축면적 892.55㎡
- 연면적 5,036.42㎡
- 건폐율 8.29%
- 용적률 26.57%
- 설계담당 최강열, 조성수, 윤원태
-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 구조 R.C
- 최고높이 38.50m
- 주요설비방식 중앙공급식
-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 외부마감 벽 - THK30화강석, 알루미늄 패널
-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물갈기, 디럭스타일, 카펫타일
- 벽 - 유공흡음판, 아크릴수지 페인트
- 천장 - 임면흡음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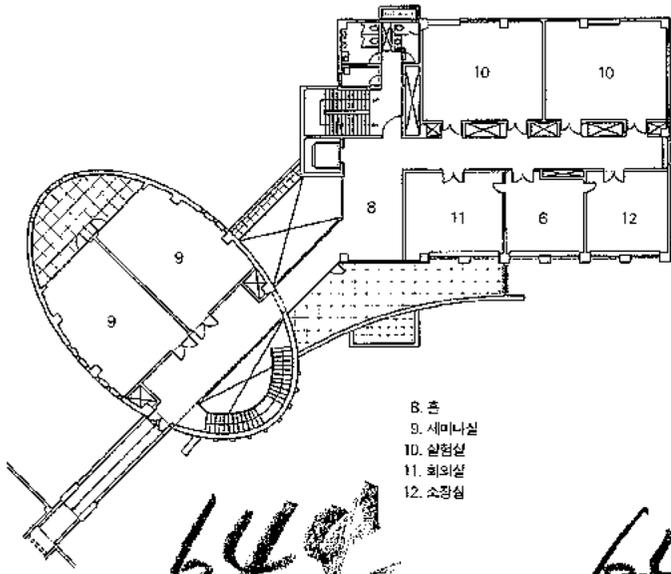


1. 로비 및 전시실
2. 환경감의실
3. 조장실
4. 강의실
5. 행정지원실
6. 사무실
- 연구원자상담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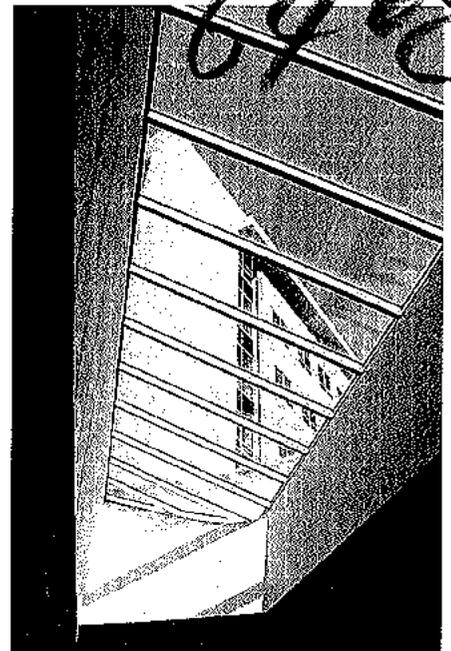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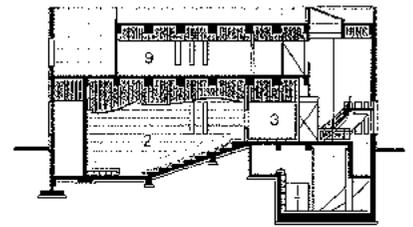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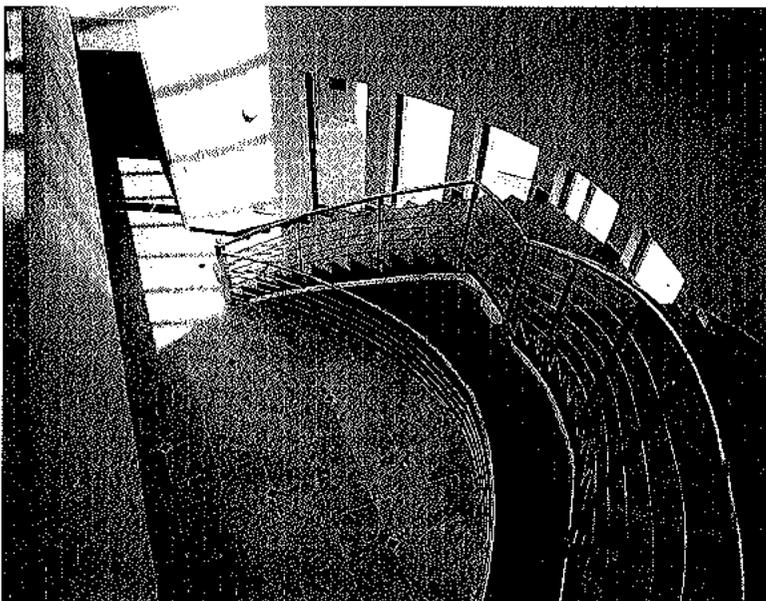
- 8. 층
- 9. 세미나실
- 10. 사무실
- 11. 회의실
- 12. 소광실

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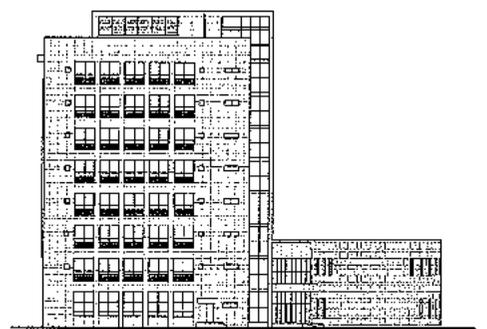
64쪽



64쪽



원격강의실 종단면도



복서측 입면도

64쪽

## 북천제각(北川祭閣)

Puck-Cheon Je Gark

문철수 / 두양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Chul-Soo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에 대한 뿌리 깊은 숭배의식을 지녀 왔다. 그 끈질긴 뿌리의식은 끈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어져 내려왔고,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그 면면함은, 세계에 유례없는 명절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강인한 뿌리의 끝에서 있는 신성한 공간 - 조상신을 모시는 성소, 그것으로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 - 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공간일 것이다.

제각은 이렇듯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인데, 아직껏 그 건축 공간은 마치 공동품과 같이 취급되어져 왔다.

원래 진정한 건축공간이란 그 기능이 무엇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을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옛날의 시간에 정지되어 있는 공동품과 다르고, 가만히 바라만 보아야 하는 조각물과도 다른 것이다.

현재를 사는 바로 우리들의 손때가 묻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제취(定體性: Identity)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공동품이 아닌 살아있는 건축공간의 특징인 것이다.

최근까지 지어져 온 대부분의 제각 건축은 이미 우리의 생활과는 단절된, 옛날의 건축공간과 외형을 습관적으로 답습해 오곤 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해, 되는대로 현대적 부품을 끼워 넣어 그야말로 과상망측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야 마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한 것도 적지 않았다.

그토록 대단한 뿌리의식을 가진 민족이 왜 그 소중한 상징적 공간의 구성을 옛날에만 의존해 와야 했을까? 전통, 혹은 전통 건축을 만지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과 수구성(搜求性)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의미 해석에서의 부족함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건축주와 건축가들의 태만 때문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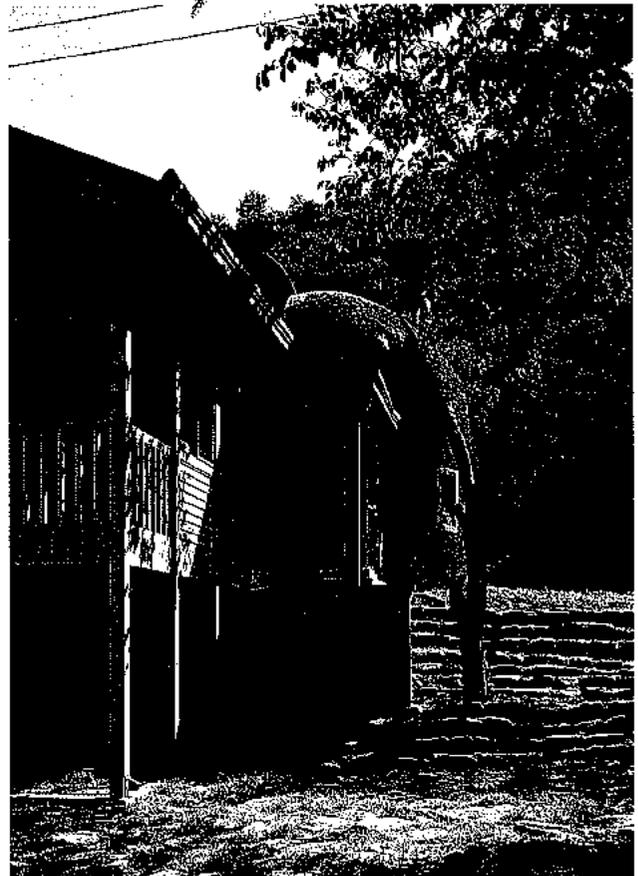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어찌됐던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히 전통제각의 현대적 해석과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안다. 단지 누군가 꿰어야만 하는 첫단추를 꿰어본 것일 뿐이다.

더 나은 제각들이 훌륭한 건축가 손에서 다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하동군 축천면 직전리 138번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443㎡
용도	종교시설(제실)
건축면적	77.17㎡
연면적	93.66㎡
건폐율	17.42%
용적률	21.14%
내부마감	벽지(갈포)마감/지정색 드라이비트 파니쉬마감
외부마감	물탈뿔칠(건스프레이)/밤라이트사이드(목우늬)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구조	목구조
설계담당	박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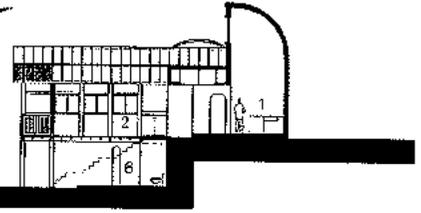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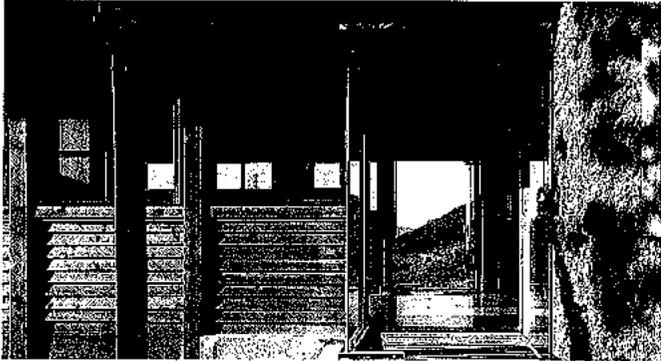


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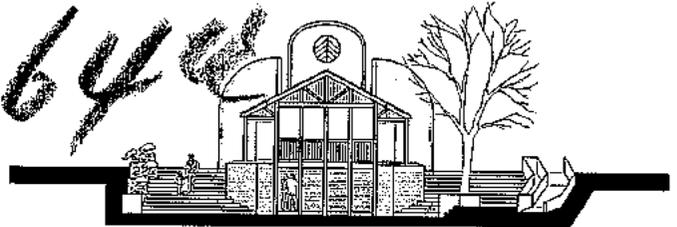
- 1. 신의계
- 2. 배회공간
- 3. 주방
- 4. 대기실
- 5. 4m도토
- 6. 데크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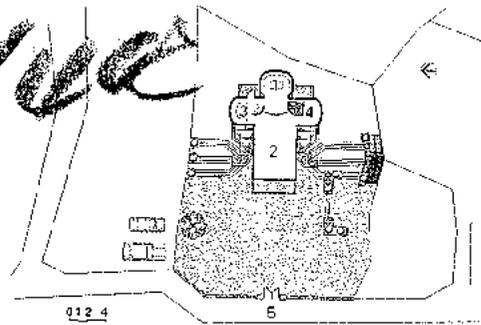
64년



서측 입면도



64년



배치 및 기준층평면도



25년

# 보람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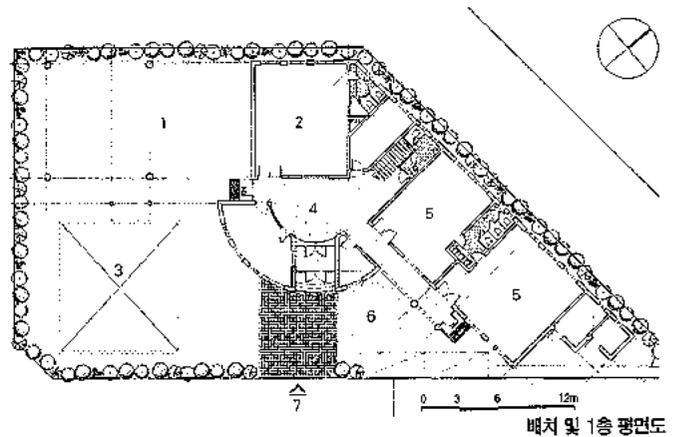
## Boram Kindergarten

한경섭 / 건축사사무소 한건축

Designed by Han Kyung-Sub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철왕동 시화지구 62-36-01 필지
대지면적	1,049.00㎡
건축면적	531.96㎡
연면적	880.02㎡
건폐율	50.71%
용적률	83.89%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노유자시설(유치원)
용도	드라이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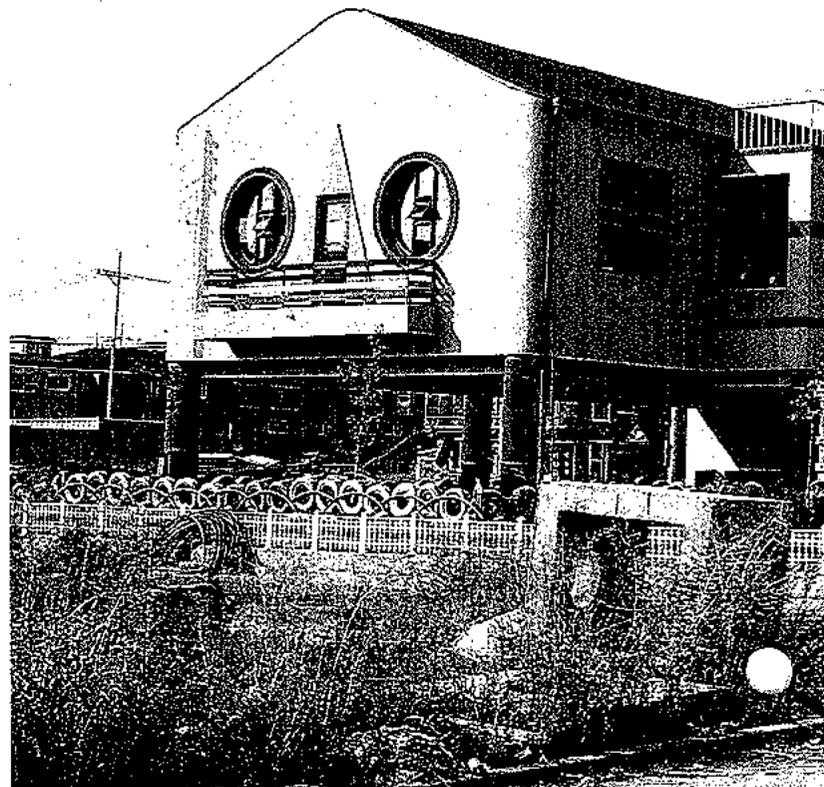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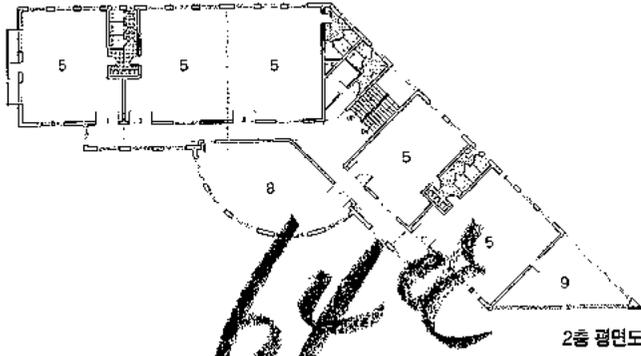
건축주로부터의 최대 유치원생 수용 요구는 자칫 원생들의 교육의 질을 외면한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던 프로젝트였다. 도시설계 지침에 의해 층수는 2층이하로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62-36-01 대지의 형태는 대지의 한쪽이 삼각형으로 함몰되어 있다. 대지의 모습대로 토지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건물을 배치하여 남향으로 마당을 배려하였다.

1층 피로티 부분은 전천후 유희장으로 롤러 스케이트장 및 유희 장소로 이용빈도가 높은 곳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곳이다. 건물이 다소 길어지면서 중간정도에 코어를 배치하고 양쪽 날개에 교실과 복도를 배치하여 빛이 충만하도록 배려 하였다. 유희장에서 건물이 높아보이지 않도록 복도 부분은 높이를 다소 낮게 조정하여 절제된 입면에 조형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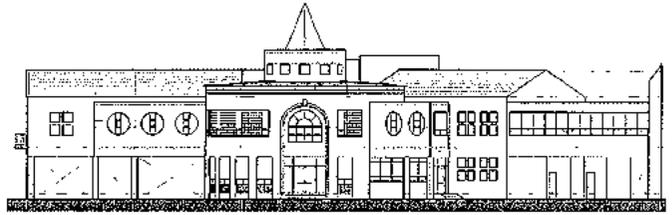
시화 신도시는 지역성이나 도시경관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으나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여전히 회색도시로서 어린 등심에 삭막함이 보여져 외장 드라이비트 색채의 일부에 원색을 도입하였다.

어린이들이 사용하여야 할 공간으로서 교육환경의 하드웨어적인 면 등으로 고민을 많이 하였던 프로젝트였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의 질이 지역내에서 좋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시 우려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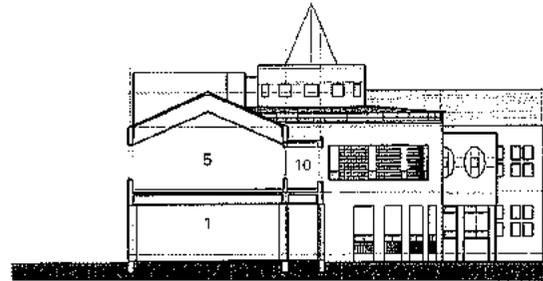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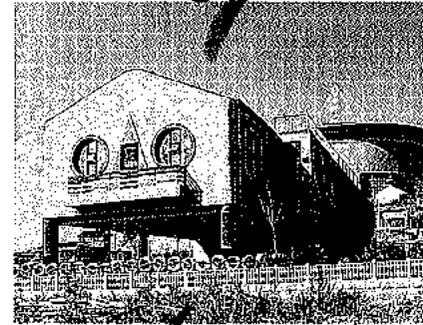
0 3 6 12m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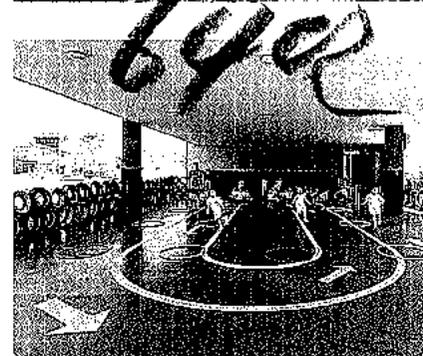


- 1. 야외유리장
- 2. 교실
- 3. 놀이터
- 4. 층
- 5. 교실
- 6. 언뜻
- 7. 주출입구
- 8. 유회장
- 9. 교재실
- 10.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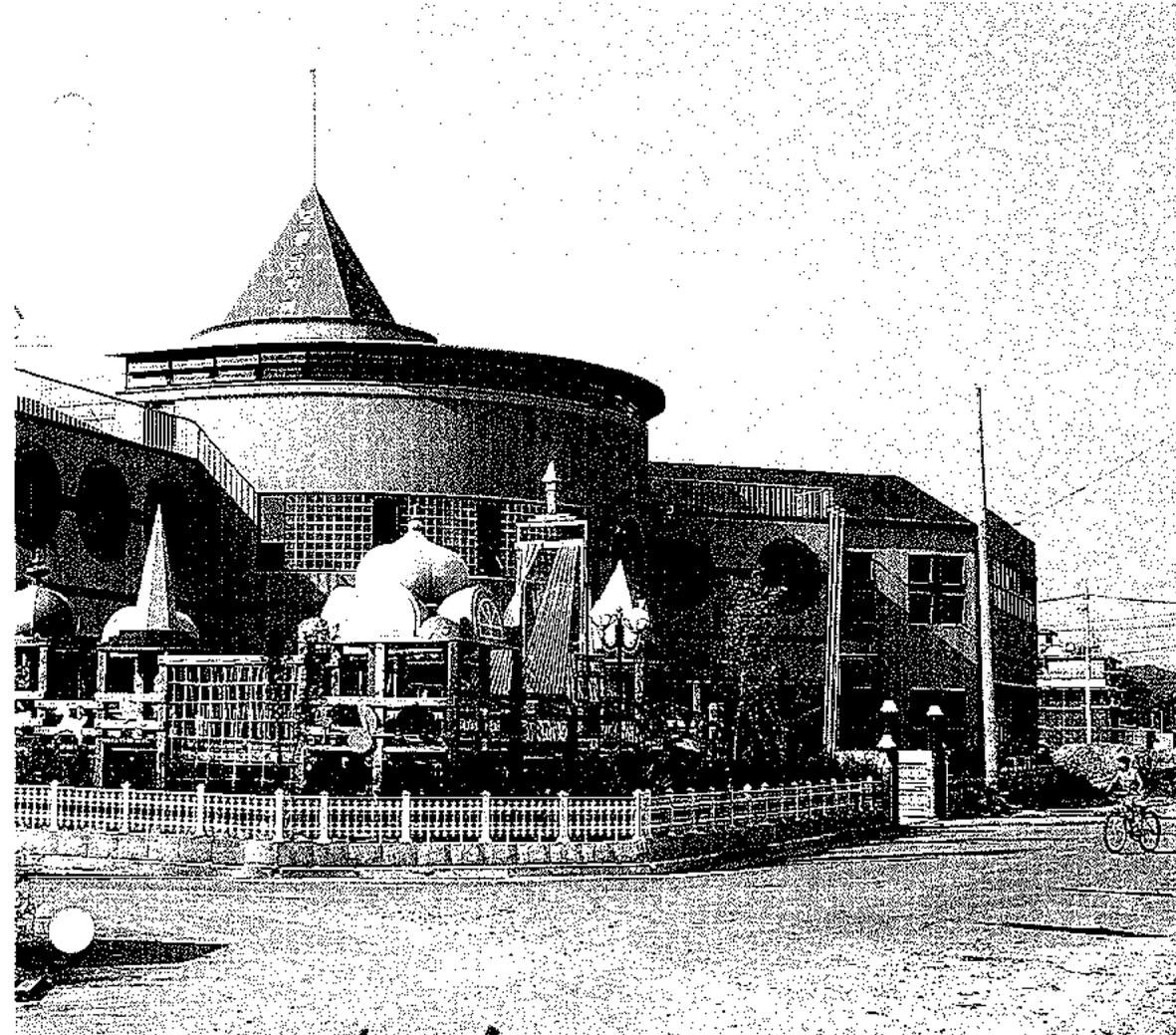
64면



64면



6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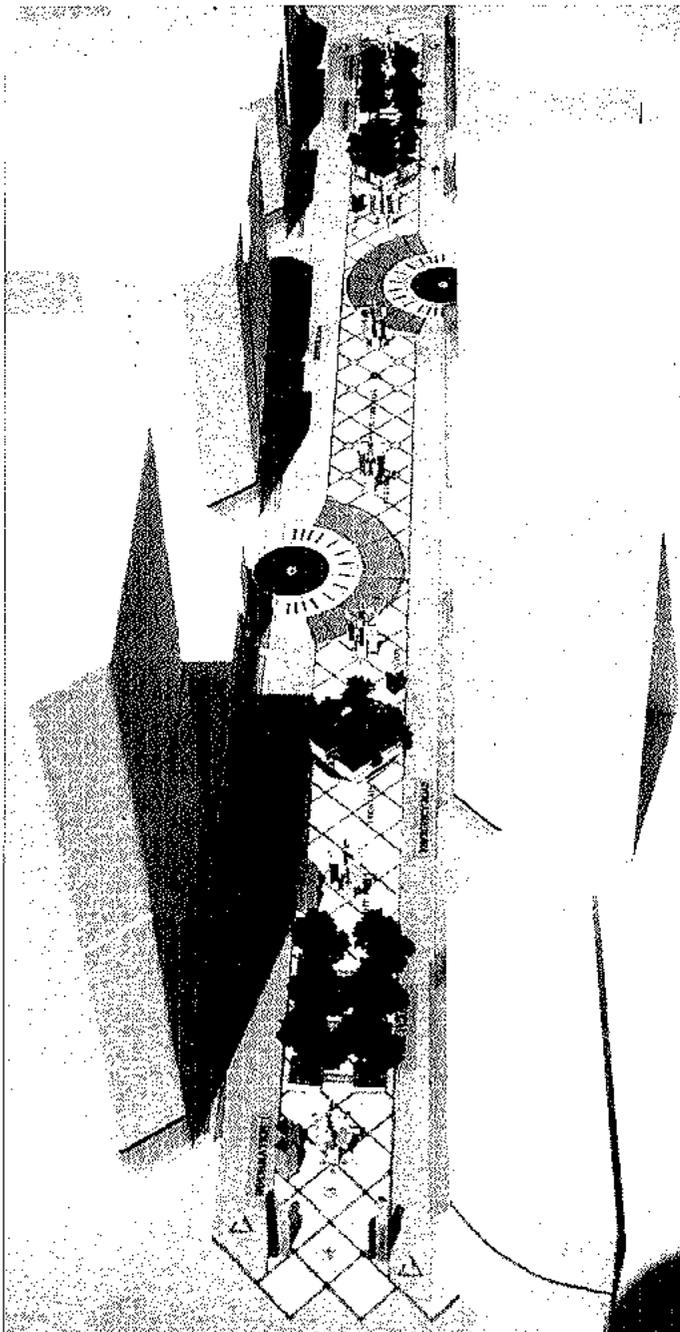
16면

# 건축이 아닌 곳에서의 건축가의 일

## Architect's View of Non-Architecture Design

하양호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세계  
by Ha Yang-Ho

32만



서울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계획 모델

건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원고요청과 함께 필자 스스로에게 해 본 질문이다.  
우리 건축가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건축주의 요구, 실제 작품에 필요한 순수시간의 부족과 난해한 작업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 제공이 어려운 여건들.  
의뢰자와 건축가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는 또다른 계기가 되면 답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이 아니다.  
Design 대상을 건축물에 한정해서 생각해 온 필자로선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건축가의 눈이 단순히 건물계획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본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도시내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고, 다듬어 보고픈 충동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무튼, 보고 느낄 수 있는 모든 Design 영역에서 우리내 역할이 커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건축물이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면 도로 또한 그렇다. 종로가 종로라고 불리는 것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듯이 도로는 역사적 흐름과 함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속적 요소이다.

수십년간 이 거리를 지배(?)해 온 상인들은 도로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곳에 뿌리 내린 이들과 찾아오는 이들 모두를 위해 필요성은 분명했다. 종로구청 또한 환경개선의 명분으로, 그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에게 요청되었으며,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필요한 예산 확보와 계획 방향의 불명확한 기준, 차 없는 거리조성을 위한 관련법(주차장법 등)수정의 행정

적 문제와 노점상들의 반대에 대한 대처 등...

의뢰되었던 후 예전의 느낌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나는 일주일 간 이곳을 둘러 보았다.

기존의 도로는 이려했다. 거리에 면한 상가들의 제 멋대로의 꾸밈과 전면의 무차별 전용, 무질서한 주차차 차량과 가판대, 즐거운 보행은 상상할 수 없고, 마음 한 점 줄 곳 없는 공간배열. 빨리 지나쳐 버리고 싶은 미려없는 통과 도로.....

그러나 그곳은 만남과 모임과, 젊은 세대를 위한 짧은 문화가 있었다. 이 거리가 이들의 문화가 제대로 숨쉴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준이 불명확한 이곳에 선을 긋고 싶었다. 도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인식 또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영역화한 도로의 Design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모두들 빠른 속도로 걸었지만 나는 천천히 걸게 하고 싶다. 통과해 버리는 곳 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변상가는 이곳에 있음이 당연하고, 공유하는 도로는 진실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특성을 우리 모두는 느껴야 한다. 영역성이 높아야 빠르게 인식된다. 영역은 닫혀져 명확한 경계가 이뤄질 때 높이 인식된다.

이 도로는 폭 15m, 길이 150m의 남북 청계천2가와 종로2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의 영역으로서 2개의 내부 교차로가 걸쳐져 더 더욱 명확성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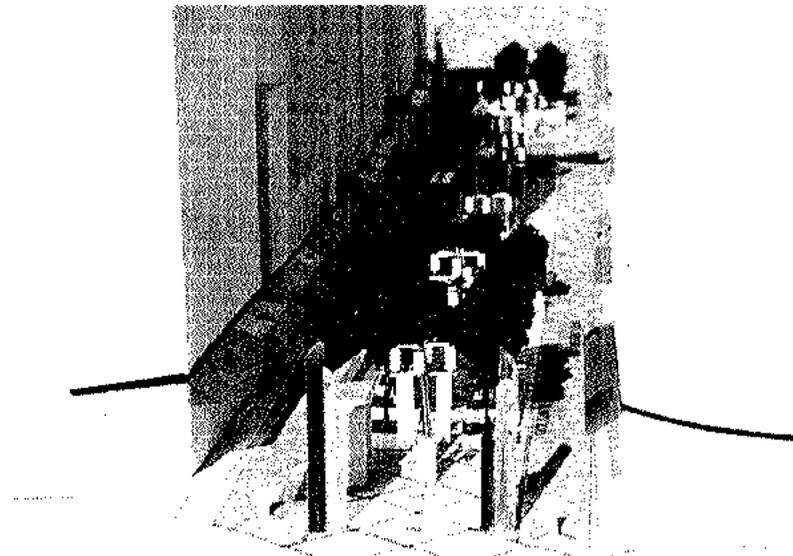
내부 교차로는 분점하되 출수를 강하게 하고 내부 Design은 모여서 어울려야 했다.

양끝, 청계천2가와 종로2가는 차량과 함께 상당한 속도감을 갖는다. 빠른 보행자는 구분된 영역에 진입함에 있어 영역 경계의 gate를 지나 신선하고 새로운 나무와 물을 만난다. 내가 아는 숲과 그 나무들은 나를 정화시켜 순수하게 했었다.

길 전부를 나무와 풀로 조성하고 물이 흐르게 하면 어떨까? 그러나 상인들은 공업이 이뤄질 수 있는 광장과 조용하기 보단 떠들썩한 분위기를 상상한다.

숲은 훼손되고 기념식수만 이뤄진다. 당초 예산이 반감되었다. 서울의 도로밀은 거미줄처럼 무질서하게 각종 배관들이 엉켜 있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다.

의뢰자는 상품전열 효과와 선전을 위한 모임의 장이 되었으면 했다. 나름대로 간아 음악회나 젊은이의 문화공간을 생각하며 협소한 도로를 완화시키는 2개의 교차부에 무대를 마련했다. 행사가 이루어지면 간아무대를 꾸미기로 하고 무대형태 모습의 바닥pave를 종로구의 영역도와 관할 행정동의 위치를 담아 표



648

현하고 다른 무대는 구시 관할하는 7개 보물과 시계를 중심으로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그래픽화 하여 종로를 홍보했다. 정밀한 그래픽은 예산과파의 기술적 실현불가로 생략되었다. 그리고 중앙부는 종각의 형상으로 바닥을 입체화해 실 곳을 미려하고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

도로가 개선되었다고 일을 끝낼 순 없었다. 인접한 모든 건축물들이 새로이 단장하고 통일된 awning을 설치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나무도 거리 역사와 맞게 오래된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항상 청결하고 우리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지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 후의 모습

648



종로2가 가로공원 조성 전의 모습

648

## 국제건축사연맹(UIA) 베이징대회 참가보고

### Report on the UIA Beijing 1999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권고안에 관한 협정 즉,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세부내용은 본지 9903, 9904월호 참조)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대회 및 총회에서 정식 채택됐다.

특히 이번 UIA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국제기준권고안」 가운데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관한 부분은 지난 1985년 유럽공동체(EC, 현 유럽연합 EU)에서 채택된 내용을 토대로한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의 보고서 내용 그대로가 채택됐고, 이러한 기본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건축교육으로서, 최소 5년 이상의, 인가된 대학의 인증된 전일제 건축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게 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생소했던 교육인증프로그램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UIA베이징대회를 다녀온 본협회 국제위원들의 참가보고를 통해 이번 제21차 총회의 주요 의결내용과 전반적인 대회 분위기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 UIA(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대회란?

3년마다 열리는 세계건축사대회(World Congress of Architects) 행사로,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건축사 관련 논문이 200편 이상 발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행사기간중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되어지는 각종 신건축공법을 비롯해 각국의 각종 현안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토론된다. 특히 건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관련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차기(2002년) 개최지로는 독일의 베를린이 예정돼 있으며, 2005년에는 이스탄불에서 개최기로 이번 베이징 대회시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우리 건축계(특히 설계관련 전문직)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안에 공동대처하고 이에 필요한 필수 학문들을 논의·협약하는 국제적 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 UIA베이징대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20차 UIA대회 / 1999년 6월 23일~26일  
제21차 UIA총회 / 1999년 6월 27일~29일
- 장 소: BICC(베이징 국제컨벤션센터)  
Great Hall of People (인민대회당)

- ▶ 참가자 / 대회: 이관영, 김지덕, 이정근, 조인숙, 김홍일, 신춘규, 이필훈  
총회: 김지덕, 이정근, 조인숙

##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시대 막을라

김지덕,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제20차 UIA대회(The XX World Congress of Architects)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종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경비가 삼엄하여 필요이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회당의 수용인원이 크므로 참석자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었다. UIA공식용어인 러시아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와 중국어의 동시통역이 원활히 이루어져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중국의 우량룡 교수와 미국의 케네스 프림튼 교수가 공동으로 본 대회의 주제개발을 주도하였는데 우교수는 '새천년의 건축을 고대하며' 라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프림튼 교수는 '새천년을 위한 일곱가지 주문' 이란 논고속에 주제전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14명의 발표자중 이번에 UIA 금메달을 받은 멕시코의 레고레타 빌치스의 작품의 경우 독특한 풍토성과 개

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건축가 모세 사후디의 발표는 매우 명쾌했다. 앞으로는 주제나 부주제 발표에 한국의 건축가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실력에서나 국제관계에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25일과 26일에는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므로 본대회 주제관련 세미나, 아시아관련 토론회, 아카시아 포럼, 건축실무와 관련된 세미나 등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분담하여 참석했다. 본인이 담당하여 참석한 것은 25일 오전 '20세기의 건축: 비판적 모자이크란 주제전과 쌍을 이루는 심포지엄이었는데 케네스 프림튼교수가 대표편집자 역할을 맡아 세계 각 문화권역을 10개로 나누어 권역별로 100개씩의 대표적 건축물을 선정해 몇 달 후 책으로 출판한다고 한다. 본 심포지엄에는 각 권역별 편집자가 발표를 하였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체계적인 발표가 되기는 어려웠다. 마침 한양대학교의 이정근 교수가 다른 방에서 발표를 할 차례여서 달려갔으나 예정보다 일찍 끝나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쉬웠다.

25일 오후에는 올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카

### 제21차 베이징 UIA총회 채택결의 내용(원문)

####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 RESOLUTION OF ADOPTION

Resolved that the Assembly adopts the Second Edition of the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as an advisory document intended to be used by member sections in setting and reviewing their own standards. The Accord and Guidelines will also make it easier for UIA member sections to negotiat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The Assembly requests that this Accord be transmitted to all UIA member sections with the request for thei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is policy framework for presentation at the XXII UIA Assembly (Berlin 2002).

The Assembly recognizes the mandate of Council to adopt Accord Policy Guideline documents and commend them to the UIA member sections.

The Assembly recognize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ultures, practices and conditions in different member sections and encourages the member sections to use the documents as advisory documents intended to be adapted to local conditions.

The Assembly acknowledges that the sovereignty of each UIA member section must be respected in negotiations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nd notices that the guidelines are intended to allow flexibility for principles of equivalency and reciprocity and are structured to allow for the addition of requirements reflecting local conditions of a UIA member section.

The Assembly authorizes the UIA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to submit the Accord and Guideline documents to national government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othe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the basis for beginning mutual recognition negotiations between or among UIA member sections.

PROPOSED RESOLUTION FOR THE ADOPTION OF THE ACCORD

#####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 결의안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2차 수정안을 각 회원단체가 그들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자문 문건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UIA 총회에서 채택하기를 결의하면서 아울러 본협정 및 지침서가 UIA 회원단체의 상호인증협정 협의를 용이하게 해줄것임을 인식하는 바이다. 이에따라,

UIA총회는 본 협정서를 22차 UIA(베를린 2002)총회 제출을 위해 각 회원단체에 배포하여 협정서의 정책사항 개정에 관한 각 단체의 협조 및 참여를 촉구하고

UIA총회는 본 협정 정책 지침서를 채택하고 각 회원 단체에 이를 권고함이 이사회에 임무임을 인식하며

UIA총회는 각 회원단체간의 문화, 관행 및 입장의 차이를 인식하고 본 문건을 각 단체의 상황에 맞춰 자문 지침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UIA총회는 상호인증협정에 관한 협의시 각 회원단체의 주권은 존중되어야함을 인정하며 본 지침서는 평등 및 호혜의 원칙하에 유용성을 허용하고 아울러 각 UIA회원단체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별도요구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UIA총회는 UIA 회장과 사무총장 직권으로 본 협정 및 지침서를 UIA회원단체간의 상호인증협정의 시발점이 되도록 각 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단체와 기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UIA베이징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

일자/장소	행사 내용	
6. 23(수) /인민대회당	개막식 개막연설 및 발제강연	-연설자 및 발제강연자 Mr. Yu Zhengsheng (베이징대회 대회장) Mrs. Sara Topelson de Grinberg (UIA 회장) Mr. Li Ruihuan (중국 인민정치국 운영위원장) Mr. Wu Liangyong (중국) Mr. Kenneth Frampton (USA)
	주제발표 (Keynote Reports)	-발표자 Jean Nouvel (프랑스) Charles Correa (인도) Ruy Ohtake (브라질) Region 5 A. V. Ikonnikov (러시아)
	UIA건축상 시상식 (Awards Ceremony)	-시상식진행 : Sara Topelson (UIA 회장) -수상자 UIA골드메달 : Ricardo Legoretta (멕시코) 맥트릭 아보크롬비상 : Karl Gansler (독일) 아우구스트 페팅상 : Ken Yeang (말레이시아) 젠 슈미상 : Juhani Pallasma (핀란드) 로버트 매튜경상 : 마틴 트레스 콜로 (오스트리아)
	만찬 (Reception Party)	개막만찬
6. 24(목) /북경국제 회의장	주제발표	-발표자 Ricardo Legoretta Vikhis (멕시코) Kenneth Yeang (말레이시아) Francois Barre (프랑스) Philip Sutton Cox (호주) Moshe Safdie (이스라엘) Ignacio Almirall (UNCHS) Terry Farrell (영국) Paul Andreu (프랑스) 북경오페라 참관 (장소: BICC)
	문화의 밤	
6. 25(금) /북경국제 회의장	'21세기 건축' 주제발표	-제1주제: 건축과 환경 Bruno Stagno(코스타리카), Zhu Wenyi(중국) -제2주제: 건축과 도시 Nil Carlson(스웨덴), Wu Zhiqiang(중국) -제3주제: 건축과 기술 Thomas Herzog(독일), Xia Yimin(중국) -제4주제: 건축과 문화 Colin St. John Wilson(영국), Zeng Jian(중국)
	학생 Jamboree 및 작품시상식	-학생설계경기 1등상 수상자 상증정식 -세계 유명건축사와 학생파의 토론회 -학생작품 발표회, 세미나, 작품설명회
6. 26(토) /북경국제 회의장	부주제 발표	-Ando Tadao 선생 작품 발표 및 연설회 -건축과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실무 연구논문 발표 Mr. James Scheeler (미국) Mr. Zhang Qinan (중국) -건축교육과 젊은 건축가들에 관한 연구논문 Mr. Alexander Kudryavtser (러시아) Mr. Zhong Dekun (중국)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	-특별토론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별토론회 William Lim (싱가폴) Rusi S. Khambatta (인도) Tay Kheng Soon (싱가폴) Kwaak Young Hoon (한국) Jimmy Lim (말레이시아) Louise Cox (호주) Song Chunhua (중국)
	중국건축문화공원 탐방	- Ethnic Culture 공원관광 및 폐회식

**기타 UIA Working Program**

1. Architecture & Culture: Globalization, Cultural Assimilation and Architecture: Integration of Western and oriental Architectural traditions  
발표자 : Peter Scriver (호주)
2. Symposium on 20th Century world architectural a critical Mosaic (part one)  
참가자: Kenneth Frampton (미국)  
Luo Xiaowei (중국)  
Richard Ingersoll (미국)  
Jorge glusberg (아르헨티나)  
Wilfried Wang (독일)  
Daniel Walser (스위스)  
Hason-uddin Kahn (미국)

**주요 전시행사**

- 주제전 / 북경국제회의장
- UIA/UNESCO 학생건축선 입상작 전시회 / 북경국제회의장
- 회원국 작품 및 활동 프로그램 / 중국 건축문화센터
- 중국고건축 사진전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건축전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의 현대건축 / 중국건축문화센터
- 중국고건축전 / 북경 고건축박물관
- 건축사재, 장비, 건설기술 국제박람회 / 북경 국립 농업전시관

시아 포럼의 주제와 연관되는 건축과 기술, 건축과 문화의 부주제 발표에 참가하였다. 특히 독일의 토마스 헤르조그는 지역적인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전통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응용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오전에는 아시아의 건축실무와 교육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가을 아카시아 포럼에서 갖게되는 교육위원회 워크숍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로서는 ACAE 워크숍의 준비 및 최종점검을 위한 좋은 기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과 항목들은 계속해서 9월 서울의 아카시아 포럼의 ACAE 워크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잡버리와 아시아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

이어 열린 학생잡버리대회에는 중국학생들을 포함 세계각국의 건축학 전공 학생 약 2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한국학생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 우리 건축학계의 큰 실수가 아닌가 싶다. 왜 우리 학생들을 참가시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다음 대회에는 우리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6일 오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별토**

론회에 참석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광영훈씨가 발표자로 나와서 웅변적으로 내용을 갈파하였다. 몇년동안 UIA납부금을 내지않아 자격정지되었던 북한이 밀린 회비를 납부하고 이번에 참석했다.

**북한대표가 나와 발표를 하였는데 김일성의**

배려하에 북한의 건축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식의 상투적인 선전을 함으로써 참석자들 대부분이 어안이 병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뒀다. 토론회의 성격이나 주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국과의 대화도 가능하리란 생각이 든다.

**제21차 UIA총회(UIA General Assembly)**

제21차 UIA총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북경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회의장의 계단식 관람석에 차려져서 회의하기에는 불편하였다. 건축가협회에서는 강석원 전 회장, 김한근 회장, 여영호 교수, 한만원 소장, 조제원 국제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장단의 인사와 활동보고 후에는 5개 지역별 보고 및 UIA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중

미국과 중국측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성안한 '건축실무의 국제 기준 UIA권고안' 의 진행과정이 설명되고 통과되었다.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 현장도 통과되었는데 이 내용중에는 건축교육과정 인증 등에서 실무기준과 공통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두 활동프로그램의 담당자간에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대회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는 회원단체 분담금의 수준과 이에 연동되어 있는 투표권의 수를 정하는 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까지는 5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다음부터는 6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UIA 내각선거에서는 현 사무총장인 스구타스가 단독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새 사무총장에는 불란서의 Jean-Claude Riguet가 당선되고 회계에는 현 회계장인 밀로네를 물리치고 미국의 D. Hackl이 맡게되었다. 5개의 지역별 부회장 선거에서 한국이 속한 4구역에서는 말레이시아의 히삼 알바크리가 당선되었다. 이어서 각 지구별 이사회 구성원 선거가 있었는데 4구역에서는 홍콩의 타오 호를 물리치고 싱가포르의 Cheong Chia Goh씨가 당선되었다.

2005년에 개최되는 22차 대회와 23차 총회의 유치를 위해 일본의 나고야, 터키의 이스탄불,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등 3곳이 경합하였다. 특히 일본측은 부스를 설치하고 도우미마저 동원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섰으며 대사관 만찬에 초대하여 성대한 대접까지 하며 열과 성을 다했다. 홍보물과 홍보비디오도 훌륭했다.

1차 투표에서는 3개 도시의 득표율이 비슷하였지만 이스탄불과 나고야의 2개 도시간의 결선투표에서는 이스탄불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일본이 수년전부터 '미래의 건축'이라는 활동프로그램을 수행하고 UIA이사회를 나고야로 초치하는가 하면 아카시아에서도 지원약속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스탄불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유치활동에 나선적이 있고 터키

가 속한 2지역에서는 25년간 한번도 UIA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점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터키는 나름대로 Habitat등 활동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한 점에서 인정을 받은 듯 싶다. 2002년에 통일된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다음 대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그동안 수고한 회장단 및 중국의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박수로 회기를 마감하였다.

이번 UIA 공식행사 프로그램외에 「Working Program」도 많았는데 특히 대회기간중 열린 건축교육 Forum에 5개국 대표들이 참가해서 현대 건축교육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했다. 6월 2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Report(R) Forums(F) UIA Work Program(WP)이 오전에만 59개 Class에서 59가지의 Work Program이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36개 Work Program이 진행되었다. 이날 Program에서는 여러가지 주제의 건축관련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6월 26일에는 우리 협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인가교육과정Program, 시험의 기준 및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성 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 협정 등의 원칙 등 기준의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건축실무에서 건축사의 정의, 인가, 인증, 승인, 실무, 경험, 훈련, 인턴기간과 자격, 전문적 지식과 능력의 입증, 등록, 자격면허, 자격증명, 직업윤리, 업무범위, 업무형태, 지적소유권, 저작권 등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연구발표, 논쟁 등 광범위한 쟁점들의 권고지침이 논의의 협의된 바 있다.

이 PPC(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보고서는 주로 미국의 James Scheeler씨와 중국의 Zhange Qinnan씨 등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연구해 왔던 것을 발표했는데, 작성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UIA 제20차 회의중 UIA 총회에서 채택했고, 각국 정부가 권고안으로 채택된 승인문안을 각 회원국에게 채택,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최종 UIA 회장의 공식선포가 있었다.



대회 개회식 광경



UIA 전시관 광경



건축워크샵 제시안  
(논의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요약해 정리하였다)

64년 64년 64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교육, 건축사면허 인정, 건축교육과정의 인증 등등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나, 일단 채택된 국제기준에 관한 권고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PPC 권고지침」은 협회가 번역해서 출판할 사안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 맺음말

전시회는 틈을 내기가 어려워 다 볼 수가 없었다. 주제전과 학생작품경기 수상작 전시회와 중국 고대건축에 대한 전시만 일별 했다. 일부 전시장소는 회의장과 거리가 멀어서 시간을 내서 참관하기가 어려웠다. 개막식, 문화의 밤, 폐막식, 시상식등은 전반 바로셀로나 대회에 비해 연출력이 훨씬 못미치고 상상력의 부족이 여신했다. 그리고 등록비의 액수에 비하면 회기중에 제공하는 음식이나 유인물 등 서비스의 수준이 낮았다. 중국은 이 대회를 통해서 중국내 건축문화의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결집하고 주제개발에서부터 부주제의 전개 등에서 중국의 5개 대학과 중국 건축협회가 외국의 파트너와 공동으로 작업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중국의 건축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연구 정리하게 하고 외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우양용 교수가 주관한 'UIA북경현장'을 성안하여 채택케 함으로써 세계 건축사에 중국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이번 UIA 대회와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건축사협회의 국제활동에 미치는 장 단기의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세계규모의 건축행사에 참가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조류를 읽을 수 있었고 장차 협회의 국제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고 사려됨.

2) 금년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카시아 포럼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련 인사와의 직접 협의.

3) 제10회 아카시아 포럼 홍보물을 UIA대회 및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활동 전개.

4) 북한측 대표와 만나 인사를 교환하고 앞으로 교류를 제의함.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통일부에 구체적인 교류상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대상의 이름과 직책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함으로써 북한과의 건축에 관한 공식적인 교류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아카시아 회장 카시와 협의하여 포럼진행 일정조정 및 전략수립.

6) 데이 킹 순 등 아카시아 포럼에서 활동할 사람들과 직접 만나 역할의 내용과 진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7) Wardi ACAE 위원장, Barry Will 교수 등과 만나 ACAE Workshop의 주제와 진행형식 및 발표자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함.

8) 새로 인선된 UIA회장단을 조제원 UIA이사를 통해 9월 아카시아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건축사협회 및 한국 건축계의 국제활동 범위를 확대함.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이번 UIA 총회에서는 UIA Accord Policy 채택을 이사회에 위임하였고, 각 UIA회원국에 채택을 명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UIA 회장 전 부로멤버와 총회 참석 각국 대표가 기립한 가운데 채택을 선포했다.

총회는 UIA회장과 비서장이 UIA Accord와 Guideline을 각국 정부, WTO, 각 국가 국제조직에 상호인정 관련협의 사항을 제출 권한을 위임했으며, 각국 회원국 협회가 이를 기초로 각국에서 가능한 건축실무에서의 전문직국제기준 권고안에 관한 UIA협정을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물론 우리의 경우 채택안의 적용여부는 우리 정부 정책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건축사도, 건축가도, 대학교육도 UIA Accord Recommended Guidelines에서 기술된 International Standard와는 전혀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표준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지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연구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우선 큰 문제가 건축교육에 관한 UIA/UNESCO 현장에 따라 UIA는 건축가로 키워내는데는 실무경험, 훈련,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5년간의 건축교육 Program 인가, 인증, 승인, 정규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UIA대회의 건축교육관련 소규모 회의

조인숙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중국 베이징에서 1999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린 국제건축사연맹(UIA)대회 및 총회에 우리협회는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전체구성은 대회전(6월 22일)과 총회후(6월 30일)열린 제90차 및 제91차 이사회, 23일~26일 제20차 대회(Congress) 27일~29일 제21차 총회(General Assembly)로 이루어졌다. 대회는 23일~24일 양일간에 걸친 주제발표(Theme Reports) 및 기조강연(Keynote reports), 25일~26일 부주제발표(Sub-theme Reports)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 특별토론회로 구성되었고, 특히 25일, 26일 양일간에는 소규모학술발표회 및 워크프로그램들의 보고회, 그리고 각지역회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25일, 26일 양일간에는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협회의 참석자들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참여하였다. 필자는 금년 9월 열릴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및 워크샵과 관련하여 건축교육에 관한 소규모 학술발표(Small Scale Academic Seminars) 및 각 워크그룹활동보고에 주로 참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교육관련 소규모 학술발표회의 : 25일 오전, BICC 5017실, 레포트

1) 영국에서의 건축교육의 미래(The Future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UK)-폴 하에트(Paul Hyett, UK)

영국건축사협회RIBA 부회장이고 RIBA교육위원회 의장인 건축사 폴 하에트는 UIA/UNESCO Charter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직면한 몇 가지 문제, 즉 직업의 본질의 변화, 자금제원의 변화, 건물형상의 변화, 건축사 등록제도의 변화 등을 제기하고 영국학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건축교육의 영국형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학부 5년 (5 year undergraduate -RIBA Part I)

- 1년 실습 (1 year Practical training)

- 실무 2년 (2 year Practical experience at Post Graduate -RIBA Part II)

- 1년 실무 (1 year Practice -then RIBA Part III Professional Exam)

그는 전날 캔네스 프램턴이 기조강연에서 "우리사회를 교육시키지 않는 한 건축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We cannot raise the quality of architecture without education of our society)" 인용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좀더 정보를 원하면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다.

- www.riba.net

- leonie.milliner@inst.riba.org

- RIBA Cen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G6 Portland place, London, W1N 4AD UK

2) 건축사 훈련에 관하여(On the Training of Architects) - 프랑크 아스만(Frank Assman, Germany)

독일 건축사협회(BDA)의 위원(Board Member)인 건축가 프랑크 아스만은 협회 부회장인 위르겐 브레도브와 함께 준비했던 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 건축을 수행하는데 일반가가 필요하지 아니면 전문가가 필요한지? (Do we want to have 'General Providers', or Specialist?)

- 대학교육과 전문직업으로서의 실무 (University Education versus Professional Practice)

- 자격을 갖춘 건축교육을 위한 10가지 의제 (Ten-point Agenda for a qualified Architectural Education)

- 건축학교/건축학부의 교과과정에 대해 (The Curricular of Architectural Schools/Faculties)

- 건축학부예의 도전 (Challenges to Architectural Faculties)

- 계속교육에 관하여 (Invitation to Postgraduate Studies)

그는 건축이란 사회문화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0가지 의제중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은 건축이란 디자인과 기술이, 예술과 시공이, 생각하는 것과 만들기가 각각 구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피력했다. 건축을 공부한다는 것은 반드시 총체적이어야 하고 모든 부분을 종합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했다.

원래 프로그램에는 다섯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참석자들간의 토론이 있었다. 내용은 건축교육은 초등학교때부터 해야된다고(RIBA)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릴 적부터의 교육의 일환으로 'BEE(Built Environment Education)' 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RAIA), 아프리카의 경우는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시아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정도

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축사가 있어왔던 나라와 최근 30~40년 사이에 건축사(제도)라는 것이 생긴 나라, 그리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로 구분되므로 건축교육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늦게 참석한 독일의 후베르투스 슈프룽갈리(Hubertus Sprungala) 교수가 새 천년의 건축교육(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next Milleniu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도중 아카시아관계자 협의차 자리를 뚫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비는 아니지만 북한측 평양의 조선건축사동맹의 리기원 교수가 '실무교육-능력있는 건축사(Practical Education-An Able Architect)'라는 제목의 글을 부주제발표에 기고하였다. 내용은 건축설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론과 병행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하였고, 많은 능력 있는 건축사들을 훈련시켜 영원히, 고유양식의 건축창조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 2. UIA/UNESCO Charter-All Directors : 25일 오후, BICC 3023실, 워크프로그램

페르난도 갈리아노(Fernando R. Galiano, Spain-제1지역)의 사회로 각 지역 교육담당 건축사/교수들이 UIA/UNESCO Charter의 후속작업에 대해 발표를 했다.

1) 패러다임 변환기의 계획 및 건축교육 (Planning and Architectural Pedagogy in a time of Paradigm Change) - 아쉬라프 살라마(Ashiraf Salama, Egypt-제5지역)

UIA/UNESCO 교육현장의 후속작업인 건축교육위원회의 워크프로그램 보고서를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건축교육에 관한 도큐먼트"라는 소책자로 제출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건축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다.

Dr. Ashiraf Salama

Misr Development Co. Zone 1-Bldg-Apt27  
Sheraton Heliopolis, Cairo -Egypt

E mail: <ash.bera@gega.net.>

2) 제4지역의 교육문제(Education Issues in Region IV)-루이스 콕스(Loise Cox, Australia-제4지역)

1998/99년 오스트레일리아건축사협회

(RAIA)와 학생조직망(SONA, Student Organisation Network for Architecture)의 연계작업으로 수행한 제4지역 내의 아이디어 공모전의 결과를 소형 팜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였다. 주제는 "천년: 건축의 미래에 대한 학생 의제들(Millenium: Student Agendas for Architectural Futures)" 이었고 홍콩대학, 사우스 웨일즈 대학, 와세다 대학, 뉴 델리대학, 시드니대학, 멜버른 대학, 하노이 건축대학등의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전시회의 내용이었다.

3) 교육현장의 이해(Understanding of Charter)-알렉산드루 산두(Alexandru Sandu, Romania-제2지역)

러시아의 알렉산더 쿠드리아체프(Alexandre Koudryavtsev)교수와 공동으로 발표를 하였는데 가르치는 것과 실무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4) 교육현장의 후속-엔리코 리오프리오(Enrique Vivanco Riofrio, Ecuador-제3지역)

콜롬비아의 사라 마리아 기랄도 메지아(Sara Maria Giraldo Mejia)와의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지난 98년 두 명의 부회장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5개지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장의 후속연구를 한 것이다. 각지역의 발표가 끝난 후 토론에서는 대체로 이 현장은 유일한 국제적인 문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수정 및 보완을 해야하고 무엇보다도 급선무는 실천에 일단 옮겨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이미 채택한 학교가 있는지? 한 초항이라도 사실 채택되었는지?/ 각국에서 이미 채택했는지? 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이 현장을 실행에 옮기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3. 아시아에서의 건축사라는 직업과 교육의 재조명 (Review of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ducation in Asia-Arcasia Forum): 26일 오전, BICC 1021실, 포럼

특별히 마련된 아카시아 포럼으로 아카시아 회의시 낮익은 얼굴들이 모여서 발표했다. 한편 동시에 다른 방에서 일본건축가 타다오 안도의 강연이 있어서 스타건축가를

보려고 모두 그곳으로 몰려가는 바람에 회의장은 관련자들 뿐이었다. 로날드 पू(Ronald Poon)과 피 카시(P. Kasi)가 공동 사회를 맡고 와르디(Wardi), 배리 윌(Barry F. Will), 테이 쉹순(Tay Kheng Soon) 윌리엄 림(William Lim)이 발표를 하고 다토 하삼 알바크리(Dato Hisham), 타오 호(Tao Ho) 및 인도네시아의 수마리잔토, 인디아 건축사 등이 합류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와르디는 실무와 인증 그리고 연구(Practice/Accreditation/Research)에 대해서, 배리 윌은 '건축실무(Practice of Architecture)'에 대해서, 테이 쉹순은 '개인과 사회(Personality and Society)'에 대해서, 그리고 윌리엄 림은 '건축과 관련된 문화적인 사항들(Cultural issues relating architecture)'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토론 내용중 공감하는 항목들을 약 20개 정도 추려서 좀더 발전시켜 올 가을 서울에서의 아카시아 포럼에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주 내용은 건축사의 영역을 넓히는 일과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건축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건축사의 역할 및 건축교육의 주안점 - 핵심을 경쟁력 있게

1. 주거단지나 지방의 건물들 등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건축의 필요
2. 건축사(Architect) 교육을 실무이상으로 확장
3. 건축사의 전문분야화 및 차별화-등록 및 인증제도의 구분화 필요
4. 시공 및 기술에 역점을 둔 교육의 필요
5. 교과과정의 우선순위화
6. 통합, 훈련, 지속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필요
7.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조절-살내설계, 도시설계, 환경설계 및 PM의 포함
8. 이론보다 실제에 비중을 두는 교육의 필요
9. 기능보다 중요해지는 상징성 고려
10. 전문지식 결여에 따른 직업의 취약성 보완
11. 용역비와 입찰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절
12. 업무수준의 지속성 요망
13. 건축사 역할에 역점을 둔 교육
14. 교과과정 축소에 따른 문제점 보완
15. 입학당시의 수준 및 지질 향상
16. 건축학교의 독립의 필요성
17. 교수 부족의 해결
18. 스타건축사가 아닌 일반건축사들의 배출에 역점
19. 이웃과 사회속의 건축사의 역할
20. 정치적인 영향 축소

#### 4. 여성건축사 및 여성도시계획가 학술발표회(Women Architects and Women Urban Planners): 26일 오후, BICC 3023실, 포럼

베이징시 여성건축사회가 주도하여 국제건축사연맹의 회장이신 사라 토펠슨 여사(Sara Topelson de Grinberg)를 모시고 중국의 루오 샤오웨이(魯曉薇)가 의장으로 진행을 했다. 사라여사는 일찍 자리를 뜨고, 발표자가 너무 많고 주제가 다양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발표회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여성전문가들이 나와서 각종분야를 대상으로 학술발표회를 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특히 칭화대학의 노 여성교수의 힘있는 강의와 내용의 전문성은 중국의 여성 후배들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고있는 듯이 보였다. 또한 베이징 건축설계원의 자오징자오(趙景昭) 여사가 발표한 중국의 여성건축사의 역사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중국 최초의 여성건축사는 량쓰칭(梁思成) 선생의 부인이었던 임휘인 여사로 1924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중국에는 문화혁명 이후로 여성전문가들이 많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다른 학술발표회를 듣고 싶었지만 우리 나라 여성건축사들에게 자료라도 가져다 주려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다. 통역이 없이 중국어로 진행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은 자리를 다 뜨고 말았다. 마침 내 옆에 앉은 여사께서 중요한 부분을 통역을 해 주어 고맙웠다. 또한 1988년 미국 여성건축사 100주년 기념회의때 자오(趙)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에 필자가 나와 일어서서 소개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한국을 상기시켰다.

이상과 같이 대회 및 총회는 김지덕위원 및 이정근 위원과 함께 참석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따로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다. 이번 회의 참석중의 성과는 아카시아 포럼준비에 통신상의 어려움이 있던 부분들을 베이징에서 당사자들을 만나 해결한 점이 좋았다. 교육위원회 워크샵의 포맷을 전면 수정하고 연사도 정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희생했지만 보람이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비용을 떠나서 숙소가 대회숙소였으면 다른 나라 참석자들과 오며 가며 서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을텐데 하는 점이었다. 앞으로는 회의에 좀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고, 회의 뿐 아니라 지역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국제건축사연맹 대회학술지에 논문도 많이 내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하도록 해준 협회에 감사한다.

## 건축사의 꿈, 사이버공간의 건축

### Architect's Dream, Architecture in Cyber Space

신유진 /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가상현실 건축연구실 교수

by Shin Yoo-Jin

혁명이 일어났다.

인류 전체에게 지금까지의 어떤 혁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정보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현재 정보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인터넷은 이제 전화와 같은 사회적 매체이며 가상세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생활에 제공할 것"이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급속히 우리의 일상생활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를 정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만 느끼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건축설계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정보혁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희망을 전해 주려고 한다. 정보화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며 필자가 얘기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할 현실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활동은 물리적인 현실 영토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정보고속도로로 불리는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가상공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부가 최근에 발표한 '사이버 코리아 21'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2년까지 4년간 28조원을 투입해 정보고속도로를 앞당겨 구축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2002년에는 전국민이 지금보다 1백배이상 빠른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1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 200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는 근거리통신망(LAN)과 인터넷 연결이 완료되고 행정기관간에 수직업무로 제공되는 주민정보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각종 증명서류 제출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우체국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32종의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해진다.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가적인 준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인간의 활동무대가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넘어가는 정보화사회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건축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

건축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건축은 인류에게 단순히 비비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마다 새롭게 요구되는 인간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산업화사회까지 모든 이러한 건축행위는 '현실'에서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산업화시대까지는 인류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실'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가상현실'이란 새로운 공간이 인간에게 제공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커다란 변화이다. '가상현실'은 그 단어가체가 엄

청년 모순이다. 그러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상현실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즉 인류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난 것이다.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같이 만들어내어 인체의 모든 감각기관이 인공적으로 창조된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CYBER SPACE'가 바로 가상현실이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출현이 건축사들에게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다.

이러한 가상현실의 출현으로 인하여 - 단순히 비비람을 막아주던 안식처였던 원시 수렵사회의 건축을 제1세대, 농업사회에서의 건축을 제2세대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의 건축을 제3세대라고 할 때- 이제 '제4세대 건축' 즉 '정보화시대의 건축'인 '가상현실에서의 건축'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혹자는 가상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가상현실을 그저 좋기는 하지만 무척이나 비싼 프리젠테이션 수단으로 알고 있다. 즉 설계가 끝난 건축물을 현실에 지어지기 전에 미리 가상현실에 지어서 현실과 같이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미리 둘러보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얘기하는 가상현실은 현실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며 현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문용어로는 그룹 가상현실이라 불리는 이러한 가상현실이 출현하였다. 가상현실의 구현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발전 속도 또한 눈부시다. 그러나 제4세대의 실속을 하기 위한 가상현실 구현

기술은 반드시 인터넷같은 다중이 접속하는 망에서 별도의 특수한 장비가 필요없이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는 미국의 CoF사가 개발한 Active Worlds가 아직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PC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별도의 특수한 장비가 없어도 가상현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Active Worlds는 단순히 가상현실만을 구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분신처럼 움직이고 말하는 캐릭터(아바타)를 설정하여 통신망에 접속한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접속한 또 다른 사용자와 각기 다른 모습의 캐릭터로 만나 서로의 캐릭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Active Worlds의 등장으로 비로소 교육, 쇼핑, 업무, 공연, 영화상영, 전시, 교육, 의료 등 현실세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싸고 간단하게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화시대까지는 'Atoms', 즉 물질이 교환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는 물질이 아닌 정보, 즉 비트(Bits)가 교환되는 시대이다. 산업화시대까지 '물질이 교환되는 장(場)'으로 쓰인 것이 현실세계에 구축된 '도시'와 그 도시 속의 '건축물'이었다. 산업화시대까지 '물질이 교환되는 장'이 필요했듯이 정보화 시대에도 '정보가 교환되는 장'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정보(BIT)가 교환되는 장'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 속에 구축될 '가상 도시'와 그 도시 속의 가상 건축물'이다. 정보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가상도시는 그저 평면적인 웹 페이지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래서 흔히 컴퓨터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도시의 구축을 해 왔다.



최초의 제4세대 건축인 AVR 쇼핑마을의 중앙광장 : 필자의 연구실에서 CoF사의 Active Worlds를 이용하여 구축한 쇼핑마을의 중앙광장에서 본 전경. 금강산을 배경으로 중앙광장에서 방문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1998년 12월에 완공된 최초의 가상현실 기반의 쇼핑마을 가상현실 건축연구실, 영화 마을, 유리공원, 방문객끼리 즐길 수 있는 바이크 경기장이 있는 이 쇼핑마을은 필자의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Active Worlds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  
( <http://explore.kwangwoon.ac.kr/~a01jo> )

그러한 가상도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축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개개인이 혼자서 글이나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림 가상현실 기술의 출현으로 단순한 글과 그림이 아닌 현실의 건축물을 대체해서 완벽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였다. 그 공간은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들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없는 물체이지만 이를 감지할 수도 있고 이들의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이를 변형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등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즉 현실과 똑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시대에 물질이 교환되는 장을 현실에서 건축사들이 만들어 주었듯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교환되는 장을 만드는 것도 역시 현실과 꼭 같은 가상현실에서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상현실에 건축을 하는데 무슨 건축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건축적 개념이 있는 가상현실 건축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제대로 된 가상현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다른 가상현실의 제 조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따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현실과 다른 가상현실의 제반 환경, 가상현실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 가상현실 건축에서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없에서는 안 되는 현실 건축에서의 숨겨진 기능들, 가상현실에서의 인간의 공간 및 형태 인식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 그에 따른 단지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을 세우고 필요한 기능들을 선별하여 각 필요한 기능을 갖는 공간들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건축적 개념이 없는 일반 컴퓨터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상공간은 단순히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이 된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건축은 단순히 보고 즐기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그곳에 실제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현실 공간과 똑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은 결국 실패한 건축이 된다. 실패한 건축은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조직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미 상무부가 최근 발간한 '떠오르는 디지털경제'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이용자수는 내년까지 5억명으로 늘어나고 2002년에는 인터넷 상거래 규모가 3천4백9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5천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라디오는 38년, PC 16년, TV가 13년이 걸린데 비해 인터넷은 불과 4년 만에 이를 이루어냈다고 이 책은 분석했다. 그 만큼 인터넷의 팽창속도는 위력적이다. 그러나 미국 시스코사의 존 챔버스(John Chambers) 사장은 "전문가들은 2002년에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총 4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숫자가 최소 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세계적으로 5%의 상거래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2010년까지는 25%에 이를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6개월간의 일입니다. 아마 현재 미국 기업의 50%가 새로운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인터넷과 관련하여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무의미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불과 1, 2개월 전의 전망이 틀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만

AVR소형물의 내부 풍경 :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방문객들이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다. 매장 중앙의 초록색 기둥은 2층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텔레포터이다. 가상현실에서는 현실에서 만들 수 없는 이런 장치들도 만들 수 있다. 바이크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방문객의 모습도 보인다.



64 인

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발전 속도가 예측을 불허하게 빠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인터넷관련 예측 자료는 아마도 모두 새로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예측자료는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를 근간으로 하여 예측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현실건축을 대체하는 인터넷상의 가상현실건축이 이렇듯 단 시일 내에 실현될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2차원적인 홈페이지로 이루어져있는 인터넷이 가상현실건축으로 이루어지는 가상도시로 바뀌면 그 성장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현실 건축을 대체하는 가상현실건축으로 제일 먼저 실용화가 될 것은 요즘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종 쇼핑몰이나 상점, 은행, 증권회사 등의 상업시설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학교 등의 교육시설,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 정부 시청 구청 등 관공서,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일반 회사들이 가상현실에 사옥을 짓고 모든 업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듯이 가상현실에 개인주택도 지을 것이다. 즉 현재 지구상의 모든 건축물들의 수보다 더 많은 건축물이 가상현실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인류가 수백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놓은 모든 건축물보다 더 많은 수의 건축물이 수십년 안에 가상현실에 지어져야 하므로 가상현실 건축의 수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분야가 건축설계분야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에서는 건축사를 괴롭히던 가장 큰 문제, 즉 중력이 없다. 그러므로 건축사들이 구조의 문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하고 싶은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축재료에 있어서도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현실에 지어진 건축물은 인류문명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껏 지어졌던 어떤 건축물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그 형태의 공간을 즐기는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치 공업제품처럼 먼저 지어놓고 건축주를 구할 수도 있으며, 좋은 디자인을 대량 복제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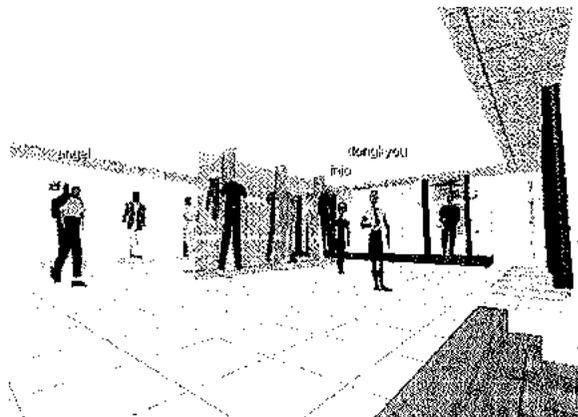
이 모두가 얼마나 건축가들에게 환상적인 일들인가? 무한한 일거리와 완벽한 자유, 작품의 영원성, 무제한의 방문객, 건축주가 없어도 가능한 작품활동, 대량 판매의 가능성. 직업인으로서도 예술인으로서도 건축가에게 어떤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있는 우리가 흔히 가상공간이라 부르는 인터넷에는 인간이 없다. 교환되는 정보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요, 그 정보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정보를 주고받는 순간에는 인간과 인간이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기계를 상대로 주고받고 있다. 이렇듯이 정보화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의 교환이 인간이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도 그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다. 자칫하면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기 쉬운 정보화시대에 인간이 주인공임을 느끼고 정보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가상현실에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상현실에서의 건축이며 정보화시대의 건축사의 사명이라고 필자는 굳게 믿으며 '이제 제4세대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건축사 여러분에게 알린다.



가상현실에 지어진 개인 주택의 내부. 필자의 연구실에서 운영중인 쇼핑몰 마늘에 있다.

64 인



쇼핑마을 의류상점 실내 전경

64 인

## 건축사들의 푸념

### Some Complaints from the Architects

#### 건축사 이려다간 다 죽는다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이 세상에 제 값 없는 것이 어디 있나.

모든 사물에는 제 각기 다 값이 있고 심지어 사람의 값도 정해져 있거늘... 라면값에서부터 옷값, 집값까지 공급자의 원가계산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그 범위내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유독 건축설계비 만큼은 기준이 없다. 아니 없어졌다.

건축주에게 알아서 받으라는 것이다.

종전에 기준이 있을 때도 제 값을 못 받았는데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할지 모른다.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가격제한 철폐는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시대 문화의 산물이라는 건축설계 행위가 백화점의 가격정찰제도는 고사하고 시장 모퉁이의 싸구려 물건고르기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싼값의 덤핑 설계는 설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없다고 해서 의료비를 덤핑하지 않는다. 또 제도적으로도 용납되지 못한다. 생명을 다루는 측면에서 의료비를 적정가격이상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사가 개개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건축사는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이상 설계비를 덤핑한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중 한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에 맞추어 부실설계를 하겠다는 배짱, 아니면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감수하고 그야말로 희생적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밀치고 설계해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혹자는 생방간에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어느선이고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극심한 건축활동 침체기 (사실상 IMF시작 몇 년전부터 계속)에 일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건축사 숫자는 상대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 건축사 입장에서 아무리 적정 설계비를 건축주에게 제시한다 해도 건축주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저기 복덕방처럼 난립

되어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돌아다니며 가장 싼 설계비를 제시하는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건축주는 건축사사무소를 유람(?)하면서 혹은 건축사를 불러들여 계획설계안을 다 뽑아간다.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설계안을 가지고 다른 사무소와 최소한의 수고비만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부도덕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지적보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주와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건축사사무소는 건설회사의 영향권 아래에서 건축 설계를 수주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건축사사무소가 하도 많다 보니 1개의 건설회사에서 수개의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가격경쟁을 조장하여 최저가에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어느지역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는데 공사를 맡길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A, B, C, D, 네 개 회사와 협상을 하다보니 계획설계안이 30개가 나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건설회사에서 평균 7개의 건축사사무소에 계획설계안을 받아 본 셈인데 건축주 및 일반인들 눈에는 그것이 종이값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실제는 종이값조차 대가를 받지 못함) 거기에는 몇날몇일 머리를 짜내서 마련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어찌보면 건축설계행위는 계획 초기의 구상이 더 중요하고 힘든 작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줄 생각을 얹으니,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는 풍토하에서 건축사 또한 받을 엄두조차 못내고(실제 계획설계비를 요구하면 주기는 고사하고 거래처를 옮겨버림)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막심한데도 병어리 냉기슴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설계를 다 하도록 계약도 하지 않다가 끝에 가서 설계비를 무지막지하게 후려쳐거나 다른 사무소와 계약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실제 계약후에 그런 경우도 있다.

관급설계라고 해서 별로 나올 게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형편없는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부가세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입찰, PQ, 현상설계 등의 방식으로 발주하는데 입찰의 경우 위약에 일이 없다보니 몇천만원 짜리 설계용역 입찰에(3천만원 이상) 5~6백여개씩 몰려들어 복새통을 아룬다. 제출서류는 왜 그리 많은지, 발주처에서는 받아 놓은 서류가 몇상자씩 쌓인다. 시간낭비에다 돈낭비다. 그러나 멀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복권당첨보다 힘들다. 게다가 전력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이 설계용역 입찰이나 심

지어 현상설계 등록시 전기용역업체와 함께 공동수급해야만 가능하도록 건축사들의 발목을 붙잡아 매고 있다. 전기용역 등록업체가 건축사 등록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어(10% 정도) 나머지 90%의 건축사들은 등록조차 할 수 없는 불공정한 입장에서 전기용역업체 서로 모시기에 이미 자존심은 냉랭겨친 지 오래다.

경쟁력도 좋고 서비스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두가지 다 기대할 수 없다. 경쟁력도 형편에 맞아야지 가능한 것이고 서비스질 또한 내자신이 존중받는 입장에서 가능한 것이다. 건축사는 대가없이 무한점 서비스를 해야만 하는 직업인가?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제 모두들 지쳐 꾸념조차 할 기운도 없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그 타격은 건설회사 보다는 건축사에게 가중되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건축사 숫자를 3~4배 가량 더 뽑기 시작했다. 30여년동안 배출한 인원과 동일한 숫자를 4년만에 늘려놓은 것이다.

근시안적, 탁상행정의 폐해가 지금에 와서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설계와 감리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정부에서 그토록 내세웠던 부실공사방지 또한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살을 깎아 먹어야 하는 과도한 덤핑행위가 우리 업계에 만연해 있을 뿐이다. 이래 가지고는 건축사 모두가 동반침몰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 협회에 바란다

이제부터 무엇인가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설계, 감리비에 대한 정부고시가격이 없어졌다고 하나 협회에서 만큼은 적절한 가격기준을 만들어 설계·감리비 제값 받기 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계획설계비의 지적보호권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두어 제도적으로(계획설계 신고 또는 등록제 등)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급공사설계용역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입찰방법의 간소화 방안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적·물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의도로써 생존적 차원에 처한 우리의 절박한 심정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계·감리의 질 향상, 부실공사 방지는 그저 허공속에 사라지는 메아리없는 외침일 뿐이다.

## 20세기를 마감하는 건축의 근원을 찾아서

### An Origin of Architecture in the Closing of the 21th Century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지금 세계사적 화두는 인류문명의 총돌과 분출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은 20세기 역사의 끝마무림의 시대다. 자본주의부터 첨단적인 과학기술 및 경제와 과학의 논리법칙에 이르기까지 개인이든 집단이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 있어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지향에 있어 지난 동서분열 35년 소련의 붕괴는 흥분과 긴장 속에 냉전의 소멸은 믿을 수 없는 자본주의 승리다. 이 시대에 세계인의 경쟁과 대항 주체는 "문명"이다. 헌팅턴의 문명의 개념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그 문명의 개념은 인류문명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전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세계변화의 가속도는 정보통신과 더불어 절대적인 기계화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불복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기 시작한 삶의 자연·인간·건축 또는 예술·과학·기술의 하나임의 틀림없다. 따라서 하나임은 분명 미래의 삶에 결정적 요소이다.

세계인속에 자본의 무한경쟁은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부양하지 못하고 삶의 고통과 절망으로 적대심에 부딪혀 매우 어려운 삶에 생명의 구성원으로 땅을 일구어먹고 땅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땅속에 작은 미물까지 이 땅위에 주인이 누구인가? 냉전적 무기생산은 중단되고 가난의 한계에 달하여 굶주린 그들에게도 욕심과 탐욕으로 물질 중심은 토지·자본·노동분배를 둘러싼 자본의 갈등이 이동되고 물려간다. "상생과 상살을 부르는 토지리" 자본에서 성장하는 도시적 형태는 농촌을 무력화하여 자유로이 인류문명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태어났다.

『한 TV에서 방영됐던 멕시코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새로운 개발을 위해 30년이상 고향을 지키고 생활의 삶에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산타테마을 사람 그곳에 외국자본에 의존한 산타페 상업센터가 들어섰으나 그 이웃에 마르카리타(들국화 마을)까지 큰 위협을 산타페 마을인의 보금자리 지키기 또한 들국화 마을인 생활의 삶에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의 고통은 사람의 삶이 멀어진다. 미국상품 점유율의 멕시코시장 76%차지하고 있음은』 있는 자의 의혹현상은 약한자의 미평한 권리가 상실될 것이다.

대국과 소국은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문명의 경쟁은 어떤 형태라도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지혜는 가난한 자가 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있는 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가난의 평등에서 상향평준화의 경쟁을 기르는 것이 단지 몸집만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경쟁이란 새로운 삶의 상상력으로 강자는 이기고 적자와 더불어 산다는 자유와 평등의 선택은 삶의 편중에 모순들로 문화의 존엄성, 필요성은 결국 경쟁에 있어 경제·사회·정치를 문화가 조정자로 자리를 메꾼다. 진정한 공동체의 꿈은 타임머신을 살고 가는 시간·공간적 획으로 밀레니엄의 꿈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며 한없이 무한하다. 그 꿈속에 우리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균형과 조화로 우리는 숨겨진 건축가와 보여주는 건축가도 많다. 서양의 하이테크적 형이상학기술은 대립·갈등·투쟁관계는 경쟁의 전쟁으로 부추기 경제정의로 일축되고 있으나 화합·융화·조화 등양의 자연관은 사회정의로 남을 인정하고 하잘 것 없는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의 보다 사회 정의가 생긴 것이다. 지나가는 천년과 다가오는 새천년의 의미는 꿈을 현실로 펼쳐 진정한 인간의 삶의 행복과 평화에 온 지구인의 real time에 영혼의 빛으로 인간 마음속의 정서적DNA를 찾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마음으로 통하여 찬란한 건축문화의 새 천년을 기다려본다. 건축이 인간의 삶에 질과 친화적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새로운 탈 이념에 반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구촌에 아파트 개발의 업적은 그리스의 변화가예, 로마에, 18세기후반 산업혁명으로부터 토지·자본·노동의 출현으로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과 과밀화는 인간의 삶에 양과 질은 도시·농촌에 흥한 건축, 무분별한 개발로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보이지 않는 기에는 천기시상의 가치가 하잘 것 없는 삶의 질을 요구하는 의미는 아닌지?

건축·도시의 창출로 자본계급과 노동의 계급 관계로 착취적인 분배의 삶과 물질을 변화시키고 세계적인 만리장

성은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는 무엇을 던지고 있는가?

아마도 진시왕의 의지성찰이 개인에 축적의 가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길이가 총 2,400km로 건설된 요새로써 몽골로부터 침침을 막기 위한 성은 우리의 대규모 아파트(취족 아파트 평당 분양가 1,000~2,000만원)개발이 만리장성의 양과 질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대항화, 경제적 자본논리에 삶의 중심 축이 있어 사용의 시스템보다 소유개념은 우리 건축의 본질적 양태는 위태롭기만 하고 그 반면 긍정적 차원 순환은 재해석적 정형화 유형의 보편성과 창작성 이론만이 현존하는 시대이념을 바랄 뿐이다.

현존하는 물질 사회중심에서 생태적 사회를 외면한 삶의 원류가 너무도 사치와 오만은 귀족성의 개발물로 유행하나 그 유추는 인간의 욕심에 결핍 끝없는 무한경쟁의 승리의 모델로 망각과 쾌락의 자태로 잉태할 것인지. 가난한 자의 인정을 외면하여야 하는 상류층계급 집단을 한 부분의 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부와 빈이 열려 있음이 또다른 진정한 삶은 상류층과 하류층 거기에서 동등한 분배에 생태적 삶이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건축의 생명력은 잃었다. 건축의 죽음 —인간의 죽음 —자연의 죽음 —지구의 죽음 —우주의 죽음 —민물의 죽음을 끝없는 연계의 죽음으로 보잘것 없는 들꽃풀이 생명까지 견디지 못한 인권의 계약들로 사물대상의 주권이 인간위주의 삶에 주체분열로부터 대자연계약이 무방비로 비참한 삶을 누려야 했던 공생의 삶은 인간이외의 생명의 주체가 동등한 자유, 상호간 균형 유지가 공통적 삶의 방식에 있어 파연 아파트 개발은 주거환경에 혁명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속성을 가지는 주거건축으로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등지로서 다음세대의 문화유산으로 남길때 그 또한 경제·사회·건축의 부작용은 만리장성과 다를 바 없다. 만리장성은 자연과 친화적이고 인간의 삶과 멀리 느껴지지만 오늘 사이버 공간시대에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는 인간을 담은 용기의 주거 기능으로써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긍정 요소로 주거기능의 질과 양은 만리장성을 능가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만리장성의 역사성 문화성보다 보호를 받을 만큼의 시대정신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경관은 자연과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다운 이미지로 교외지에도 풍해로 태어나고 있다.

자연권에 대한 설정이 인권과 동시에 인정되고 동등한 주체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변화하려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고 지식인 비평과 논리는 확고한 학문과 창작의 질서들로 세계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이론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만이 건축을 지킬 것으로 본다. 혹시 초엘리트들의 영역으로써 전체건축의 본질을 잠재우고 있지 않는가?

혹은 건축의 지식인으로 하여야 할 건축의 근원을 찾지 못한 우리 건축가 역할을 묻고싶다. 기존의 건축이 새로운 변화의 삶에 기능과 적응하지 못하였을 때 건축가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축의 본질을 지키려는 소수쟁이들이 잃어버린 작품성 곧 건축의 잣대였을 뿐 안과 밖의 망물에 싸여 흐름과 생명이 "건축" 아닌 "건물"로 파악될 때 오히려 "건축"과 "건설" 정의가 그 의미 투명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더 넓은 영역의 자리매김을 지킬 때 그 반성의 질곡에서 혹시 조화스러운 통합시스템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건축의 본질을 구태여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나나 문제로써 건축문화의 넓은 영역을 누가 총체적 건축의 의미를 던질 수 있겠는가?

건축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는 복합장르가 건축의 한 작은 문화로 자리를 매꾼다. 인류는 저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활과 풍습이 다르지만 글·말보다 마음의 감정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건축도 글과 말 의미도 중요시 하지만 역시 창조적 표현은 작품을 통해 건축이념의 영역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건축의 면모를 실망스럽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우선 자연을 손상하지 않는 생태 시스템만이 현대건축의 기초를 넘는 지구촌의 구성으로 인간의 활발한 삶에 여명을 자리함게함을 태양은 형, 달은 아우, 우리의 지구와 한 형제였다. 금세기 모더니즘도 우주상의 만물의 발전과 재창조의 현실을 잃었다. (조형론·의장론·작가론·형태론·공간론·비평론)아름다운 이념 이전에 생태시스템(생체적·생물학적)은 보이는 건축보다는 보이지 않는 건축의 본질 존재이다. 우주생명과 호흡으로 더 큰 에너지로 태양의 유용성, 바람의 흐름, 빛과 어두움의 적절한 대비에서 색을 끌어들이고 열과 수환경 불가피성 그리고 더 큰 시스템(축각·청각·후각·질 의 인지)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이 곧 신지혜가 아닐까?

잃어버린 건축·도시를 기억하고 자연을 인정하는 관계로 다시 소리가 들리고 인간·자연·건축이 단절되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지탱할 수 있는 건축 근원을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건축을 통해 세상의 깊이를 얻는 것이다. 이 시대에 건축의 걸어온 보수적 역사와 진보적 존재는 노력없는 다만 건축가의 혼일 뿐인 장인정신과 건축가 에릭 오웬 모스의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감상의 발언, 그것은 악마의 끊임없는 변신이다. 그것이 건축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금은 미숙하지만 실현의 고통을 호소하자. 그래서 구경거리가 많은 건축을 만들고 삶의 생명도 창조하는 자연에 효를 다하므로 건축의 길, 인생의 길, 우주의 길 수많은 앵콜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 현명한 CAD S/W의 선택

### A Wise Choice on CAD Softwares

조민행 / 오현 · 삼 · 구성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 Min-Hyaeng

어느 날 신문지상과 방송매체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니, 정부기관이나 심지어 단속 책임을 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조차도 불법복제S/W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런 조치는 우리 나라가 WTO와 선진국의 사랑방이라는 OECD에 가입할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 아니었던가 싶다.

우리 건축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반사무실들 보다 고가의 CAD S/W를 사용해 작업해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고 그 심각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이 드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노파심이 작용한 것은 아닐텐데, 주변에서는 너무나 태연한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몇몇 지방에서는 불법S/W단속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을 내게되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하고 보면 팔자만의 소심함만은 아닌듯 싶다. 더군다나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에게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어느 정도 불법S/W를 사용하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걱정을 지나 불안하기까지 한 것이 요즘을 심정이다.

불법복제S/W하면 막연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CAD 및 CAD와 연관된 지원S/W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 생각된다. 그러나 불법S/W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광범위해서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모든 비공개S/W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PC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WINDOW 및 DOS를 비롯하여 사무용에 필요한 한글, EXCEL, CAD, CAD관련 지원S/W, 심지어는 게임 S/W 등에 이르기까지 각자 개인의 사용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많은 S/W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가장 고가인 CAD가 아닐 수 없다.

CAD가 제도관을 대신한지도 15년 이상이 지났다. CAD를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급된 것 또한 사실이다.

컴퓨터와 CAD, 참으로 고마운 물건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필요성 뒤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다. 15년 전 우리는 너무나도 컴퓨터의 속성을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의 상업주의에 편승하여 손쉽게 비용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막연한 관념으로 하나의 회사제품에 길들여지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우리는 근래 몇 년 동안 연중 행사하듯이 그들의 상업주의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고 지금도 지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에 처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개략 한 회사제품이 90%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에서 우리의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을지, 그들의 국가에도 우리와 같이 풀버전만 공급하고 있는지,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며 종속되어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는 CAD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현명한 대안을 위한 몇 가지 기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자신에 맞는 S/W의 실제 파악부터 하자.

우선 CAD는 고가CAD와 저가CAD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고가CAD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2D기능작업에 충분한 3D기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CAD라 한다면 이와 달리 저가CAD는 2D작업기능에 간단한 3D기능과 몇 가지 편리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계작업은 저가CAD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주로 2D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별로 쓰지도 않고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고가CAD를 사용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닭 잡는데 소 잡는 도끼 들고 닭을 잡은 꼴이 된 것이다.

둘째, 컴퓨터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우리가 CAD를 처음 접했을 때는 DOS환경에서 작업하는 컴퓨터환경이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무실에서 DOS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WINDOW환경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DOS환경에서의 S/W 및 주변기기를 이제는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싫다 하더라도 WINDOW환경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길은 오로지 지속적인 관심만이 해결책이라 보아야 하겠다.

셋째, 기술종속 및 상업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제품에만(90%이상으로 추정) 편중하여 기능 및 가격, 사후관리(After Service) 면에서 선택권을 상실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녔다고 생각된다. 과연 어느 나라에 우리처럼 한 제품이 90%이상 시장을 점유한 나라가 있었는가? 우리만의 뼈아픈 현실이다.

그렇다고 컴퓨터와 CAD를 버리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현명한 선택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다행히 국내에서 요즈음 보급되고 있는 CAD

를 골고루 점검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DOS용은 없었고 모든 CAD가 WINDOW환경으로 출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쩔 수없이 WINDOW환경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CAD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접근성 및 호환성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민감한 사항이라 제품명 및 상세한 내용을 기술 못함을 양해 바람.)

## 기능성

고가CAD, 저가CAD할것 없이 모든CAD가 WINDOW환경으로 출시되고 있었으며 WINDOW환경에서의 기능은 저 고가를 막론하고 원활함을 느꼈고, 다만 저가와 달리 고가CAD는 3D기능이 월등했다고 판단되며 저가CAD들은 고가CAD와 달리 3D기능은 약했으나 각자 나름대로의 편리한 부가기능을 갖고 있어 작업성 및 기능성이 양호하다고 생각되고, 특이한 점은 소수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CAD관련 지원S/W가 자체 내장되어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저가CAD도 2D작업이 주가 되는 우리사무실 작업환경에는 무난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접근성

DOS환경과 달리 WINDOW환경에서는 작업창의 크기가 작아져야 하므로 적응하는데 시간이(약 1주일) 필요하다 느꼈으며 단축키 사용 기능은 모든 제품 공히 창안의 환경(Configuration)을 통하여 각자의 습관에 맞게 바꿀 수 있으므로 접근성에 대하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 호환성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CAD와의 호환성 역시 모든 CAD 공히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국산CAD의 호환성이(글씨FONT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월등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WINDOW환경에서는 모든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므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사무실의 작업정도 및 부가기능의 취향, 가격에 맞춰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한가지 주의할 점은 또다시 과거와 같이 기술종속이 되지 않으면서 외국 상업주의에 끌려다니지 않고 고객인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어야 하겠다.

##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In Preparation for a New Millennium

김희곤 / 홍간건축사사무소  
by Kim Hee-Kon

세월의 시계침을 갑자기 거꾸로 돌린 듯 흐흐하기가 곤란해지는 시간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온 것 같다. 현실의 환경에 익숙해지려는 자아와 지난날의 황수에 취해 인주하고 싶은 환상사이에서 부침하는 혼돈속에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산속에 조난당해 죽은 사례중에 스스로 갑자기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한다. 현재의 자기자신부터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이 작금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단초가 된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가 집착했던 공간은 작은 구조물 속에 존재하면서 작은 공간 밖으로의 환상만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양수속에서 산모의 신체일부로서 성장과정을 멈추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산모나 아기 모두 고통의 순간이 된다. 우리도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큰 공간에 대한 작은 깨달음의 고통인지도 모른다. 물리적으로는 집과 집 주변의 자연이 모두 공간이고 그 자연을 보호하는 대기권이 또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기회가 없었다. 크개는 음(달)과 양(태양)이 존재하는 우주 또한 더 큰 공간이라는 것을 단지 분위기로 알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의지해온 제도적 틀이 세계화, 국제화영으로는 이미 낡은 틀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으나 반문해야 한다. 지금의 세계사회는 서로간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공존해야만 하는 또 다른 탄생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 또다른 삶과 세상으로 열리는 진보의 과정이라면 그 고통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를 이해할 때 제일 중심에 있는 가치는 미래를 여는 열쇠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를 복제하거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발견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새로운 이념을 기반으로 성장·발전·소멸되고 있으며,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는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문화는 이념을 뿌리로 사회체제 및 정치를 줄기로 하여 문화라는 꽃을 피운다.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분명 뿌리를 봐야 한다. 우리의 건축문화 또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20세기 전반을 일제강점기로, 나머지 절반은 경제성장드라이브로 숨가쁘게 성장위주로만 달려 왔다. 모든 것에 앞서 경제성장만을 보며 잘살아 보자고 허리띠 졸라맸다.

선진문화를 수입하기에만 급급했던 우리도 여행자유화로 외국문화를 직접 접하는 여유도 가지고 유학세대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시각적으로도 풍족해졌으며, 빠른 정보화로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천일파가 해방이 되어서도 다시 개혁세력으로 웃만 바뀌었고 있는지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한 문화의 성장발전을 대략 250년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화한 문화이념을 정착시키는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 그 반세기 동안 축적되어진 정체성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웃 일본은 패전의 잣대미에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산업사회로 발빠르게 변모하여 오늘날 선진 문화국가로 변모했다. 실패 종든 일본은 스스로의 이념을 기반으로 생산된 현대문화를 세계시장에 당당하게 내놓고 있다. 일본의 건축문화 또한 세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남의 것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도 안되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도 안된다. 무분별하게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의해서 여과될 수 있어야 한다. 당당하게 우리의 것을 발견하고 성장 발전시켜 세계시장에 선보여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세계는 블록화되어가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해체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생겨나고 있다. 어제의 이념이 아니라 내일의 이념으로 서로의 이념으로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까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말형인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핵심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다. 신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같은 계열의 동종번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민주적 시장경제논리를 거부하기 힘든 상태에 와 있다. 자본주의의 첨병인 기업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이념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목적중의 하나가 이윤을 산출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회사의 창업업종이라도 내일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IMF 상황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건축계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다. UIA의 상호인증제도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이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흐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했던 틀을 바꾸고 버리기 전에 우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남은 힘이 있다면 우리 건축문화를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노력 보다는 냉정하게 우리의 틀을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리의 건축법이 문제가 없는지, 일제시대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나 않은지, 제대로 지속적으로 대관 대민 설득을 해왔는지...

우리의 3단체가 그 허물을 찾고 바로 잡는데 쓰여져야 한다. 3단체가 서로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건축문화를 포장하기 보다는 진실을 발견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화는 내성이 약할수록 겉치레에 무뎠던 빈 껍데기만 남는다.

한 문화는 생소소멸하면서 미래로 발전하면서 그 생명을 지속한다.

대대로 역사적으로 문화적 퇴행화 현상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발전의 과정에 놓여 있다.

비평이란 부분도 당연히 건축문화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작품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글로 옮기는 한계를 인정하고 검토할 줄 알아야 하며, 더욱이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나타낼 때도 숙고해야 한다. 허물며 남의 생각이나 작품을 지적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지가 전달되는 데 혼란이 없어야 한다. 법률적인 상식을 들추지 않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객관화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황으로는 곤란하다. 더욱이 감정적 흔적은 더더욱 지양되어야 한다.

한때 기호론이 대두되었을 때도 문자가 가지는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동양철학에세이의 "진리는 몸으로 얻어라"는 부분을 옮겨본다.

환공이 어느날 서재의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뜰에서 수레를 손질하던 늙은 일꾼이 그것을 보고 물었다.

"어르신이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말씀이 적힌 책이다."

"그 성인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군요."

환공이 벌떡 일어서며 칼자루를 잡고 말했다.

"일꾼 주제에 무례한 말을 지껄이는구나. 잘 설명하지 못하면 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그러자 늙은 일꾼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드는 수레바퀴는 너무 꼭 끼이게 하면 잘 돌아가지 않고, 너무 느슨하면 걸 뚫니다. 꼭 끼이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손에도 미음에도 딱 맞는 그 정도를 맞추는 요령을 도저히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녀석에게도 가르칠 수 없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직접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인이란 분도 진정한 것은 말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은 성인의 찌꺼기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몸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또 몸으로 얻어야 한다고 해서 책을 버리고 역사 경험을 무시하라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수레 제조공이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말은 경험을 쌓은 뒤에 얻은 가장 미묘한 직업,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가 유적에 대한 글을 쓸때도 정보를 종합하고 그 장소에 열번이상 다녀오는 수고를 하고, 그 흔적을 발견하는 노력을 한다. 건축사의 작품을 이해할 때도 가능하면 작가의 작품이행과정을 이해하고 현장을 살핀 뒤에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세계적인 건축사나 현재 활동하는 대표적인 외국 건축사들도 30~40대에 독창적인 건축개념을 설정하고 50대 후반 60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개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능하면 총체적 비평(검정과정)이 건축사가 일관되게 정진하면서 수작을 만드는 인고의 과정을 보충해야 하며, 건축지평을 넓히고 더 많은 건전한 담론을 생성시켜야 한다.

겸양지덕을 갖추고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겁게 태산같은 자부심으로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출줄도 알아야 한다. 한 개인보다는 앞선 사람이 남은 사람을 생각하는 실천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작가의 작품은 선비정신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세계적인 거장의 경우 30~40대에 반짝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대 이후 60대에 걸작이 탄생하는 것을 보아왔다. 작가의 작품은 일관된 정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되어선 안되는 것이 일관되게 정진하면서 수작을 만드는 과정에 총체적 비평(검정과정)이 냉정한 이성적 동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친구의 조언에 의해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걸작으로 남아 있는 일화를 알고 있다. 그 조언 또한 비평의 기능이다. 또한 우리도 가능성 있는 건축사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건축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국내에서만 공부했어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대학강단에 서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싹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 건축사들도 국내용인가, 국외용인가 구분짓기 보다는, 세계건축계에서 작품을 전시해도 주목받을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어야 한다. 내용보다 참가 횟수가 프라이드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더이상 우물안의 개구리식은 안된다. 외국의 유명건축사들을 보면 의식적으로 상대 건축사가 쓰는 디자인 방식은 물론 분위기, 재료까지도 쓰지 않는다. 안도의 노출 콘크리트와 마키의 노출 콘크리트가 다르고 이토의 노출 콘크리트가 다르다. 비슷하게 하거나 흉내를 내는 정도로는 우리

의 정체성을 세계시장에서 담보하기는 곤란하다.

우리도 스스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 누가 질되느냐 보다는 좋은 건축가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건축계에서도 음악계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사가 나와야 다음에 또다른 건축사가 계속 나온다.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정진하는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건축이념을 갖추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작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

이토도요의 인터뷰에서 묻어내는 작가정신을 옮겨본다.

“일본의 건축가는 스스로 올라섰다는 포즈를 취하는 건축가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해 어느 지점에 정지한 채 안정을 위한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새로운 것을 추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건축이란 심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타일만을 정해두고 깊이 추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단지 소피스티케이션(sophistication)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50대란 건축가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10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 속에 내면의 충실함과 겸손을 엿볼 수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아울러 세계적인 틀 속에서 우리의 틀을 바꾸어야 할 부분도 있다.

우리 스스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아전투구하는 사이에 세계는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지 않나 반문해볼 때이다.

최근 UIA 상호인증제도는 우리의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증명하고 있다. 늦었지만 낡은 틀과 제도를 바꾸기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개개인의 형편과 이해득실보다 건축문화인프라가 튼튼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 위에 다양한 이념과 시각이 상호경쟁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빌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캐치프레이저로 21세기의 10년은 20세기의 50년과 같은 속도로 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더 멈출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6)

##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Claude-Nicolas Ledoux의 건축이론 ②: Caractère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C-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C-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도덕(인습) 그리고 법제의 관점에서 고찰한 건축)

Emil Kaufmann은 일찍이 1930년대에 De Ledoux bis Le Corbusier (르두로부터 르코르뷔지에)라는 책을 통하여 Modernism의 효시는 Blondel을 위시한 Ledoux의 선배들, 즉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들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Ledoux를 당시 유럽의 주된 지도자적 건축가로 인식된 Le Corbusier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두 사람의 건축활동 및 저술 활동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역사적인 관련성을 잇고 있다. 좁게는 프랑스의 합리주의적 전통, 넓게는 Kant를 비롯한 유럽의 사상가들과 연결함으로써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플라토닉한 사상의 계승자들임을 이 책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

Kaufmann은 Modernism의 효시가 되는 Ledoux의 생각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 \* Baroque적 고전주의의 포기
- \* 프랑스 혁명과 건축
- \* 신고전주의와 19세기 건축의 의미<sup>1)</sup>

첫 번째 지적처럼 우리는 Ledoux에게서 바로크의 전반적 몰락과 아울러 바로크적 고전주의에 대한 강한

\* 본명 김원식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건축사상 가운데 바로크의 채택은 난외의 사항임은 설사리 짐작하거나 찾아볼 수 있다. 고전주의로부터의 영향, Boullée가 취했던 기하학과 대규모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웅장성의 두 가지 특성을 그가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Kaufmann은 그가 Palladio의 영향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도 귀범하고 있다.<sup>2)</sup>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호에서 그 개념의 적용 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적절성을 논하였다. 혁명적 건축가들은 시대적으로 프랑스혁명과 동시대인들이 분명하지만 정치적 노선과 인생역정이 혁명가들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란 시간을 당시의 진보적인 합리주의적 작가들의 사상과 행동에 직접 연관지움은 무리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의 항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다. Ledoux는 계몽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음이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중심되는 Ledoux의 태도와 사상은 모범이 되거나 규범적으로 통용되던 몇몇 역사적 건축의 예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의 인간에게 있어서 중심된 철학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던 유토피아의 사상을 기능적인 가치 등을 가지고 재정립한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책제목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예술, 도덕(인습) 그리고 법제의 관점에서 고찰한 건축)에서 잘 요약되고 있으며 Ledoux가 평소 가지고 있던 전쟁과 사냥에 대한 혐오감, 여성예찬, 사모임에의 취향, 기술발전에 대한 관심 등이 주제에 따라 각기 다른 강도로 반영이 되고 있다. *L'architecture...*는 감정적이며 두서없이 산만하게 기술되어 읽기가 매우 불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사상 및 성향, 그리고 건축 시스템을 논하는 Ledoux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이 책은 원래 5권으로 계획이 되었지만 오로지 일부만이 씌어져 출판이 되었다. 근래엔 이미 출간되어 발표된 1권 및 3권을 위해 마련된 미출간된 원고가 근래에 각각 발행되었다.<sup>3)</sup>

원본 *Architecture*의 1권은 240페이지로 이루어진, 당시 유행하던 in-folio(2절판)의 대형 서적으로 휴대가 불가능하고 운반은 혼자서 들기도 어려운 부담스러운 무거운 책이다. 근래엔 휴대가 가능한 국판으로 축소된 책이 출간되어 보급되고 있다. *Architecture*는 새로운 건축을 주제로 한 책이지만 작가

의 회상, 고백 그리고 그의 건축적 유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배경이 이면에 깔려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생애 내내 이어진 그의 투쟁, 희망, 그리고 실망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비운의 시각으로 기술하며 돌아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론은 건축에 대한 Ledoux의 기본적 시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선 건축의 모든 과제들을 다루는 건축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에 그의 의도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후대의 Owen, Fourier, Howard 등의 이상도시계획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선구적 업적을 고려하여야만 하리라. Ledoux에 의하면 건축은 사회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므로 그는 자기의 책에 가능한 한 모든 장르의 건축을 예시하고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J'ai placé tous les genres d'édifices que réclame l'ordre social...* 나는 [이 책에] 사회 체제가 요구하는 모든 장르의 건물을 수록하였다...<sup>4)</sup> 수록된 각 건물들은 사회계급과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의 화려함을 외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보아 화려함의 정도를 통하여 서로 보복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La maison du pauvre, par son extérieur modeste, rehaussera la splendeur de l'hôtel du riche...* (빈자의 주택은 그 수수한 외관을 통하여 부자의 대저택의 장려함을 더 한층 북돋운다...)<sup>5)</sup>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지는 빈자의 주택과 가진 자의 주택은 정도상 다른 화려함을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화적인 보복 개념에 따르면 건축은 사회적 공존의 법칙을 표현하여야만 하는데 그의 사상에 있어서 Ledoux는 Rousseau의 사회계약론의 이론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i la société est fondée sur un besoin mutuel qui commande une affection réciproque, pourquoi ne réuniroit-on pas, dans des maisons particulières, cette analogie des sentiment et de goût qui honorent l'homme?... Le caractère des monuments, comme leur nature, sert à la propagation et à l'épuration des moeurs: 만일 사회가 상호 작용을 요청하는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인간을 명예롭게 하는 이러한 감정과 취향의 유추를 특수한 주택들에 연결시키지 않는가?... 그 본성처럼 기념*

1)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Équerre*, Paris, 1981, p. 32. 원본은 독일어판이다. cf. Kaufmann, Emil: *Von Ledoux bis Le Corbusier*, Rolf Passer, Wien/Leipzig, 1933.

2) Kaufmann, Emil: *Trois architectes révolutionnaires* (3인의 혁명적 건축가), Les éditions de la SADG, Paris, 1978, p. 143 참조.

3) Ledoux, Claude-Nicolas: *L'architecture considérée sous le rapport de l'art, des moeurs et de la législation*, Hermann, Éditeur des Sciences et des Arts, Paris, 1997. Ledoux, Claude-Nicolas: *Architecture de Ledoux: Inédit pour un tome. II* (르두의 건축: 미발행 3권 원고), Les éditions du demi cercle, Paris, 1991.

4) *Ibid.* p. 1.

5) *Ibid.* p. 1.

물의 성격은 도덕의 전파와 순화에 소용이 된다.<sup>6)</sup>

## 건축의 사회적 위치와 Caractère

### - 건축 및 건축가와 사회

Ledoux는 건축가를 일반 대중을 이끌고 비전을 제시하며 지상하게 교육하는 교육자적인 책임자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건축가란 최고의 엘리트로서 사회의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초급진성의 다른 혁명적 인물들과는 상이한 입장을 고수한다. Ledoux가 말하는 지도자적 건축가란 기존의 사회체계를 전복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보완해 나가는 개혁과 혁명에 가깝다. 그에 의하면 건축가는 영적인 지도자이며 건축을 통하여 사회의 체계를 '정화' 하는 사람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책의 제목을 빌어 유추하자면 건축이란 윤리적, 입법적,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과 같은 책임을 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Ledoux는 건축가의 사회적 위치 및 건축이란 직업을 논하며 상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건축가를 단순하고 기계적 생산활동 주체로서의 장인이 아닌 창조적 행위자로서 고려하여 조물주에 비유하고 있는바 장인이란 창조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반면 천재에 비유되는 건축가는 그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sup>7)</sup> 그의 생각에 따르면 건축가는 '지상의 타이탄 (Titan de la terre)' 으로서 '창조주와 경쟁하는 사람(rival du Créateur)' 이다. 이런 힘을 가진 건축가에게는 침착한 신중성, 용의주도함보다도 오로지 뜨거운 열정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그의 책에서는, 이미 전술한 혁명적인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앵글로 색슨족이 프랑스의 극단적인 사상과 행동을 냉소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구, 소위 '프랑스적 광기 (French Madness)' 를 엿볼 수 있는데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혼돈하는 계획안과 문장의 서술이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Ledoux의 정의에 의하면 '만족의 전당 (Temple au Bonheur)' 이라고도 하는 법원건물은 빠시페르(Pacifère)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명칭은 평화, 중재 등을 의미하는 어근 'pacif-' 로부터 유출한 원래 사전에 없는 그가 만든 조어이다. Pacifère는 실질적으로 계획안에 그친 공상적인 안(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실지로 이 건물을 건립한 듯이 서술하고 있어서 꿈과 실재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인식적 경계의 불분명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대목이다: 'Dans mon aveugle enthousiasme, j'amoncelais des pierres les unes sur les autres et je voulais en former un monument digne de la grande id e dont se repaissait

mon imagination. 맹목적인 열정으로 나는 돌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상상력을 만족시키고 위대한 사상이라고 평가받아 마땅한 기념물을 만들고자 하였다.'<sup>8)</sup>

천재로서의 건축가가 소유하여야 할 방법론으로서 그는 선대 스승들이 확립한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방법은 - 그리고 우리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프랑스 학자 및 건축가들이 애용하는 방법론은 - 조사대상을 극도로 단순화하며 계통별로 분류하여 위계체제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Ledoux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생 Blondel이 그리하였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건물들의 위계를 조사하는 것이 그의 임무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것처럼 다양한 건물들에 있어서 발견되는 유일한 차이점이란 단지 scale과 caractère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었다.

### Caractère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Ledoux에게 있어서 caractère란 선대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그러했듯이 건물의 용도 등에 따르는 기능적 개념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Caractère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건축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특징 중 하나는 caractère가 쉽사리 혼용적 내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하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kema(오이케마) 또는 '사랑의 신전' 이라고 불리는 계획안에서 이러한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

Oikema는 매음아라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 중의 하나를 담는 건물이지만 역설적으로 혼용의 기능을 가지는 계획안이다. Ledoux가 믿기를 비행의 행위자체는 사악한 것이지만 비행과 그것을 보는 행위는 인간이 타락하고 있다는 기분을 불러일으키며 궁극적으로 반성의 길 즉 미덕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형태만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창이 없는 외벽 및 주랑을 가지고 있는 현관으로 구성된 그 건물의 투시도를 통하여 보면 마치 고결하고 신성한 신전 등의 건물과 같이 생각되지만 평면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그러한 고상한 상념을 비웃듯 음경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caractère는 곧바로 직설적인 상징성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부차적인 사실로서 Ledoux에게 있어서 장식은 어떤 건물의 caractère에 의하여 정당화될 때만 허용된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모든 장식이 소

6) *ibid.*, p. 1.

7) 'L'homme de m tier est l'automate du Créateur, l'homme de g nie est le Créateur lui-même': *ibid.*, p. 175.

8) *ibid.*, p. 175.

그리고 Kaufmann, Emil: *De Ledoux à Le Corbusier (Ledoux로부터 Le Corbusier까지)*, J. Equerre, Paris, 1981, p. 29 참조

멸됨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장식의 개념을 제거하는 사상은 기하학적 형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연속선을 옹호하는 미학의 매력을 인정함으로 확립하게 되는데 Le Corbusier의 순수주의적 건축과 그가 여러 책에서 강조하는 명료하고 '연속적인 modénature(모데나튀르: 윤곽선)'의 강조에 비교된다: 'L'unité, type du beau... consiste dans le rapport des masses avec les détails ou les ornements, dans la non interruption des lignes qui ne permettent pas que l'oeil soit distrait par des accessoires nuisibles. 미의 원형인 단일성은... 양재와 디테일 또는 장식간의 관계, 그리고 해로운 부차물에 의하여 눈을 혼란케 하지 않는 선의 비중단성(非中斷性)으로 구성된다.'<sup>9)</sup>

Ledoux는 고전주의의 건축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자신의 건축관에 일치하는 내용을 그것들에 부가하고 있는데 명확한 개념의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면 variété(바리에테: 다양성)는 각 건물에 적합한 인상학(Physiognomy)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Convenance(콩브낭스: 적합성, 합목적성)는 사회적 위치 또는 지위, site, 기능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 Bienséance(비양세앙스: 적절성)는 무엇보다도 건물의 내용 표현(Caractère)을 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비례와 장식의 유추'를 가리키고 있다; sym trie(시메트리: 대칭)는 자연으로부터 유추하여 Solidité(솔리다테: 견고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다른 것에 대하여 균형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화적이고 이상한 불규칙적인 형태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Goût(구: 취미)는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사상이 명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잡한 서술에서 Ledoux는 완전히 그 명료성을 상실하여 혼돈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의 텍스트에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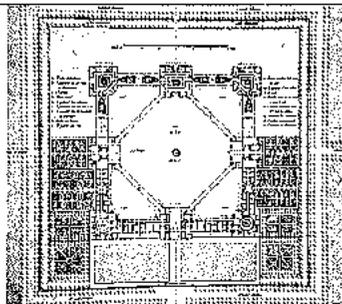
Boullée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학개념으로서의 '비례(Proportion)'의 항목은 Ledoux에게서는 사라지고 없다. 이상하게도 solidité는

Boullée가 사용하는 의미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용되지만 Symétrie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다. Boullée의 건축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로 생각되었던 극단적인 광대무변성은 Ledoux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좀 더 축소된 스케일에서 거대 기념물적인 성격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Ledoux와 Boullée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건축의 실질적인 가치를 논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때 기능을 무시하고 환상적인 시각 효과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Usage(유사지: 유용성) 또는 Commodity(꼬모디테: 쾌적성)란 용어로서 표현되어 온 프랑스 건축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기능적 요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건축은 특별한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음과 아울러 교학적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그의 디자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거주할 수 없거나 사용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인 공상적인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Ledoux가 제작한 공상적인 디자인들의 대부분은 소금공장의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는 1775년과 1779년 사이에 Chaux의 소금공장의 건축 디자인에 관여하였는데 첫 번째의 계획안은 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소금공장, 행정동 및 주거동 등이 설계에 포함되어 하나의 단지에 배치되었다. 두 번째의 계획안은 원형으로 계획되었으며 영국의 Garden City의 개념을 이미 엿볼 수 있지만 중심되는 디자인 개념은 역시 소금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안의 중앙에 지도자의 집이 있어서 전체를 관찰하도록 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는 바로 전제국가의 상징적 체제가 소금공장의 평면에 구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J. Bentham의 Panopticon(파놉티콘)과 서양의 Utopia개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Chaux의 계획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위 문명의 병폐로부터 발생한 도시를 거부하고 전원으로의 회귀하고자 하는 사상은 Rousseau로부터 발원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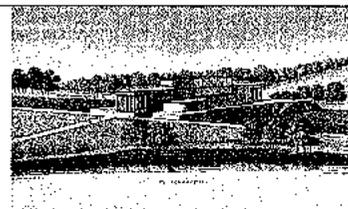
9) ibid. p. 9.



Chaux의 초기 안



빈자의 은신처



Oikema 도시도

64면

64면

64면

다. 또한 아마도 청교도적 사상의 혁명정신을 가진 François-Noel Babeuf (프랑수와-노엘 바뵈프 1764-97)로부터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Babeuf는 도시 거주자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 때문에 도시를 거부하였으며 그 거주자들을 악의 근원으로 생각하였다. 1793년에 왕정옹호자로 몰려 투옥된 Ledoux는 사실상 너무도 혁명성이 강해서 1797년 처형된 사람의 사상을 채용하였던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원로의 회귀사상은 Ledoux의 Chaux 계획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발견이 된다. Ledoux는 Rousseau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자연과의 밀접한 친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계획안에서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도 새로 지어질 건물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으며 인간은 동물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말년에 Caractère의 미학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Ledoux는 건축에 있어서 평등의 개념을 조명하고 있다. Ledoux는 이러한 단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Pour la première fois on verra la même échelle la magnificence de la guinguette et du palais... 처음으로 오두막과 궁전의 장려함이 동일한 스케일로 소개되는 것을 볼 것이다...' Ledoux가 의미하는 평등성이라 불린 혁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도덕적 평등'<sup>10)</sup>을 말한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주범(order: 柱範)은 더 이상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능적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Caractère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이처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사회를 향한 Ledoux의 사상은 전적으로 낭만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별 거벗은 사람이 하늘의 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빈자의 피난처 (abris du pauvre)에서 잘 나타나 있다. Ledoux는 이 그림에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성서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ce vaste univers qui vous étonne, c'est la maison du pauvre, c'est la maison du riche que 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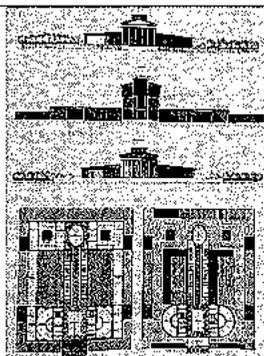
a dépouillé. 당신을 놀라게 하는 이처럼 광대한 우주는 빈자의 집이다. 부자의 집은 빼앗겨 거두어지었다.'<sup>11)</sup> 그와 유사하게 Ledoux는 두 개의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황도(黃道)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 과학적인 논리성이 부족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Ledoux의 평면과 투시도, 그리고 각 디자인 개념과 설명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서로 모순적이다. 이것은 그의 유토피아적 관점을 어느 정도에까지 전개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그의 관점이 변화하고, 각 계획은 각기 다른 국면과 상황 하에서 제각기 따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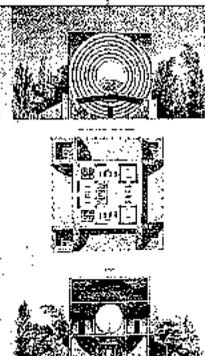
Ledoux는 평등성에 대한 고려로서 노동자의 집뿐만 아니라 사무원들의 집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 집들은 모두 기하학적인 입체의 모양을 하고 있고 각기 모양은 caractère에 따라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통의 테두리를 만드는 장인의 작업장 (Atelier des ouvriers destiné à la fabrication des cercles)'은 두 개의 원통이 직각으로 교차하여 서로 관통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의 구멍은 주택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시선이 관통되도록 허락하고 있다. 외부에 나이트 모양으로 배치된 현대(環帶)들은 관자로 하여금 이 건물이 소금 통의 테두리를 만드는 곳을 쉽사리 짐작하도록 하고 있다. 'Loue강(루우강)의 관리자의 집'은 물의 상징성을 직설적으로 사용하여 시내 물이 건물을 관통하여 흐르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말하는 건축(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이 거주자의 직업을 노골적으로 건물 외부에 표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Ledoux의 형태언어는 Boullée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입체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각 건물이 가져야 할 Caractère와 일치하도록 의도되었다. Chaux의 공동묘지에서 Ledoux는 Boullée의 사상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보여준다: 반은 건물에 파묻힌 대규모의 구체는 속이 비어 내부공간 역시 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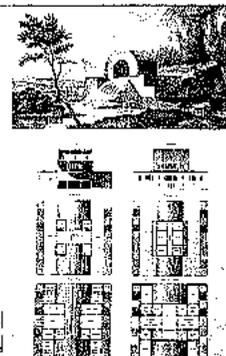
10) Ibid.  
11) Ibid. p. 155.



Olkema 평면도



통의 테두리를 만드는 장인의 집



Loue강의 관리자의 집

64년

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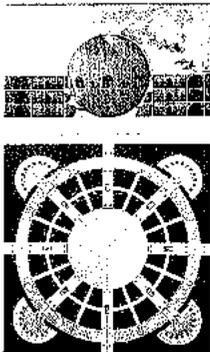
64년

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단면을 살펴보면 구체 허부 및 구체를 받치고 있는 내부의 공간들에 개구부가 배치되어 있지만 채광이 보장되지 않아 로마시대의 어두운 지하분묘(Catacomb)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 공동묘지를 투시도적으로 조망하여 묘사하는 또 다른 판화도에서는 여러 행상들과 구름으로 둘러싸인 등그런 지구의 모습으로써 공동묘지를 제시하여 형태가 순수 기하학으로 추상화되고 기단이 없이 허공에 떠 있는 공상적인 공동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을 바로 상징주의라는 단어 외에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더 있을까?

세상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농장 경비인의 집(Maison des gardes agricoles)'은 Chaux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1780년 Ledoux에게 의뢰된 Maupertuis(모페르뒤이)의 성체계획 중의 일부이다. 이 '농장 경비인의 집' 역시 Chaux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이다. 이 집은 아마도 Platon의 Timaeus(티메우스) 또는 Philebus(필레부스)에서 권고하는 소위 완전형태를 추구하기 위하여 표면에 장식이나 요철 등이 최소화되었고 창이 전혀 없도록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로 접근하려면 사면에 기대어진 경사로(ramp)를 올라 Venetian Window양식 또는 Palladian Window 양식이라고 불리는 양식적 처리가 된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가도록 되었다. 단면은 이상적인 건축을 위한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거주의 적합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측면의 고려가 전혀 무시되고 있음이 잘 관찰된다. 이렇듯 기하학적 형태를 건물의 기본 출발점으로 하는 경향은 사실상 르네상스 이래로 이어져 내려 온 전통이지만 Ledoux의 경우에서처럼 상징성이 기본적인 여러 측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절대적 가치를 부여받고 하나의 독립된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 적은 없었다. Boullée의 Newton 기념물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좀 작긴 하지만 농장경비인의 집은 가장 완전한 형태이자 우주형상의 모사물인 구체를 건축적으로 구현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형태를 우선으로 하고 기능성, 편의

성 등을 무시하여 통렬한, 쓰디 쓴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마땅한 건물이라. 혹은 비록 이런 류의 비평을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처도 건축을 단순한 기하학으로 환원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는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달리 말하면 이 건물에 구체가 꼭 맞는 형태인가 하는 것을 질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달리 생각하면 Ledoux의 작품이 명확한 분절과 단순한 형태들로 구성하는 원, 사각형 등의 기하학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고지식한 것이다. 건물들의 전체 구성은 일관성 있는 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기 고유하고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계획안을 살펴보면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뒤에 숨어 있는 공간의 조합 및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성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책의 서술된 내용의 복잡성과 풍부성을 감안한다면 Ledoux의 건축을 한마디로 단순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Ledoux의 건축은 몇겹의 번거를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Ledoux의 Chaux계획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후대의 Owen, Fourier, Pemberton 그리고 Howard 등의 사람들이 구상한 이상도시계획에는 Ledoux가 역할이 몹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가 건축을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는 것과 장식의 완전 거부는 Loos나 Le Corbusier의 선조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Ledoux가 의도하는 Caractère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Caractère는 건물의 기능을 표현해야 하지만 실제적 또는 구조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생각을 따르면 건물의 유용성은 표현적 과제에 부속하게 되고 내재적 기능은 때때로 무시되거나 희생된다. 간단히 말하면 Caractère가 Usage보다 우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8세기 초의 불란서 건축이론의 중심점이 되었던 Usage는 혁명적 건축에 있어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건축은 신호(Sign)를 위한 언어가 되었을 뿐이다. Ledoux에게 있어서 건축은 순수한 Image가 되었을 뿐 건축적인 건축이 되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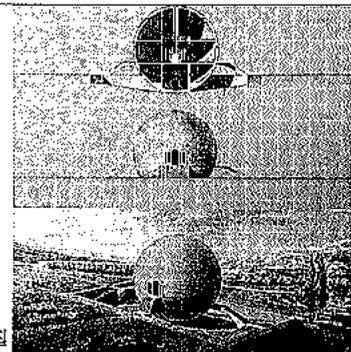
Chaux의 공동묘지



Chaux의 공동묘지, 공중에 떠있는 모습



농장경비인의 집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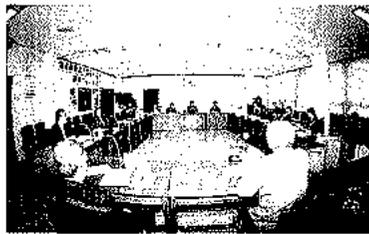
64

협회소식 / 87
건축계소식 / 88
현상설계 / 95
해외잡지동향 / 100
법령 / 106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6
회원현황 / 118
건축사자격시험공고 / 119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개최**

공제사업 계획(안) 및  
공제규정 수정(안)승인의 건 등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중요현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99년도 제10차 정기이사회를 지난 6월 15일(화) 11시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공제사업 계획(안) 및 공제규정 수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2회의안: 예산편성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정기총회 개최시기 변경(10월→3월)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통보기일 현실화(기존 8월→12월).
- 제3회의안: 제10차 아카시아포럼 장소변경 및 아카시아Award 출품작 심사위원 선임의 건
- 제10차 아카시아포럼 장소를 당초 호텔 인터콘티넨탈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코엑스로 변경하되, 오픈행사는 호텔 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키로 함
- 아카시아Award 한국측 심사위원 선

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기타사항〉**

건축사자격 상호인증관계는 오는 6월 UIA북경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8백98명 합격**

자격시험은 오는 9월 5일 실시  
자격시험중 법규과목은 6월 22일현재 기준

우리협회 주관으로 지난 5월 9일 실시된 99건축사예비시험 최종 합격자를 지난 6월 21일 발표했다. 합격예정자 중 건축사위원회의 학력 및 경력심사를 거쳐 8백98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중 최고 득점자는 평균 82.5점을 받은 최재영(충남대 졸)씨가 차지했으며, 합격자중 여성 합격자는 1백4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건축사자격시험은 오는 9월 5일 실시예정이며, 시험시간과 장소 등은 8월 24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건축사자격시험과 관련해서 우리 협회는 법규시험과목의 관련법들이 개정중에 있거나 이미 개정된 법이 있어 법규시험 기준을 1999년 6월 22일 현재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22일 이후에 개정된 법 사항은 시험에서 제외된다.

## 서울건축사회 제8기 시민건축대학 종강

1백22명 수료



서울건축사회에서 지난 5월 21일 개설한 제8기 시민건축대학 강좌가 지난 6월 21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강했다. 건축설계의 이해, 건축물의 안전관리, 주택의 시공 및 재료,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등 14개 강좌가 모두 일반시민들의 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이번 제8기 강좌에는 총 2백66명이 수강을 해 그 중 1백22명이 수료했다. 수료식을 마친 시민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 건축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강좌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 건축계소식 archi-net

### 제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7월 31일까지  
경기도 건축사회관에서 접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제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은 기성 건축인은 물론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계획 작품까지 시상한다.

#### □ 응모부문 및 대상

○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  
('97. 1. 1~'98. 12. 31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 주거부문
  - 경기도 건축사회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
  - 시장 군수의 추천작품
  -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개별접수된 작품

- 비주거부문
  - 주거부문과 동일

#### ○ 계획작품 부문

- 도내 소재 대학(대학원 전문대 포함) 건축전공 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작품
-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로서 관계건축사의 추천작품

#### □ 응모방법

- 사용승인 건축물 부문
  - 1차 접수: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

규격의 사진첩(8"×10" 사진 5매 이내 및 기본 도면 수록) 1부와 출판작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의 간이소개서

- 2차 접수: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패널(필요시 모형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 ○ 계획작품 부문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100cm×100cm) 1점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지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공모작품을 공동으로 제출시 작가 명 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 작품접수

##### ○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

- 접수기간(1차): '99. 7. 1~7. 31(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관(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0331-247-6129)
- ※ 2차 접수: 1차 접수된 작품중 입선된 작품에 한하여 별도 통보

##### ○ 계획작품 부문

- 접수일: '99. 9. 15~10. 5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접수처: 한국건축사협회 경기지회 사무국(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6-3번지 권선빌딩 6층, 전화 0331-238-7480)
- 작품응모 신청서는 접수당일 현장에 서 교부함

#### □ 수상작 발표 및 시상

- 수상작 발표: 개별통보
- 시상일시: '99. 10. 27(금) (예정)
- 시상장소: 경기도문화예술회관
- 작품 전시회: 부천시청, 의정부청소년회관(예정)

□ 시상내용

시 상 분 야		내 용			
		설 계 자	시 공 자	건 축 주	
사 용 승 인 된 건축물	주거 부문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 장	상장 및 기념동판
		금상 (1점)	상장 및 상금 70만원	"	"
		은상 (1점)	상장 및 상금 60만원	"	"
		동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비주거 부문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금상 (1점)	상장 및 상금 70만원	"	"
		은상 (1점)	상장 및 상금 60만원	"	"
		동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계획작품 부문		대상 (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금상 (1점)	상장 및 상금 70만원	-	-
		은상 (1점)	상장 및 상금 60만원	-	-
		동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 심사결과에 따라 위 시상 이외 입선작이 추가될 수 있음

□ 기타 출품 규정

-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의 제출 사전접종 입선작은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사용승인건축물 부문 및 계획작품 부문의 입선작 등은 순회 전시 기간 중 반출이 불가함
- 패널제작시 유리,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응모된 작품은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최측에서 임의 처리하게 되니 유의바람

□ 문의

- 경기도청 주택과 (0331)249-4930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0331)247-6129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0331)238-7480

제10회 김수근문화상 건축상

수상작, 손학식의 OPUS



제10회 김수근문화상 건축상위 시상이지만 故 김수근 선생의 기일인 6월 14일에 공간사옥에서 있었다. 1989년 김수근 문화재단이 위해 제정된 이 상은 한해 동안 발표되었던 건축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작품을 근거로 하지만 작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 작품만으로 그 작가의 작품세계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때문에 이 건축상은 작가의 실험적인 노력과 의지로 독창적이고 뚜렷한 작가

세계를 드러내는 건축가에게 기획이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건축상들과 구별되고 있다.

올해 수상작인 재미건축가 손학식씨에 의해 설계된 OPUS는 압구정동의 한 뒷골목에 위치한 복합용도의 건물로서 음악스튜디오, 지하의 150석 콘서트홀과 레스토랑, 카페, 광고 그래픽 회사를 위한 임대 사무실을 수용한다. 건축가는 고전음악을 전공하는 다섯 건축주들의 자제를 위한 연습과 교류,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규모 건물안에 기능적으로 훌륭히 수용할 뿐 아니라 건물로의 접근과 이동이 이루어지는 내외부의 공간을 렌드스케이프화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개발 하므로써 건물전체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심사를 맡은 김병현(장건축)위원은 "이 건축이 이루어 놓은 건축예술과 대중의 만남의 성공, 어려운 현실적 제한 속에서도 건축을 문화와 예술의 영역으로 지킬 수 있었던 작가의 강인한 힘은 심사위원들이 높이 사 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6-31  
 대지면적 428,70㎡  
 연면적 1,484.65㎡  
 건축면적 236.9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계팀 손학식, Ken Min, William Kim, 이오섭, C. Gregory Walsh Jr., Rene Ilustre  
 시공 외부-유평건설  
 내부-Design Pass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골함석, 유리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칩보드, 나무 바닥, 돌

## 생태건축 2차 전문세미나

중앙대 건설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생태건축연구소에서는 생태건축2차 전

문세미나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세미나실(8212호실)에서 매 주차 오후 3시 시작, 강사 주제 발표 30분, 패널 토론 1시간 등으로 진행한다. 인원은 20명 내외(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참석 가능)로 한다.

문의: 생태건축연구소(02-987-2135)

일정	세미나 교재 및 주제 / 출판사	저자 역자	비고(발표자)
1주차 6/19	그린타운 개발사업 I, II, III 정부의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 중 환경생태기술 개발사업은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축 기반기술개발 내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구 교수(세명대)
2주차 6/26	사회생태학이란 무엇인가?/민홍사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서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사회생태주의 입문서로서 자율적 생활양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머리어 북천 박용규	박용규 교수(대구대)
3주차 7/10	녹색취기- 디자인과 건축의 생태성과 윤리/조형교육 생태적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의 현실속에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중요한 임무를 상기시키며 이에 따른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촉구한다.	빅터 파파넵 조영식	조영식 교수(이화여대)
4주차 7/24	저층 고밀형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환경보전, 환경공생, 생태건축 등에 기초한 친환경 주거단지 설계 지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주거단지 유형을 주택시장의 다변화 및 영역 확장에 활용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구 교수(세명대)
5주차 7/3	그린빌딩, 인텔리전트 빌딩 그린빌딩이란 환경친화적인 신개념의 빌딩을 이르는 말이며, 인텔리전트빌딩은 공기조절장치,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4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이 하나의 중앙컴퓨터로 관리되는 빌딩	최병두	삼성에버랜드 인선통 건축사
6주차 8/14	한국의 공간과 환경 - 한길사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이유로 대두되는 공간환경문제를 경제적 위기와 지역불균등 발전/정치적 위기와 지역정치의 경쟁/사회적 위기와 복지, 주택문제/사회위기와 생태위기의 결합 4개의 분야로 교차해 본다	공간환경연구원	최병두 교수(대구대)
7주차 8/21	생태 경제학 생태계 및 환경 파괴등을 유발하는 개발론의 경제논리에 맞서 시민의 환경의식으로부터 자연 및 생태보존 및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론의 경제논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효홍교수(경원대)	
8주차 8/28	생태학적 도시재개발 가중 도시계획의 테크노폴리스 개념을 탈피하여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보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중시하는 에코폴리의 개념과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도시 재개발의 사례	장동민 교수(청운대)	
9주차 9/4	환경 보전형 주택시스템 개발 에너지소모형, 자판넬비형 인공환경으로서의 주거건축을 대상으로 한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인간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 보전형 주택 시스템의 모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연구 교수(중앙대)
10주차 9/11	생태건축의 평가시스템 모델 실제 친환경건물로 설계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자 스스로 설계단계에서 적용할 생태요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되게 한다	이남수 교수(인하대 박사과정)	

## 사랑의 집짓기 공모전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한국 헤비타트)에서 전개하고 있는 집 없는 영세민/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설계안을 공모한다.

### 개념

- 우리나라의 계절적 기후조건과 지형, 주거생활양식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일반 자원봉사자와 거주예정자 등이 최소의 전문기술인들의 지도하에 건설하는 작업이므로 우선 단순 소박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이며 주거생활의 질적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하여야 한다.
- 선택된 안들은 "지역의 주거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하는 헤비타트의 취지에 따라 입주예정자, 자원봉사자가 건축전문 기술인들과 함께 실제 건설할 예정으로 제안자 역시 자신의 안으로 직접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계지침

- 제안서: 개념설명, 구법, 공법, 재료 등에 관한 설명(A4용지 2매 내외)
  - 대지: 가상대지로 100평, 주거지역으로 한정
  - 구법: 건식공법 또는 부분적으로 습식공법을 혼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 기술인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손쉽게 건설 또는 조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공법과 부재에 따라서 알맞은 재료의 선택과 제안도 가능하다.
  - 계획도면: · 공간규모: 전용면적 15평 내외(4~5인 가족대상으로 최소한의 질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  
· 배치계획: 4호 연립, 지상 2층  
· 주거계획: 평면도, 입면도(스케일 1/50), 단면/부분상세도(스케일1/30)
  - 모형: 스케일 1/100
  - 표현방법: 도면 레이아웃은 수직배치, 제안과 방법은 제한 없음. 규격 90cm × 180cm
  - 응모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3인 이내
- 접수: 1999. 9. 28~10.4(현대산업개발 강남 모델하우스)  
전시: 1999. 10. 16~10. 24(현대산업개발 강남 모델하우스)  
문의: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02-762-8090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단국대 건축공학과 0417-550-3510



64명

## 99여름워크숍 및 1999/2000년도 제1쿼터 신입생 모집

여름워크숍은 7월 16일까지.  
제1쿼터 신입생은 7월 24일까지

서울건축학교는 오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무주 은하관농원에서 「한국성-무주에서의 실천」을 주제로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프로젝트 대상으로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일원을 선정하여 이곳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소도시 속에서 가능한 여러 실천들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참가희망자는 소정 양식의 입학지원서와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서울건축학교로 7월 16일(금)까지 접수하면 된다.

### 코디네이터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진 정(전북대 건축공학과)

### 초청강사

조명래(단국대 지역개발학과),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과), 김세웅(무주군수)

### 초청평가

김병현(장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윤승중(원도시건축), 정진국(한양대 건축과), 최관영(일건 C&C)

### 스튜디오유티

권문성(아트리에17) 김석윤(김건축) 김승희(경영위치건축) 김영설(김영섭도시건축) 김영준(이로제/김영준건축) 김 원(광장건축) 김인철(아르키움건축) 김중규(마루건축) 김 현(에다건축) 김홍일(위드건축) 민선주(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위가건축)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기오현) 서혜림(힘마건축) 송효상(이로제) 오성훈(공간건축)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임재용(오세에이건축) 정기웅(기웅건축)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최문규(가건축) 최 옥(케이피씨건축) 한만원(한도시건축) 헬렌박(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헬렌박건축연구소) 황두진(티에스케이건축) 히로시 이나미(동경innami synthesize planning)가 참여한다. 한편, 서울건축학교는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의 학생들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1999/2000년도 제1쿼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설계스튜디오나 에비스튜디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문의: 서울건축학교(02-763-0471)

## 제7회 C3 포럼

Rem Koolhaas



월간 C3 FORUM(건축과 환경)의 격월간 C3 ARCHITECT를 발행하고 있는 C3 디자인그룹이 올해로 창립1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의 하나로 네덜란드의 건축가 렘 콜하아스를 초청하여 제7회 C3포럼을 지난 7월 8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패널로 이강현(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식(에일대 디자인 전임강사), 부상훈(OMA)씨가 참여한다. 문의: 02-661-2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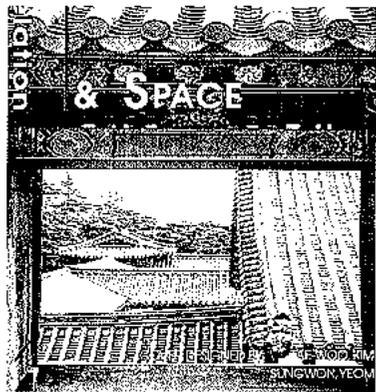
## 99한·일 학생건축교류전

부산시청에서 전시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와 일본건축학회 김끼(近畿)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99한·일 학생건축교류전이 7월 2일(금)부터 7월 8일까지 부산광역시청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건축교육, 건축문화 그리고 건축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양단체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7점의 우리나라 학생 작품과 24점의 일본 학생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문의: 인제대 건축공학과 (0525-320-3575)

## 연세대, 제2회 건축사진전

「건축과 공간의 만남」을 주제로



하늘공간/주옥자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건축계획 및 평가연구소에서는 평안건축공과 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축과 공간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옛 건축과 현대 건축의 만남」,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만남」, 「건축과

자연공간의 만남이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민미술관에서 전시됐다.

## 현실비평연구소, 일본현대건축 탐방단 모집

7월 15일 마감

현실비평연구소는 일본에 지어진 안도타다오, 타카마스 신, 르 코르뷔지에, 피터 아이젠만 등의 건축물을 접할 수 있는 일본 현대건축 탐방단을 모집한다. 동경, 오사카, 교토, 고베, 히메지, 후쿠오카 등지를 탐방하게 될 이번 행사는 1차(8월 1일부터 7일까지)와 2차(8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고, 경비는 1백91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15일까지 받는다.

문의: 02-372-7732

## 리라공고, 사진전 개최

「우리의 것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리라공업고등학교 건축과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고건축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건축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뜻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사진은 물론 고건축의 계획, 구조, 외장, 건축사로 나누어 발표가 이루어졌다. 틀에 박힌 건축교육의 모순을 비판하고 내일의 건축교육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 교보생명 상계동 사옥 준공

마리오보타 설계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보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설계한 교보생명사옥 중 상계동 사옥이 완공됐다. 지하5층, 지상12층, 연면적 6,232평 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리오보타 특유의 기하학적 선과 면의 구성으로 명확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어 한눈에 보기가 설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준공된 상계동사옥은 반원의 평면을 가진 오피스빌딩으로 중심 후면부에 코어를 두고 있으며, 좌우대칭형 입면은 교차로에 입지한 빌딩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 건물은 (주)대우에서 시공을 했으며, 감리는 다우건축에서 했다.

## 제8회 병산건축아카데미 개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오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병산서원에서 제8회 병산건축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일본의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 3년생부터 석사이하의 대학원생까지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Cyber시대의 최소한의 작업공간」이라는 주제로 과거 서원의 의의를 수용하면서 도시 근교 주거지역에 있는 부지에 최소한의 공간으로 전문직 건축주의 작업실을 설계한다. 문의: 053-850-6514

초청강사

김영섭(건축문화)

서혜림(힘마건축)

무네모토 준조(일본 교토대 건축과)

디렉터

이정호(대구대 건축학과)

무네모토 준조

## (주)회림건축 이영희 회장, IAI Korea 회장 추대

IAI한국지부 1999년 1차 정기총회에서

(주)회림건축 이영희회장이 IAI한국지부 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6월 17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과총회관 강당에서 있는 IAI(Internation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1999년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추대, 1년 임기를 맡게 됐다. IAI는 건설분야 국제정보표준협의 회로서 전세계 약 30여개의 선진국 건설분야 업계, 학계의 연맹으로 한국지부는 1998년 4월 16일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적으로 약 650여개의 회사들이 가입되어, IFC(Industry Foudation Classes)로 알려진 표준 객체 정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각 국가의 제조업체나 사용분야에 따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같은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품을 개발할 때 각각의 요소 기술에 따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처럼 제품간 호환이 안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의 통합정보화가 어렵고 경제적 낭비가 심한데, IAI는 바로 이같은 국제표준화 기준을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연구하고 결과를 국제 산업표준으로 지정하여 공용하지는 취지에서 결성됐다.

### 건축가 故장세양 추모건축전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담동 CAIS갤러리에서

지난 94년 9월 갑작스럽게 타계한 건축가 장세양선생의 건축전시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담동 CAIS갤러리에서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와 CAIS갤러리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공인으로서의 모습 이면에 담긴 건축가로서, 공간지 발행인으로서 고뇌와 사고를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다. 2002년 부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을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이번 장세양선생의 전시회는 주경기장의 완공과 함께 계획되어 있는 전시회에 앞서 공간그룹과 흐름을 같이한 선생의 건축세계를 조망해 보는 전시회로 마련된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

### 민건협, 제4회 여름건축캠프 개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동강에서

민족건축협의회에서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원도 영월 동강에서 건축캠프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특강으로 김지하선생의 「생명사상과 울려온동」을 비롯하여 여러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참신한 문제의식으로 개별 팀작업을 진행한다. 참가희망자는 7월 30일까지 민건협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 - 332 - 1681

###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 마련

풍치지구에 업무시설 신축 허용

서울시는 그동안 풍치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일반업무시설과 직업훈련소 등의 신축을 허용하고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규모, 건축물의 부수시설, 대지면적 제한을 없애는 등 건축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2일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 주차장, 공방, 운동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현행 60%에서 최고 100%까지 확대하고 일반주거지역이라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오피스텔의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건축심의 대상에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을 새로 포함시키는 등 미관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허가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을 당해공사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해 사용승인관련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제(특별검사원제도)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 도시계획법시행령·규칙 개정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대지에 주택은 물론 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까지 3층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제한없이 건폐율과 용적률만 각각 자연녹지 수준인 20%와 100%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그린벨트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개정,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구역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 중이던 토지 등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26종의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용한다. 이중 음식점은 제한구역 안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모도 연면적 200㎡로 제한하도록 했다. 건축규모는 자연녹지지역 건축기준인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내에서 지상 3층 이하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가 좁으면 현행 그린벨트내 주택 증·개축 기준(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대 연건평 90평이하)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답 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택에 한해 건축면적의 2배 범위 안에서 전·답 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규모가 큰 그린벨트내 토지를 나눠 집을 여러 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지분할 최소화법을 기존 18평에서 1백평으로 강화하고 주택신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에 딸리는 주차장의 면적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도 기존 면적을 포함해 200㎡ 범위 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주차장설치기준 대폭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시설과 종교시설 등 각종 시설

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연면적이 3만㎡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1개 종류로 세분화된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앞으로 7개(100~300㎡)로 단순화되고 이에 따라 업무시설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당 1대로 낮아지고, 건축물의 용도지역 변경시 적용되는 설치기준도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주차면적을 추가확보할 경우로 완화돼 기존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업계

획 수립시 사업 연면적이 3만㎡이상이면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문화재를 발굴해야 하는 공사 가운데 대지면적 495㎡이하 건축연면적 264㎡이하인 단독주택 공사와 농어업인의 소규모시설물공사 등에 대해서는 발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직원모집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건축설계(경력3년이상) 0명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20
- TEL: 515-5001
- FAX: 515-5004

##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대관안내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에 전시장이 마련됐습니다.

회관 1층에 약60평 규모로 마련된 전시장은 최신의 조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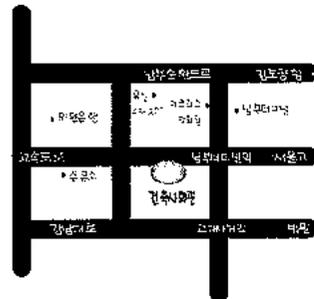
움직일 수 있는 벽을 설치하여 전시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문화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 대관 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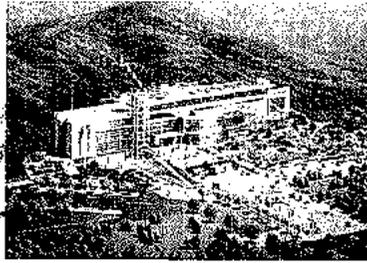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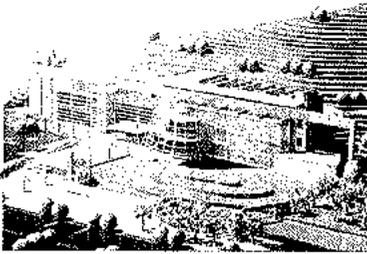
경남도립종합미술박물관

대구학생문화센터

▶ 당선작 / 업&이건축(이관표)+  
서진건축(허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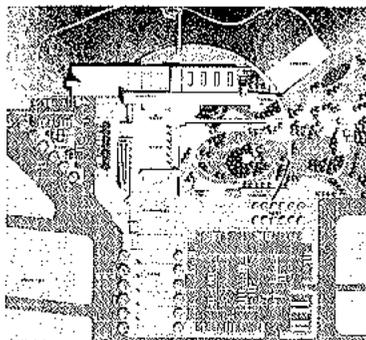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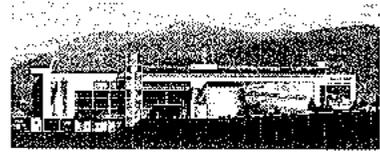


모형도

대지위치	경남 창원시 퇴촌동 신134번 지 외 5필지(용동공원 구역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공원지구
대지면적	19,508.0㎡
건축면적	1,958.0㎡
연면적	5,914.7㎡
	지하1층 1,680.9㎡
	지상1층 1,752.2㎡
	지상2층 1,422.6㎡
	지상3층 1,059.0㎡
건폐율	10.04%(법정 20% 이하)
용적률	21.7%(법정 100% 이하)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	42대(수장 주차 2대 포함)
조경면적	6,248.3㎡
조경비	67.9%(법정 40% 이상)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 마감, THK 18 컬러 복층 유리, THK 24 자 외선 차단 복층 유리



배치도



정면도

64만



좌측면도

64만



우측면도

6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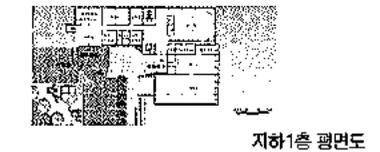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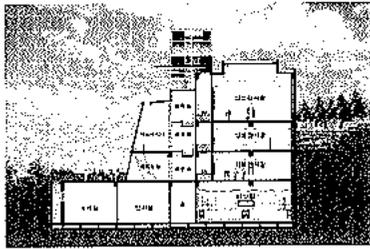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경남도립종합미술박물관

Museum in KyongNam  
Province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퇴촌동에 종합 미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 5월 21일 업&이건축(이관표)+서진건축(허정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이상건축(박병철)+가원건축(김정욱)안이, 가작으로는 신화건축(조태근)+가와건축(최삼영)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심사에는 신성우(한양대), 이광태(경남대), 송호산(동의대), 최무혁(경북대), 정목일(경남신문), 이상정(경상대), 박재승(한양대), 이현우(광운대), 조경욱(미술협회), 한갑현(경남도의회), 정문형(재경미술가)씨가 참여했다.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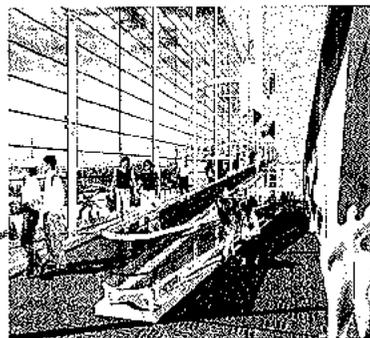
중단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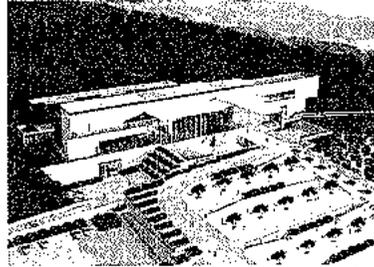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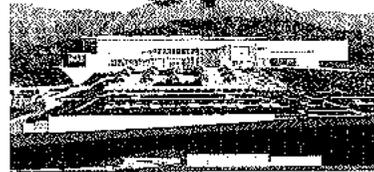
부분 투시도(램프홀 이미지)

▶ 우수작 / 이상건축(박병철) + (주)가  
원건축(김정옥 · 임부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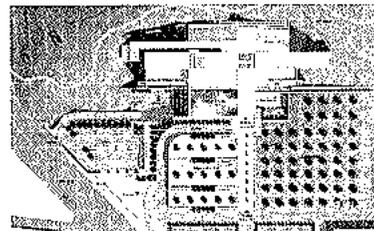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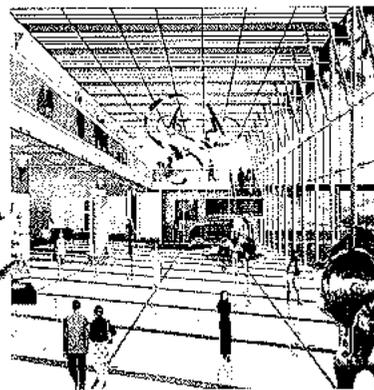
대지면적 16,529㎡  
건축면적 3,284.60㎡  
연면적 6,051.47㎡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화강석, 징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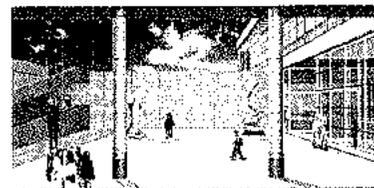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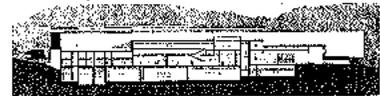
배치도



기획전시실



음의전시장



횡단면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가작 / 가와건축(최삼영) + 신화건  
축(조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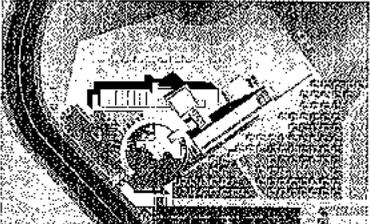
조감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6,529㎡(5,000평)  
건축면적 2,104.08㎡(636.48평)  
연면적 5,790.22㎡(1,751.53평)  
건폐율 12.7%(계획대지면적 기준)  
용적률 23.2%(계획대지면적 기준)  
층수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벽마감 THK30 화강석버너마감+투명  
복층유리+THK3 A.L SHEET  
주차대수 39대  
최대높이 2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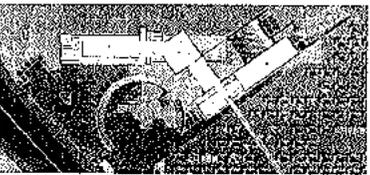
64면



투시도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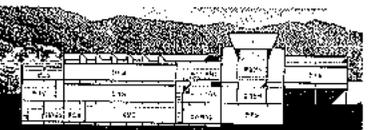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서측면도



주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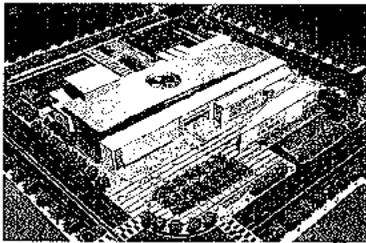
주단면도-2

## 대구학생문화센터

Student's Culture Center, Taegu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시민의 심신 수련과 각종행사 그리고 여가선용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정보문화공간의 확보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대구학생문화센터 신축을 계획,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17개업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합동건축(권태식) + 원도시건축(변 용)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에서 우수작으로는 원양건축(이종찬) + 옥저건축(이근근)안이, 가작으로는 희림건축(이영희) + 서현건축(권산호)안이 각각 선정됐다.

### ▶ 당선작 / 합동건축(권태식) + 원도시건축(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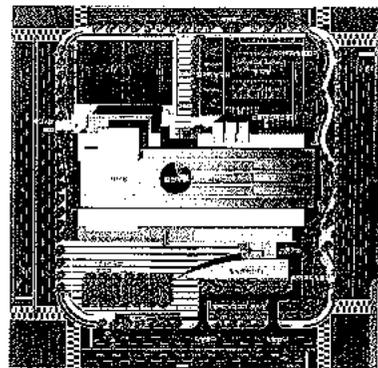


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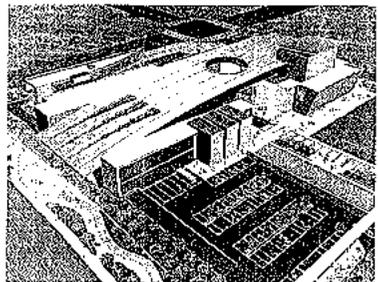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6번지(구 50사단 부지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5,768㎡(7,795평)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338.2㎡(6,152.3평) 지하주차장: 2,267.8㎡(686.0평)
건축면적	9,878.6㎡
용적률	64.14%
건폐율	38.33%
조경면적	4,010.9㎡(법정: 3,865㎡)
주차대수	99대(지상)+72대(지하)=171대(123%/법정 139대) (장애자주차 6대, 대형주차 7대)

### 기본개념

- ▶ 대구학생문화센터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창의력의 확립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문화교육의 장소를 확보한다.
- ▶ 일방적인 교수법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학생문화센터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마당을 형성하여 다양한 이벤트로 새로운 지역사회를 확립한다.
- ▶ 다양한 행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미디어파크는 수목휴게공간과 전면광장이 함께하여 가로공원의 연장이 된다.
- ▶ 정보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무수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문화센터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확보한다.
- ▶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스포츠센터는 독립적인 시설로 구성되지 않고 여러 시설들이 함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미래 지향적인 친근한 조형미를 부여한다.
- ▶ 각 프로그램의 기능이 명쾌하게 드러나 여러층의 수요를 수월하게 충족시켜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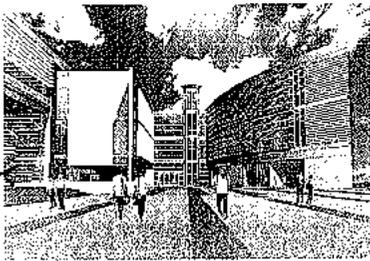
배지도



복층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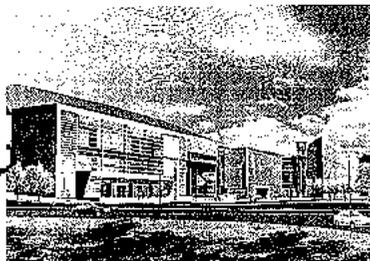
64면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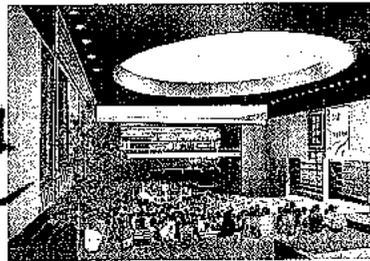
정보문화센터 전면진입 광장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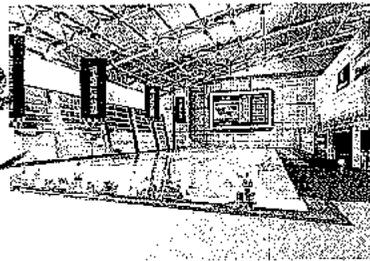
미디어파크에서 바라본 남측전경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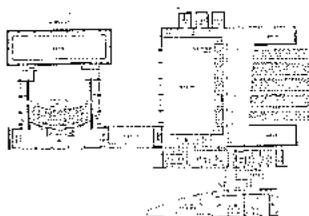


열린마당의 야외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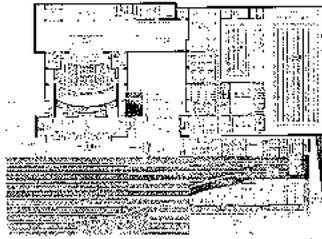
640



열린마당의 야외 공연장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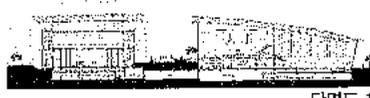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동측입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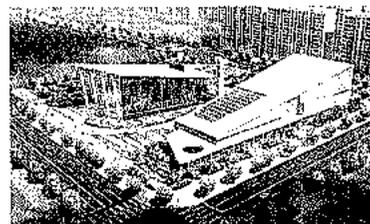


단면도 1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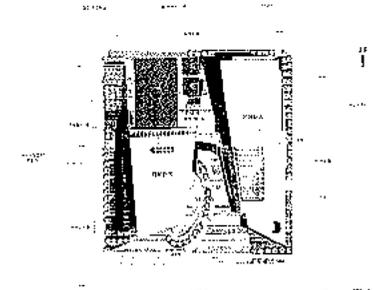
▶ 우수작 / 원양건축(이종찬) + 옥저건축(이근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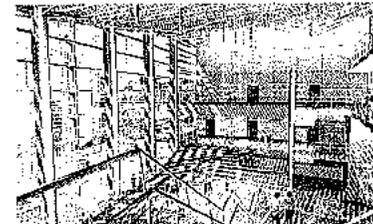
조감도

지역지구 일반근거리지역  
대지면적 25,768.00㎡  
지상연면적 10,696.00㎡

연면적 20,457.00㎡  
건축면적 9,536.65㎡  
건폐율 37.01%  
용적률 41.50%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32m  
외부마감 THK 18 복층유리,  
THK 30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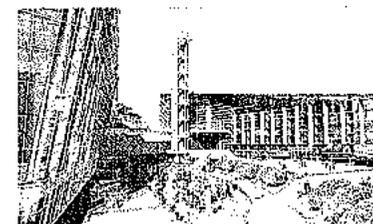


배치도



이트리움

040



야외공연장

640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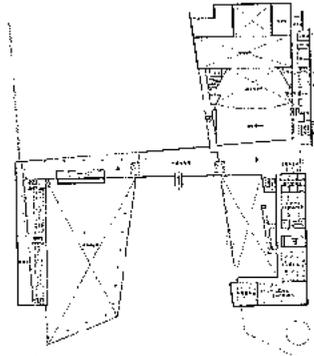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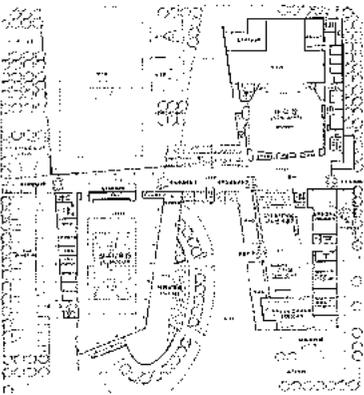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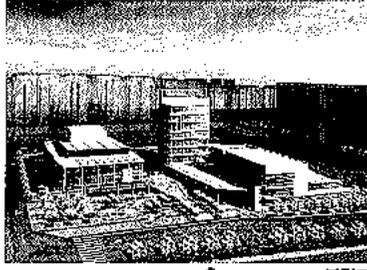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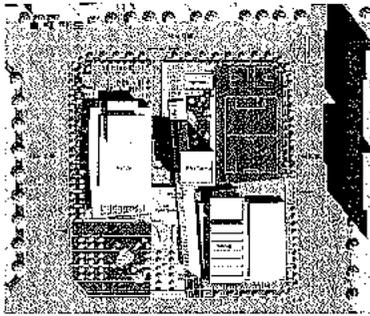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가작 / 희림건축(이영희) + 서현건축(권산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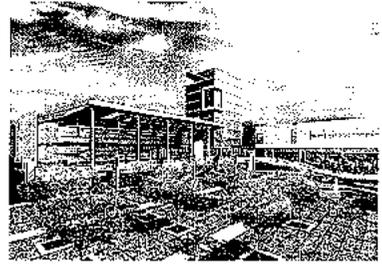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
대지면적	25,768㎡ (7,794.8평)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건축면적	7,776.2㎡ (2,356.4평)
건폐율	30.1%
연면적	21,029.1㎡ (6,372.4평)
용적률	103.2%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총 253대(지상56대, 지하197대) - 장애인주차 7대, 대형주차 3대포함 - 법정주차 172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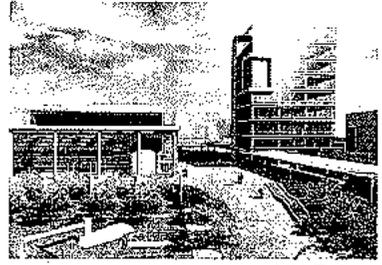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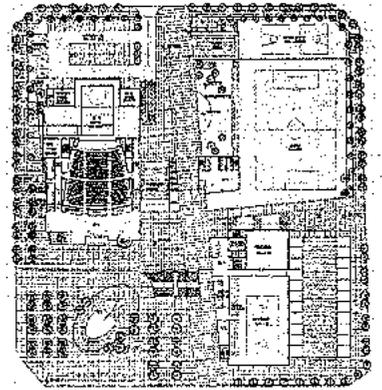
투시도



부분 투시도 1



부분 투시도 2



1층 평면도

64만

64만

64만

- Architectural Record
- The Architectural Review
- Domus
- Architecture
- 建築文化
- a+u
- 新建築

##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5월호

이번 호는 건축, 인테리어, 도시디자인, 건축회사 그리고 25년상 부문 등의 AIA 수상작들을 소개하였다. Frank



Gehry 특집으로 그의 건축활동 40년에 걸친 작품들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빌바오 구겐하임이 주는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이번 호 건물타입 연구의 주제는 공연장으로 대규모 음악당에서부터 소규모 복합 문화공간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 Frank Gehry

Gehry 개인의 작품활동에 있어, 그리고 건축계 전체에 있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거둔 성공의 의미는 대중에게 건축이 단지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장관으로서 실제적인 인공물의 의미를 보여 주었다는데 있다. Louis I. Kahn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인정받는 Gehry의 작품들은 구상적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건축을 추구했던 Kahn과 대비된다. 르 꼬르뷔제의 통상성당과 마찬가지로 빌바오 구겐하임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표현주의적이며, 구조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티노 보반이 분석하는 프레임과 구조물 간의 형태에 따라 세워진다는 점에서 구조가 형태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디자인 과정은 매우 직관적인 반면에 과학적인 렌더링 기술인 CATIA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항공기설계용 소프트웨어인 이걸에 의해서 바르셀로나 1992년 Olympic의 물고기 형태를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이 작품을 시작으로 곡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CATIA에 의한 데이터는 BOCAD라는 소프트웨어에 넘겨져

고 이것에 의해 프레임과 부수적인 스틸 구조가 짜여진다. 그의 작업방식은 매우 기능적인 결정들로부터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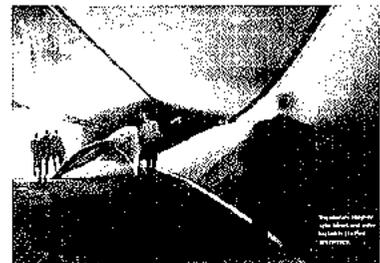
### ■ 근작소개

▶ Juan Navarro Bardeweg의 스케인 마노르카 Mahon 법원



지중해 섬 마노르카의 수도인 Mahon에 지어진 이 법원은 섬의 역사와 작은 도시의 공공생활의 친근한 스케일을 반영한다. Navarro는 이 디자인을 통해서 건설되고 있는 신사가지와 개발되지 않은 구 도시를 매개하려고 하였으며, 지역적인 정체성을 힘있는 추상적 형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개구부가 거의 없는 길고 하얀 건물의 측면은 바람에 대한 저항을 줄인 농가주택과 닮아있다. 일층부분은 자갈로 마감되어 지방의 풍색을 드러낸다. 서측 파사드 부분은 이층집 주택의 파사드를 본뜬으로서 주택을 공공의 스케일로 확대한 듯이 보이도록 의도하였다.

▶ Oosterhuis Associates & Nox의 Water Pavilion



이 파빌리온은 네델란드가 물과 갖는 복

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최근작으로, 그 의미는 그것이 놓인 사이트에 있다. 1953년의 홍수로 인해 이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물의 자연적인 순환을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서 네델란드 정부가 두 젊은 건축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두 개의 파빌리온은 모두 컴퓨터로 설계된 삼차원 구조물로서 어떠한 단면도 서로 같지 않은 곡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Ricci & Spaini의 이태리 Francavilla al Mare, Museo Michetti를 소개하였다.

■ 케이스 스터디 - 공연장

▶ 손학식의 서울 OPUS



최대한의 용적을 요구하는 건축주요구에 맞춰 사선적인 선에 의해 메스가 결정되었다. 계단식으로 정단되는 대신에 단일체로 보이도록 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에 의해 분절되어 있는 건물의 기능들을 하나의 틀 안에 담고 있다. 알루미늄 판을 덧대므로써, 지붕과 벽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강한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다. 좁은 도시적인 콘텍스트에서 어떻게 콘서트홀을 끼워넣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건축가는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후퇴하여 지어아되는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하에 두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하층에 위치시킴으로써 반응효과 및 거리의 불필요한 소음차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 ▶ Arquitectonica의 프랑스 Dijon 음악당 ▶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North Texas 대학 Murchison Center ▶ Itsuko Hasegawa의 니가타현 문화회관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The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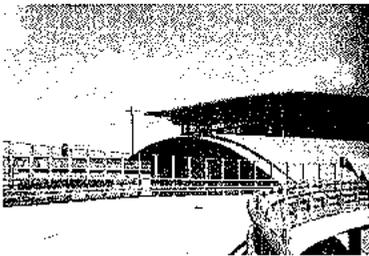
1999년 5월호

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본호는 국가 정체성을 잘 살린 노르웨이의 새로운 공항과 런던의 지하철 Jubilee 라인 4개역 디자인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Randy Brown의 네브라스카 오피스 디자인, 시드니 하버 다리 근처에 있는 Lippman Associates의 체육센터, Niall McLaughlin의 런던 주택의 인테리어 등을 다루었다.



■ 교통시설 특집

▶ Aviaplan의 오슬로 Gardermoen 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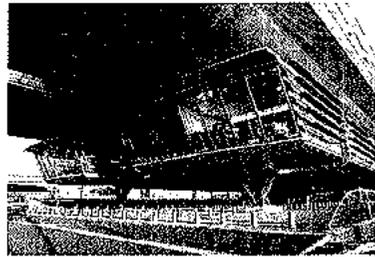


정부는 공항이 노르웨이의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디자인되기를 요구하였고, 디자이너는 하이테크적 공항과 노르웨이적 특성의 실례를 만들어 내었다. 자연에 친숙하고, 개방적이면서 평등한 사회와 지역적인 자원의 사용이 새로운 공항에 적용될 특징적 개념이다. 중앙터미널은 매우 단순한 구성이다. 북쪽의 유리 벽쪽으로 높이 향한 지붕을 지닌 거대한 홀의 지상층에서 도착하며, 그 위에 떠있는 레벨에서 출발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노르웨이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법률에 의해 내부 도처에 목재

가 사용되었다.

▶ 런던의 지하철 Jubilee 라인 확장 지하철 Jubilee 라인 확장은 런던의 가장 중요한 교통기반 프로젝트이다. 11개의 새롭게 지어질 역은 도시의 공공교통을 재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지어진 역 4개- Chris Wilkinson Architects의 Stratford Station, van Heyningen and Howard Architects의 Westham Station, John McAslan & Partners의 Canning Town Station, Alsop & St rmer의 North Greenwich, Underground Station를 소개하였다.

▶ Odile Decq & Benoit Cornette의 프랑스 Nanterre 도로 통제 센터



이 건물은 독립되어 있는 오브제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도로의 연장으로 보인다. 고가도로의 두 지지체 사이에 매달려있는 이 구조물은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두 개의 단면으로 나누어져서, 차량은 땅위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위에 지나다니도록 구성되었다. 역동성과 가벼움의 강조는 움직이는 물체의 은유로서 강조되었으며, 공업 재료의 사용과 하이테크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그 밖에 ▶Lifschutz Davidson의 런던 Footbridge ▶Arup Associates with Rococo Design Partners의 홍콩 중앙역 ▶BRT Architekten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역 등이 소개되었다.

■ 인테리어 디자인

▶Randy Brown의 네브라스카 오피스 디자인은 다소 거친 듯이 보이지만 공간은 매우 조심스럽게 조직되어 있다. 리셉션 공간, 작업실, 개인 사무실, 회의실로

구성되었고, 조립식의 금속제 창고안에 무정형의 내부공간을 끼워넣은 형태이며, 볼륨들은 다양한 투명도를 지닌 부분들로 나뉘어 떠있다. 연결은 강력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Brown의 건축 미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계단에서 발판은 난간의 세로보와 맞닿아 있으며, 이 세로보는 다시 금속재의 난간을 지지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적인 인접지구의 스케일에 맞춰 조정되어 있는, 시드니 하버 다리 근처에 위치한 Lippman Associates의 체육센터, ▶빛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보이는 Niall McLaughlin의 런던 주택의 인테리어가 다루어졌다.

## Domus

1999년 4월호

새로운 유목주의 (New Nomadism)가 이번 호의 주된 테마로서 이동가능한 주택에서부터 전문지에 중사하는 재택근무자를 위한 실험적 주택 등을 선보였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해 온 Airstream사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 ■ 근작소개

▶ Vincent Guallart의 디지털인을 위한 Scape House



미래의 이동가능한 주택으로서 유럽지형

어느곳인가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획되었다. 생태적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막안에 어떠한 도시적 행위들을 옮겨올 수 있다. 막안의 방들은 기구처럼 구입이 가능하다. 디지털인은 생활의 28%를 도시의 또 다른 작은 주거에서 보내고 나머지 72%를 근교의 이 Scape House에서 지낸다. 즉 주 5일을 재택근무하고 이틀을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작업을 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 Anne Lacaton, Jean-Philippe Vassal의 프랑스 보르도 주말주택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두 건축가는 과거의 건축가들이 바라던 소원인 나무들 안의 집을 실현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던 나무가 집을 관통하고 있으며, 바람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무의 띠가 나무를 플렉시 글라스의 구멍에 고정시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나무들이 집안을 관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숲 안에 어떠한 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거슬리는 것이 없다. 단지 집이 땅으로부터 들어올려져 있으며, 대지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Collins의 호주 Bombala 소재 주말주택

이 집의 기획은 세계화와 새로운 유목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획자는 런던과 시드니에 있고 건축주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 캐드와 인터넷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사이트가 선정되었다. Bombala지역은 거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UFO와 같은 비국적적인 집이 필요시되었다. 집의 디자인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있는 경사진 좁은 창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경사진 창에 의해서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외관을 가진다. 땅에 대해 무관계적으로 떠있는 것은 이 지역의 전통가옥의 영향이며, 비정상적인 비례와 대지로부터의 분리는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밖에 ▶Eduard François의 프랑스 Jupilles 소재 주말주택 ▶Pugh + Scarpa의 캘리포니아 이동가능한 트레이닝 센터 ▶낮은 항구를 도시화하는 Bolles+Wilson의 로테르담 Kop van Zuid 프로젝트 ▶Ben van Berke의 네델란드 피버우스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 산업 디자인

▶ LOT/EK Architecture의 주거의 새로운 차원을 위한 디자인

생산되고 버려지는 순환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세계의 다양한 단편들을 내부로 끌어들었다. 냉장고, 신문지 보관함, 트럭 컨테이너, 스틸 비상계단 등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짐으로써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변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건축가들은 디자인의 적절성에 의문을 보이는 한편, 혼돈과 도시적인 순간을 잡아내려고 한다. 완전한 형태를 피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반미학으로 부르면서,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기능적, 문화적 미적 관념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며, 그것의 결과로서 유연하며 유동적이고, 밀착된 혼합물을 만들어낸다.

그 밖에 ▶"의식적으로 단순한 디자인-Consciously Simple Design"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에서 선보인 80년대 이래의 베를린 아방가르드를 반영하는 독일 가구디자인 ▶캠핑카 디자인 - 현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유목주의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Mobil Home" (특히 Airstream 사의 캠핑카는 미국문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Vitra사의 접이 의자 디자인 ▶Mari, Sottsass의 유리 디자인 등이 다루어졌다.

## Architecture

1999년 5월호

미국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세대의 가치관과 그들이 자라온 환경을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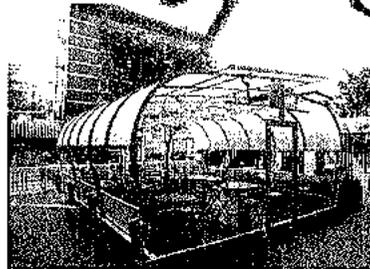
하면서, 건축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다루었다. 개성적인 사고방식과 건축 각계에 대한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스타건축가 일각에서 벗어나, 90년대 건축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조립식건물을 다루었다.

### ■ 미국의 젊은 건축가 세대

25~35세 사이의 이들은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를 잇는 사람들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다. 30년간의 중요사건과 그전 세대와의 비교와 함께, 미국의 젊은 건축가들의 일과와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NBBJ Associates에서 근무하는 33세의 Timothy Johnson과 Antoine Predock Architect의 Associate로 일하는 Kira Sowanick의 건축관, 그리고 현재 그녀가 진행하고 있는 Tacoma Art Museum등을 다루었다.

▶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Todd Fouser(35세), Chris Otterbine(30세), Reuben Jorsling(34세)로 구성된 젊은 디자인 그룹 FACE는 건축가를 위한 가구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있다. 그들은 물리적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들은 실물 크기의 시공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며, 디자인과 시공을 직접 수행한다. 디자인과정을 일련의

사진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1/4 스케일의 모형제작, 재단 작업, 현장 설치를 통해 레조노랑의 야외 파빌리온을 완성하였다.



### ■ Prefab Construction



캘리포니아 Livermore 소재 McGrath Reritcorp 본사 CAD시스템 등으로 인해, 기존의 박스 형태보다 더 복잡한 형태가 가능한 공장 생산 건축은 주거뿐만 아니라 복합기능의 공공시설에서부터, 사무실, 호텔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프리패브 건축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컴퓨터화된 재단 시스템에 의해서 치수의 변형이 자유로워졌으며, 다양한 부재의 절단이 가능해졌다. 재료의 개발 또한 기술의 진보에 일조를 했다. 콘크리트에 스틸 섬유를 혼합하여 가공함으로써, 150mm의 패널에 110mm 단열재를 넣고도 건축법을 만족시킬만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RMW Architecture+design의 Ted Mahl은 "박스 밖에서" 사고를 한다. 12ft×60ft그리드 모듈을 우선 정해놓고, 4개의 익랑부를 만들과 마당, 갤러리등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 ■ 가타

▶ 북 아메리카에서 20년동안 사라졌던 자연친화적인 리놀륨의 재사용 ▶업그레이드된 AutoCad 2000에 대한 기존버전과의 비교 ▶캘리포니아 소재, 거의 백년이 다 되가는 군사용 창고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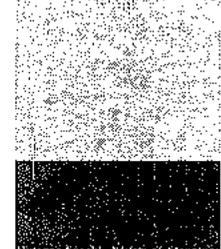
## 建築文化

1999년 6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구조 설계사 사사키 무츠로가 참여한 작품들을 소개한 「사사키 무츠로 - 구조

## 建築文化

6



의 비전」이 게재되었다. 사사키 무츠로의 글과 함께 그가 구조설계에 참여한 작품들이 건축가들과의 대담과 함께 다루어졌다. 그와 함께 작업한 건축가들은 세지마 카즈요, 니시자와 류에, 사이토 요타카, 난바 카즈히코, 야토 도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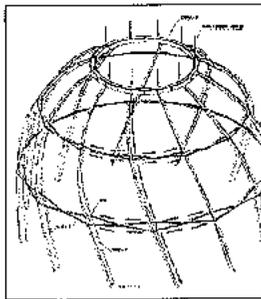
### ■ 특집: 구조의 비전 - 사사키 무츠로(佐佐木 睦朗)

#### ▶현대건축과 「구조계획」

현대의 구조기술은 컴퓨터에 의한 해석 기술을 시작으로 고도로 발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성숙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성숙한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 자체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건축표현의 테마가 될 수는 없다. 기술지상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구조는 보다 소프트한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라 생각된다. 즉 기술적으로는 고도화되나, 그것에 의해 건축표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구조에 대한 컨셉이나 비전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때는 단순히 합리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구조는 그 뿌리가 되는 새로운 미학이나 논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 사상적인 뿌리가 되는 것이 근대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건축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근대 이후 복잡한 사회상황과 더불어 일어난 전문분화에 의해 건축가와 구조가의 분화가 생겨났다. 각자의 분야가 분화

64판



하여 고도로 발전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각 분야간의 상호이해와 가치관의 공유에 의한 공동작업을 통하여 다시 전체를 통합하는 장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때 한층 중요한 일이다. 이 공동작업의 요지에 위치하여 시적인 건축의 이미지와 현실의 구조 시스템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계획」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구조계획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선행하여 행해지는 구조계획은 창조적인 작업으로, 구조설계의 중추가 된다. 구조계획의 주요 목적은 사람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이나 공간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건축기능과 함께, 구조기능, 시공시의 경제성과 공법, 조형적·미적 요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와 종합적인 공통의 목표와 컨셉과의 관계를 대화를 통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필자는 구조계획의 개념들에 대해 '구조계획과 예술', '구조계획과 역사', '구조계획과 자연', '그 외의 컨텍스트'라는 제목으로 상술하고 있다.

▶건축가와의 대화

구조가인 필자가 그가 함께 작업했던 건축가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그와 함께

작업한 건축가들은 세지마 카즈오, 니시자와 류에, 사이토 요타카, 난바 카즈히코, 이토 토모유키 등으로 각 작품에 대하여 당시 고려하였던 주요 개념들과 구조 계획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구조계획에서 건축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에 대한 소개를 건축가와의 대화의 형식으로 꾸며진 듯하다. 소개된 작품들은 22개로 80년대 행해진 몇 작품을 제외하곤 모두 90년대 후반의 최신작품들이다.

이 밖에 연재물은 ▶「알바 알토 - 행복한 건축」, 최종희 외 ▶격월 연재인 「현대건축」, 겔트그라프, 최종희, ▶게임의 규칙, mvrdiv論이 게재되었다.

a+u

1999년 6월

이번 호의 특집은 「주택」이다. 도미니크 페로, 알바로 시자, 에릭 구즈나르, 요크레팽 등 11명의 작가의 12



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는 테렌스 라일리의 "The Un-Private House"가 게재되었다. 그 외에 제프리 레이블의 전시회 리포트 2편과 신 「전세의 시집제 5편 - "뉴욕시"」- 다른 영광을 향하여가 게재되었다.

■특집: 주택

▶에세이: "The Un-Private House", 테렌스 라일리

여기에 게재된 에세이는 금년 7월부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시작되는 「The Un-Private House」전(1999. 7. 1 - 1999. 10. 5)의 소개문으로, 저자 테렌스 라일리는 이 미술관의 Architecture

and Design 부문의 차프 큐레이터이다. 「The Un-Private House」전에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프라이비트 하우스가 건축사(建築史)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포함하면서 결국 프라이비트 하우스가 건축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있다. OMA의 보로도 저택을 시작으로 헤르조그 앤 더 무론의 크레몰리히 저택 등, 새로운 프라이비트 하우스의 존재 방법을 제안하는 작품들을 사진, 도면, 모형에 의해 소개하고 있다.

▶작품 소개

소개된 작가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도미니크 페로 - 빌라 생 카스트, ▶에릭 구즈나르 - 사르조 근교의 주택, ▶발렌틴 버스 & 안드레아 데플레아즈 - 윌리만 레처 저택, ▶요크레팽 - 워터 타워, ▶WoHa 디자인 - 에머랄드 힐 로드의 테라스 하우스, ▶토드 윌리엄스 & 빌리치언 - 롱아일랜드 하우스, ▶토마스 헤르쯔그 - 파더본 근교의 내과의 저택,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 - B 저택, ▶안드레아 모레티 - 달레산드로 하우스, ▶마인라드 모르거 & 하인리히 데겔로 - 도넛하의 주택, 3가족의 아파트먼트,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 - 비에이라 드 카스트로 저택 등이다. 각 작품은 주택이 세워진 국가 및 주변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작가의 개성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혹은 지역의 컨텍스트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작품들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소개된 몇 작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미니크 페로의 빌라 생 카스트: 프랑스 노르망디의 주택가에 세워진 이 주택은 건축가의 저택이다. 주변의 다른 필지보다 비교적 넓은 면적의 필지에 주택의 대부분이 땅에 묻힌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가는 건축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을 랜스케이프를 보고, 건물을 세우는 것과 없애는 것, 원초의 주거 형태인 동굴과 같은 주거에서의 삶으로의 회귀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요크레팽의 워터 타워: 벨기에 브라스



사트의 구상원칙에 섰던 급수탑은 1937년까지 이용되었다. 그 후 1950년 시가 장기영지를 제입했을 때도 이 급수탑은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시는 이것을 파괴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주택은 이 급수탑의 골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완성되었다. 외관은 본래 급수탑의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구성되었으며, 이 급수탑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주택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의 비에이라 드 카스트로 저택: 이 저택은 기존의 빌라 노바 데 파울리생의 건축주의 주택과 관리자의 주택, 그리고 수영장을 새로이 증축하는 것이었다. 대지는 좁고 긴 형태로 경사지를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의 진행은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1 단계는 기존의 주택을 관리자의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으며, 2 단계는 그 위에 건축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3 단계가 수영장, 4 단계가 주변의 조경이었다.

## 新建築

199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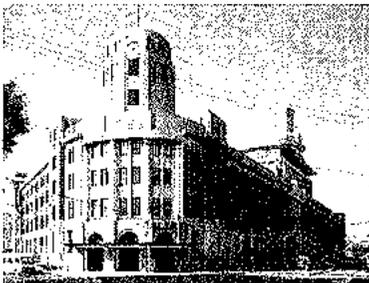
이번 호의 작품 소개는 니켄 세케이의 고베 세관 본관, 구로카와 키쇼의 쿠지시 문화 센터



(엠버 홀), 이시키 건축사무소의 와카바다이 초등학교와 이나기 중학교, 치바루 스키 등의 사이 마켓, 키쿠다케 키요노리의 시마네 현립 미술관, 네오 타이드 건축계획의 센다이 문학관, 마츠우나가 아스미츠의 나카지마 가든 등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이 게재되었다.

### ■ 작품

▶니켄 세케이의 고베 세관 본관: 구(舊) 고베 세관 건물은 1927년에 건립된 제세선 양식의 건물이었다. 공사중 관동 대지진이 준 영향으로 지진에 강한 설계로 수정을 한 후 지진에는 잘 견뎌왔다. 증축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건물을 보전하면서 거대한 건물군이 완성되었다. 증축된 부분에서도 기존 건물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V자로 깎여져 있던 기존의 건물에 이어 새로이 증정을 만들어 가며 증축하였다.



▶이시키 건축사무소의 와카바다이 초등학교와 이나기 중학교: 와카바다이 지구의 가로형성 계획에서는 학교를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보고, '컬처 코리도(Culture Corridor)'라는 것을 두어 각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 코리도를 통해 연결되도록 하였

다. 즉 각 시설의 경계부를 이 코리도가 지나가면서 그 경계부를 오픈시키고 각 절점에 시설의 입구를 두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학교는 이러한 계획 속에 설계되었으며, 학교시설의 배치도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나 계획되었다.

▶치바루 스키 등의 사이 마켓: 이 건물은 연극을 위한 스튜디오와 상점들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 가로형에 접한 폭이 좁고 길이 방향의 긴 대지의 형태로 인하여 1층부와 중앙에 가로로 도입, 막다른 골목과 같은 것을 만들고 상부를 오픈하여 중정과 같은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에 따라 2개의 점포와 레스토랑이 1층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네오 타이드 건축계획의 센다이 문학관: 센다이 문학관은 작은 계곡이 이를 따라 형성된 좁은 도로를 이따금씩 가로지르는 제법 큰 매스를 지닌 건물이다. 그러나 이 '다리'와 같은 이미지가 의도된 바이며, 교통의 인프라 스트럭처와 자연의 계곡을 건물에 유입·통합시키려는 시도이다. 도로와 계곡을 가로지르는 부분에는 하부의 도로와 계곡을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오픈이 계획되어 있다.

▶마츠우나가 아스미츠의 나카지마 가든: 나카지마 가든은 집합주거이다.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에 '踏地型 집합주거의 제안'이라는 테마를 붙였다. 이것은 2층으로 형성된 집합주거의 매스에 복도 대신 골목과 공중가로 형태의 동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주호는 전용 정원을 소유하며, 공공의 공간은 골목과 공중가로 형태의 공간이 된다. 이로서, 주택가에 들어선 집합주거이면서 기존의 단독 주택의 스케일을 건물의 매스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골목길의 형상을 중소규모의 단지에 도입함으로써 밀도의 유지와 함께, 친숙하면서도 정돈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 5. 7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센티미터이상인 것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 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

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할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증방화문 또는 울증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증방화문 또는 울증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 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공동주택에 있어서 부속실과 건축물의설비기준 등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부속실 또는 승강장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을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충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충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③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출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입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는 출입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입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출입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나가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입구의 보

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나가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탁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출입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나가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입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출입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의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물건 등이 끼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O"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금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 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15조(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체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횟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출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이상,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

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

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의한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화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8조(거실 등의 방습)**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옥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옥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옥실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밀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박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비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옹마루·계단탑·옥탑 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옹마루·계단탑·옥탑 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 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

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충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①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층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 등)** ①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충방화문 또는 울충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저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

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24조(건축물의 내장) ①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의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간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또는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6조(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ض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울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닫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방화구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사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제5

조·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제17조1항관련)

거실의 용도구분		조도구분	바닥에서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수평면의 조도(룩스)
1. 거주	독서·식사·조리		150
	기타		70
2. 집무	설계·제도·계산		700
	일반사무		300
3. 작업	기타		150
	검사 시험·정밀검사·수습		700
	일반작업·제조·판매		300
	포장·세척		150
4. 집회	회의		70
	집회		300
5. 오락	공연		150
	기타		70
6. 오락	오락일반		150
	기타		30
6. 기타			1인 내지 5인 중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정 92. 6. 1 건설부령제506호  
 개정 96. 2. 9 건설교통부령제51호  
 개정 99. 5. 11 건설교통부령제18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55조·제57조·제59조·제59조의2 및 제59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87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기준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냉동냉장시설·향온합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 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삭제>
3. <삭제>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이하 이 조에서 "건축기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의 조정하에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건축기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및 제8조 <삭제> (96.2.9)**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높이 4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가. 승강자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감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를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승강로는 전층을 단일구조로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제11조 <삭제>

## 제11조의2 <삭제>

## 제12조 <삭제>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삭제>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감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감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바닥에

서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연구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그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를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구를 설치할 것

5. 배연구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구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단락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삭제>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4.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

분에는 얼어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 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절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기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도(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도)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개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할 것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센티미터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전화선·가스관·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조의 벽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돌침은 지름 12밀리미터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 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5.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제곱밀리미터이상 알루미늄 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인화도선 사이의 간격은 50미터이하

로 하고, 각 인화도선당 1개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미터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할 것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축벽 및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은 그 열관류율을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하거나, 별표 5에 의한 단열재로 시공할 것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의 열관류율을 1.0이하로 하거나, 별표 5의 비고에 의한 단열재용 2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주도지방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2. 공장·참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내부가 항상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등 열손실방지의 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제22조(에너지절약계약서의 제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1조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탁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제23조(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① <삭제>

②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

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란중 "30"을 "32"로 한다.

별표 4의 지역란의 남부중 "부산광역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로 한다.

별표 5의 건축물의 부위란중 "공동주택의 축벽"을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축벽"으로 하고, 동표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5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98.5) 4백2십7만5천8백67㎡ 보다 21.6%(9십2만4천8백58㎡) 증가한 5백2십만7백25㎡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5월 누계분 2천6백8십만6천2백15㎡ 보다 23.7%(6백3십4만3천8백32㎡) 감소한 2천4십6만2천3백83㎡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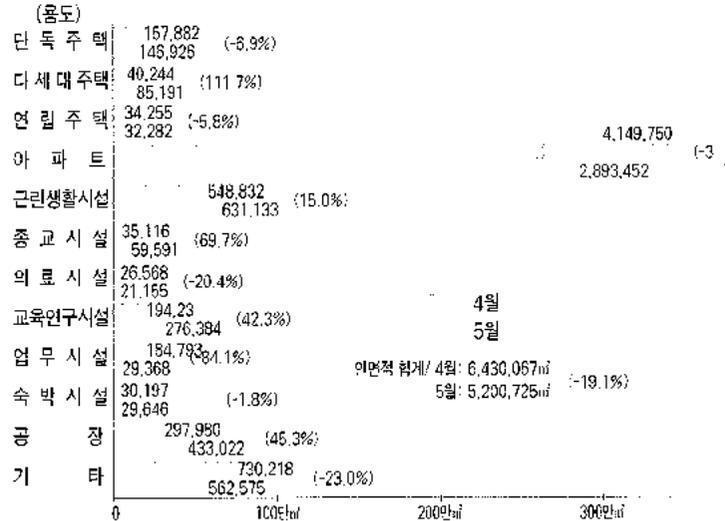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4월분(99.4) 6백4십3만67㎡ 보다 19.1%(1백2십2만9천3백42㎡) 감소한 5백2십만7백25㎡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2,480,984	2,481,161	177	0.0
	대전	23,772	102,288	78,516	330.3
	울산	31,246	54,534	23,288	74.5
	경기	337,437	835,061	497,624	147.5
	강원	54,118	64,789	10,671	19.7
	충북	200,457	409,946	209,489	104.5
	충남	71,009	146,928	75,919	106.9
	전북	48,611	90,514	41,903	86.2
	전남	34,814	83,658	48,844	140.3
	경북	66,925	104,227	37,302	55.7
	경남	93,509	192,600	99,091	106.0
	제주	17,349	40,247	22,898	132.0
감소지역	부산	291,855	288,331	(3,524)	-1.2
	대구	151,053	124,632	(26,421)	-17.5
	인천	332,885	147,570	(185,315)	-55.7
	광주	39,843	34,239	(5,604)	-14.1
합계	4,275,867	5,200,725	924,858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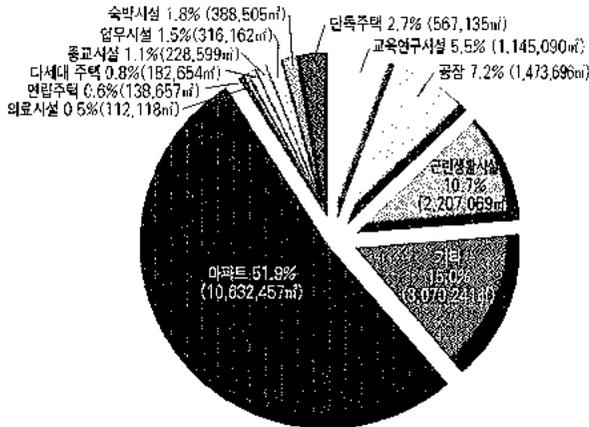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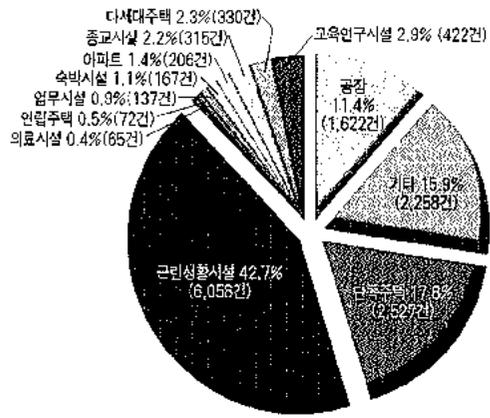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77	428	82,098	656	704	146,926	279	276	64,828	79.0	
다세대주택	113	117	84,938	134	146	85,191	21	29	253	0.3	
연립주택	16	20	38,607	18	22	32,282	2	2	(6,325)	-16.4	
아파트	49	121	1,961,993	59	169	2,893,452	10	48	931,459	47.5	
근린생활시설	868	918	337,626	1,584	1,650	631,133	716	732	293,507	86.9	
종교시설	73	92	58,768	82	94	59,591	9	2	823	1.4	
의료시설	6	7	24,920	13	24	21,155	7	17	(3,765)	-15.1	
교육연구시설	168	185	536,316	94	111	276,384	(74)	(74)	(259,932)	-48.5	
업무시설	51	53	270,256	29	30	29,368	(22)	(23)	(240,888)	-89.1	
숙박시설	33	39	49,776	39	39	29,646	6	0	(20,130)	-40.4	
공장	254	310	233,052	439	552	433,022	185	242	199,970	85.8	
기타	571	626	597,517	559	648	562,575	(12)	22	(34,942)	-5.8	
합계	2,579	2,916	4,275,867	3,706	4,189	5,200,725	1,127	1,273	924,858	21.6	( )=미노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5월 누계)



연면적 (총 20,462,383㎡)



건수 (총 14,179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83	397	2,480,984	434	434	2,481,161	51	37	177	0.0	
부산	230	327	291,855	311	409	288,331	81	82	(3,524)	-1.2	
대구	124	124	151,053	164	164	124,632	40	40	(26,421)	-17.5	
인천	135	137	332,885	162	162	147,570	27	25	(185,315)	-55.7	
광주	87	103	39,843	97	106	34,239	10	3	(5,604)	-14.1	
대전	60	60	23,772	107	107	102,288	47	47	78,516	330.3	
울산	38	38	31,246	128	129	54,534	90	91	23,288	74.5	
경기	491	608	337,437	714	924	835,061	223	316	497,624	147.5	
강원	178	205	54,118	175	210	64,789	(3)	5	10,671	19.7	
충북	206	244	200,457	271	332	409,946	65	88	209,489	104.5	
충남	155	132	71,009	239	239	146,928	84	107	75,919	106.9	
전북	74	74	48,611	159	159	90,514	85	85	41,903	86.2	
전남	90	95	34,814	137	144	83,658	47	49	48,844	140.3	
경북	145	162	66,925	208	232	104,227	63	70	37,302	55.7	
경남	135	156	93,509	326	358	192,600	191	202	99,091	106.0	
제주	48	54	17,349	74	80	40,247	26	26	22,898	132.0	
합계	2,579	2,916	4,275,867	3,706	4,189	5,200,725	1,127	1,273	924,858	21.6 ( )=미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5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089	3,131	14,748,126	1,627	1,631	11,005,875	(1,462)	(1,500)	(3,742,251)	-25.4	
부산	1,030	1,869	1,652,346	730	1,003	707,274	(300)	(866)	(945,072)	-57.2	
대구	449	449	424,066	616	616	454,229	167	167	30,163	7.1	
인천	748	758	1,165,668	514	533	1,037,004	(234)	(225)	(128,664)	-11.0	
광주	506	629	350,182	528	612	309,591	22	(17)	(40,591)	-11.6	
대전	471	471	452,668	406	406	243,499	(65)	(65)	(209,169)	-46.2	
울산	225	229	158,976	479	484	227,177	254	256	68,201	42.9	
경기	4,297	4,944	3,307,199	3,009	3,760	2,930,849	(1,288)	(1,184)	(376,350)	-11.4	
강원	1,005	1,140	617,152	739	811	281,180	(266)	(329)	(335,972)	-54.4	
충북	990	1,206	1,127,167	964	1,113	669,500	(26)	(93)	(457,667)	-40.6	
충남	836	726	485,864	826	826	435,918	(10)	100	(49,946)	-10.3	
전북	375	375	326,614	513	520	276,802	138	145	(49,812)	-15.3	
전남	509	562	304,956	742	769	340,246	233	207	35,290	11.6	
경북	910	1,025	540,785	903	1,053	666,015	(7)	28	125,230	23.2	
경남	1,136	1,411	1,024,268	1,205	1,378	740,013	69	(33)	(284,255)	-27.8	
제주	291	328	120,178	378	425	137,211	87	97	17,033	14.2	
합계	16,867	19,253	26,806,215	14,179	15,940	20,462,383	(2,688)	(3,313)	(6,343,832)	-23.7 ( )=미이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5월)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전월말 회원수	6,975	2,731	663	518	216	227	250	126	812	164	184	174	190	103	239	307	71																	
회 원 변 동 사 항	회원수	693	22	236	5	632	1	518	215	1	227	0	249	1	126	0	808	4	164	0	183	1	170	4	187	3	102	1	238	307	0	71	0	
	입회	38	13	3	5	1	4	1	8	6	3	1	1	2							1	1	2				3	2						
	재입회	15	8					1		1	3												2											
	전입	18	6				1	2	1		3											2	1											
	전출	-13	-5								-4																-1	-2	-1					
	폐업	-15	-2	-3			-1	-2			-2												-4	-2										
	사망	-2	-1																															
등록취소	-1	-1																																
금월말 회원수	7,012	19	2,346	4	665	1	523	0	216	1	232	0	251	1	135	0	813	4	167	0	184	1	173	4	188	1	101	1	239	1	308	0	71	0
계	7,031	2,750	666	523	217	232	252	135	817	167	185	177	189	102	240	308	71																	

99년도 회원변동사항(5월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입회	314	0	74	26	21	12	12	17	16	55	14	21	13	11	7	19	16	7																
재입회	41	0	16	6	1	1	3		1	5		2	4									2	4						2					
전입	69	3	23	3	1	3	3	3		14	3	1	7	1	4	2											3	1						
복권	1	0	1																															
소계	452	3	114	0	35	0	23	0	16	0	18	0	20	0	17	0	74	0	17	0	22	0	22	1	19	2	7	0	22	0	19	0	7	0
계	455	114	35	23	16	18	20	17	74	17	22	23	21	7	22	19	7																	
전출	64	1	17	1	2	2	1	1	1	21	2	3	6	2	2	3	1									2	3	0	5	1				
폐업	112	3	48	1	4	5	5	2	2	25	1	2	5	6	2											2	1	4						
사망	8	0	3		1	1				1																1			1					
등록취소	2	1	2	1																														
소계	186	5	70	1	2	0	7	0	8	0	6	0	3	1	2	0	47	0	3	0	5	0	11	0	8	2	3	0	5	1	6	0	0	0
계	191	71	2	7	8	6	4	2	47	3	5	11	10	3	6	6	0																	
누계	264	43	33	16	8	12	16	15	27	14	17	12	11	4	16	13	7																	